

## 제 4 편 대한잡사회 100년 변천사

---

| 제1장 | 일제 강점기 조선잡사회

| 제2장 | 해방이후 조선잡사회 재창립

| 제3장 | 대한잡사회 시대별 활동

| 제4장 | 잡업진흥원 설립 및 활동

| 제5장 | 잡사업 관련단체 설립 및 활동

## 제 4 편 대한잠사회 100년 변천사

### 제 1장 일제 강점기 조선잠사회

일본은 통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잠사업을 식민지정책에 중요수탈 수단으로 여겼다. 잠업장려와 기술보급 이면에는 낮은 가격으로 고치를 구하려는 일본의 속셈으로 우리나라는 고치만 생산하는 양잠업에만 종사할 뿐이고, 상묘생산, 잠종제조, 제사업 등 전문분야에는 거의 참여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의 관리도 일본인 중심체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잠사관계 단체 역시 일인 중심의 관제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본보다 조선이 기후풍토가 좋고 오랜 잠업 전통을 가지고 있어 농민의 잠업기술교육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 잠재력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판단아래 식민수탈이 손쉬운 잠업장려를 본격 착수하였던 것이다.

한·일 합방 이전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실시한 일본 농상무성 주관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 1905년 조선통감부가 실시해 발표한 「한국잠업조사복명서」를 통해 당시의 조선 잠업 실상을 조사하는 한편 「최신한국사정」 및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일제는 한국에서 잠업기술만 개선하고 장려하면 그들의 목적 달성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대한제국 말기에 잠업전습소 및 잠업강습소의 설치와 각종 잠업강습회 개최 등에 재정적인 보조를 통하여 잠업기술 보급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강점 이후 근대적 잠업기술 보급을 통하여 잠업증산을 위한 그들 나름의 수탈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1910년 대한제국 합병 이후 총독부가 들어서고 식산국(殖産局) 조직 내에 농무과를 두

며 본격적인 적극적인 잠업행정을 펼쳐나가며 잠업을 장려하였다.

1910년 10월 여자잠업강습소를 권업모범장 용산지장에 부설하고, 농사시험장 잠사부를 산하기관으로 예속시키며 원잠종제조소를 신설하여 원잠종 제조와 배부를 비롯하여 잠업 일반에 관한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19년 4월 ‘조선잠업령’을 공포하여 각도에 도(道)원잠종제조소를 설치하는 등 잠업증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에 따른 잠사업 지원과 협력을 민간차원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으로 잠업민간단체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1920년 10월 ‘조선잠사회’가 창립된 것이다.

1900년에서 1920년 사이 민간에서 설립하였던 여러 형태의 잠업회사 및 단체들의 창립을 살펴보면 1884년 설립되어 1889년에 폐지된 ‘잠상공사’를 필두로 하여 1899년 조선의 유지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대한제국인공양잠회자회사(사장 김가진)’도 경영난으로 이듬해에 폐지되고 1901년에 설립된 ‘농업회사’와 1911년 7월 ‘조선중요물산동업령’에 의해 설립된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은 사업 종목을 쌀과 면화, 소와 돼지, 누에고치, 직물 등 농업생산물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1919년에는 잠종, 상묘 등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농업전반 업종을 업무영역으로 발전했다. 이는 조선잠사회와 조선농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이 조합이 잠사업종을 포함한 농업 전반에 걸쳐 민간 공공단체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1912년 경기도에서는 ‘잠업조합준칙’에 의한 농업조합이 설립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었으나 경영과 운영 등으로 그리 오래 존속하지는 못했다.



조선잠사회 창립 기사 (1921. 4. 4 동아일보)

### 제1절 조선잠사회 창립 (1920)

#### 1. 시대적 배경

당시 총독부에서는 잠사업 산업규모를 확대하여 식민수탈 정책구현과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는 어용관제 단체 역할단체가 필요함에 따라 민간차원의 잠사업 지원과 협력차원으로 1920년 10월 조선잠사회 창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잠사회 창립 당시 구성임원으로 회두(회장: 有賀光豊 일본인 식산은행장이 겸직) 1명과 부 회두는 2명으로 1명은 일본인이었고 다른 1명은 조선인으로 한창수가 유일했다. 이사

10명, 평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부회두 한창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조선인은 명분상 임원이며 실제 권한은 없었다.

조선잠사회의 창립 목적은 “조선잠사업의 개량발달을 도모함”이었으며, 주요 사업은 잠사업에 관한 필요한 조사, 잠사업 관련 의견의 발표 및 당국에 대한 건의 및 청원, 잠사업에 관한 강습, 강연회, 품평회 등의 개최, 잠사업에 관한 공로자의 표창, 회보 및 잠사업관계의 인쇄물 발행 등 주로 문화와 홍보사업이다.

그리고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보통회원의 3등급이며, 명예회원은 학식과 명성이 있는 자, 본회에 대하여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특별회원은 일시금 10원 이상 납입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거나 학술·기예가 뛰어난 자, 보통회원은 일시금 2원 이상을 각출한 자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3,5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잠사회는 1924년 4월 13개도(道)에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지회 구성을 보면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장 각 1명, 간사 약간 명을 두었으나 지회장은 각도의 산업국장, 부지회장은 각도 잠업 담임기사, 간사장은 각도 잠업계 기수가 겸임하는 조직으로 관청에 속해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관제단체로서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2. 창립이후 활동

### 가. 잠사전문 종합지 '잠업지조선'의 발행

조선잠사회의 사업 중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1924년 4월에 창간을 본 회보 '잠업지조선'의 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잠업지조선은 월간으로 발행하였으며, 국판 50면으로 1회 발행부수는 1,000부 내외였다. 창간당시의 1부당 인쇄비는 10전이었으며, 회보대금은 1년분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1원50전, 비회원에게는 2원으로 배포하되 선금



조선잠사회 창립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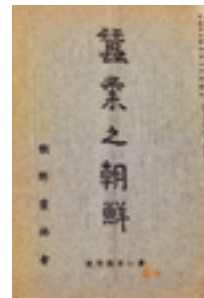
조선잠사회 창립당시 임원



회두 有賀光豊



부회두 한창수



잠업지조선 창간호 발행

불입방법으로 배포했다.

잠업지조선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꾸준히 발행되었으며, 시기별 필요한 잠업지식과 통계 및 자료를 수록하여 당시의 시대적 잠사업 흐름과 기술적 발전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참고할만한 귀중한 자료를 남겨 두었다.

### 나. 총독부 내에 잠사과 설치와 조선잠사회 정부보조 요청

1924년 8월 11일에는 총독 경질(更迭)을 계기로 잠사회 이사회 결의로 대정부 건의가 있었는데 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기구내에 잠사과를 신설해 줄 것과 잠업시험장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원의 내용으로는 '잠견조건을 위한 견견장 설치를 위하여 조선잠사회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 다. 잠업기술 개량을 위한 강습회 개최

조선잠사회가 중점을 두었던 사업가운데 하나는 잠업기술개량을 위한 강습회의 개최였다. 이 강습회는 매년 13개도를 순회하며 연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강사진은 일본의 잠업전문가와 조선에서도 잠사관계 권위자로 구성하여 수준 높은 강습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진화된 잠업기술보급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제1회 잠업기술 개량강습회(1925)

1925년 10월 19일에서 26일까지 조선잠사회와 농민회 공동으로 경성제국대학교 의예과 신축건물에서 개최된 제1회 잠업강습회 상황을 보면 '총 경비, 강의로 등 600엔(円)', '활동사진비 500円'이었으며 총 경비 가운데 동민회가 500円을 부담하였다.

당시 강사진으로서는 잠사관련기관과 잠사업단체의 권위자들이었고, 수강자는 당시 전국의 잠업기술 종사자였으며 강의과목은 뽕나무 재배관리와 누에사육, 생리 유전이 주가 되었다.

매년 전국각지를 순회하며 1945년까지 계속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강습회 외에도 박람회, 공진회, 품평회 등을 개최하고 모범양잠가의 표창, 선진지 시찰 등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잠사업 발전 업무보다 식민정책 협력사업 중점추진



식민지 정책에 협력 방편의 평의회 개최

조선잠사회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면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사례로 경성구락부에서 1924년 11월에 있었던 잠사회 이사회를 오후 4시에, 1925년 2월 12일의 잠사평의회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하고, 잠사회 총회는 1928년 10월 7일 오전 8시에 개최하는 등 잠사회, 이사회 등 회의 진행을 항상 잠업 강습회 개최 전일로 정하였고 강

습회 개최장소에서 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잠사회 발전에 대하여 뚜렷한 업무추진이나 정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서 조선잠사회라는 단체가 존립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마. 각종 행사를 빌미로 강제적 누에고치 헌상(공출)

다음으로는 1928년 11월 10일(소화 3년)에는 일본 식민정책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잠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일본 京都에서 실시하는 일본천황(쇼와덴노 124대) 즉위식 행사를 맞아 조선에서 보내는 헌상품(獻上品)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28년 8월까지 전국 우수양잠농가1,988호에 누에고치 10개씩 조선잠사회로 수집(백견 230kg, 황견 17kg)을 완료하여 동대문 조선제사에서 조선잠사회장과 총독부 농무과장 입회하여 조사(繰絲)하고 조선견직물 주식회사에서 제직(製織)을 마치고 총독부 회의실에 전시한 후에 11월 8일까지 일본 신궁으로 보냈더라'라는 내용이 잠업지조선 1928년 8월과 11월호에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의 누에고치 헌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것 외에도 일본인이 잠업기관에서 퇴임하거나 전근 또는 사망의 경우 이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모금액을 미리 정하여 모금액을 세우고 이 모금액으로 포상비(肖像碑)를 제작하거나 기타 비용정산 내역을 공표하는 등 전국 잠사관계 기관과 업체, 개인 모두가 총동원되어 이러한 행사를 종종 추진하였다는 내용이 '잠업지조선'에 여러 차례 기사로 게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누에고치 공출로 헌상품 제작

## 제2절 잠사업종별 단체의 설립

조선잠사회 이외의 잠업과 관련된 단체의 창립을 살펴보면 1926년에 창립된 조선제사협회와 1929년에 창립된 조선잠종제조업조합중앙회, 그리고 1934년에 창립된 조선상묘조합연합회 등이 있다.

### 1. 조선제사협회

1925년 12월에 '산견(産繭) 100만석 증수계획'(37,500M/T)이 수립된 것을 계기로 기계제사업자들에 의해 1926년 10월에 '조선제사협회'가 창립되었다. 기계제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직공의 쟁탈방지, 품위개선, 원료문제의 연구 등 제사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협회는 누에고치 공동판매 제도의 확립과 건전 조사기관의 설치, 제사적금으로 흉년이나 재해에 대비 적립실시, 견가 협정 기초확립, 강습회와 강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다.

### 2. 조선잠종제조업중앙회와 조선상묘조합연합회

1925년부터 각도에 잠종제조업조합을 설립하도록 총독부가 장려함에 따라 이 조합은 각도(道)를 구역으로 하는 동업조합으로 모든 잠종은 이 조합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해마다 가을에는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량 잠종은 표창하였다. 한편 잠업취체소에서 조사한 누에종자의 병독 비율에 따라 우열을 정함으로써 잠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결과 그 성과가 좋고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1929년 10월 '조선잠종제조업조합중앙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이 조선잠종제조업중앙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1911년 설립된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을 통하여 잠종관계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전에 각도별로 조직되어 있던 잠종제조업조합을 통일하여 중추 기관으로서 설립된 조선잠종제조업중앙회 설립목적은 각도 잠종제조업조합 간의 업무 연락을 긴밀하게 협동하여 상호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잠종의 판로확장, 가격협정, 잠종의 수급조절, 당국에 대한 건의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며, 가격통제, 품평회 및 강습회를 개최하고,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을 하였다.

또한 '조선상묘조합연합회'도 이미 각도별로 조직되어 있던 상묘조합을 통일하여 중앙 기관으로서 1934년 연합회를 설립하였다. 그동안 일본산 수입 상묘를 저지하고, 생산과 수요지방을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우량상묘의 원활한 공급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3. 조선농회

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여러 종류의 단체를 통합하고자 1926년 1월 '조선농회령'을 공포하여 13개도(道) 220개의 군(郡), 도농회가 조직되면서 1927년 3월에는 '조선농회'가 창립하였다.

이 농회는 현재의 농협중앙회와 거의 같은 기능을 지니며 조직이 전국적으로 방대하고 업무영역도 광범위하며, 일제강점기 조선농회는 준 관청의 형태를 유지하며 농민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하였다.



조선농회 조직(1927)

### 제3절 누에고치(산견) 100만석 증산계획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한 잠업장려 시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산견 100만석증산계획」이다. 이 계획을 요약하면 1925년부터 1939년까지 15년이라는 장기 계획이며, 최종년도에 양잠농가는 100만호를 목표로 상묘는 총 4억 주 이상을 식상하고, 농가호당 뽕밭 1단보(300평, 봄 2매, 가을 1매 소잠)를 유지하며 산견 100만석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1925년 4월에 9개항의 식상장려 요강과 6월에는 식상보조금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계획 달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37년 중일전쟁과 더불어 식상 보조금 삭감 등 지원정책의 미흡과 지나칠 정도의 방대하고 무모한 계획수립에 대한 실행과 추진력이 따르지 못해 목표년도인 1939년까지 달성되지 못했다.

### 제4절 1930년대 조선잠사회

#### 1. 1930년대의 세계정세와 경제상황

1930년대는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세계잠사업은 서구에서 하향곡면에 들어섰고, 동양에서는 상향곡면으로 팽창하면서 특히 일본은 잠업증산에 따른 최대 실크생산 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 실크 수출산업 시장의 선두로 급부상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공황으로 고치가격이 폭락하고 누에 고치 값은 관당(3,75kg) 1920년 13원 5전, 1924년 9원 15전, 1930년 3원 12전으로 폭락을 거듭하고 생사시세도 1930년 5월에 kg당 1,100円에서 6월에는 795円, 7월에는 705円, 9월에는 560円, 10월에는 540円으로 폭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30년대에 실크업계를 가장 위협하고 있던 것은 인견사의 생산량 급증 현상이었다.



평안북도 산견 4만5천석 축하회 (1930)

#### 2. 전시체제 하에 누에고치 헌납에 앞장선 조선잠사회

일본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잠업계에 종사하던 일본인 가운데 전쟁에 군인으로 출정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전쟁 중 전사자가 발생하자 조선잠사회는 회원으로부터 위문금을 수집하여 전쟁에 협조해야 한다는 태세로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선 군인들에게 방한이나 방탄복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면 헌납을 결정하고 당시 85만에 달하는 국내의 양잠농가에게 호당 5립 이상의 누에고치를 헌납하게 하고, 그 외에 잠사관계 생산 업자에게 진면 원료대금으로 금품을 헌납케 하였다. 전쟁물자인 군용기 헌납을 위하여 양잠농가에게는 한줌 이상의 고치를 공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회사원, 공녀 등에는 월급의 2%를 각출하는 등 수탈행위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잠사회는 창립 이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일본인 아루가(有賀光豊)이 물러나고 제2대 회장으로 1938년 6월 1일 일본인 모리(林繁藏)가 취임하였다. 이 인물 역시 식산은행장 직함과 함께 조선잠사회 회장을 겸직한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에 적극 호응하는 잠사업 정책에 앞장섰다.



2대회장 모리(林繁藏, 1938)

### 3. 전시동원령과 비행기 헌납 위한 누에고치 공출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는 1939년 8월에 독일을 중심으로 일본과 이탈리아가 연합하여 미국과 영국 소련의 연합군에 대항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자 같은 해 '전시총동원령'을 칙령(勅令)으로 공포하였다. 전시동원령은 사람은 물론 개인의 토지, 자본 모든 물자는 동원령에 근거하여 공출(供出)이라는 미명하에 물가는 '공정가격제'를 도입하여 통제를 실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제약되고 박탈당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 당시 조선잠사회가 주축이 되어 잠사업계가 총 동원된 비행기 헌납 사건이었다. 미국, 영국, 소련을 궤멸시킬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 폭격기 헌납을 위해 조선잠사회가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취지를 총독부에 자발적으로 건의하여 1943년 10월 8일 허가를 받았다. 총독부는 조선잠사회의 헌납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헌납금 모집을 승인했다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대외적 명분으로는 지난 기간 잠사업계는 일본의 은사수산물(恩賜授産金) 지원을 받아 혜택을 누린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기 위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행기 헌납 명목으로 1943년 추잠전 공판 시기와 1944년 춘잠전 공판 시기에 모금액을 총 20만엔 이상을 조성할 것이며, 그 대상자는 잠사업자, 제사업자, 견사매매업자, 진면(眞綿)제조업자, 부잠사가공 처리업자, 상모업자 등 중견업자, 각 도지회 등 협회직원, 잠사관계 봉급자(회사원 포함) 및 종업원은 급료의 10%이고 기간은 1943년 9월과 1944년 4월 2차례 실시한다는 것이다.



헌납금강요 / 잠사호 비행기 헌납(1943)

그 결과 48만6천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26만엔이 모금되었다. 이 금액으로 1943년 12월 8일 10시 서울 남산 해군 무관부(武官府)에서 잠사회장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해군대신이 '조선잠사호'로 명명하였고, 헌납한 비행기를 그 자리에서 인도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헌납금 26만엔 중 20만엔은 비행기 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6만엔은 해군과 육군에게 각각 3만엔씩 나누어 군비지원(恤兵金) 형식의 추가 헌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은 지속적이고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사이 일본은 미국, 영국과 전쟁의 상대국으로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멀어지게 되자, 생사수출의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 생사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일본은 수출중심 정책에서 벗어

나 국내에 섬유 자원을 보급의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이것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잠사업 통제법'을 공포하였고 통제기구로서 '일본잠사통제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제5절 1940년대 누에고치 추가증산 및 잠사업 통제

#### 1. 누에고치 50만석 추가증산계획

1925년 100만석 증산계획 추진 목표인 1939년까지 충족되지 못하자 일본은 부족한 누에고치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편으로 1940년에서 1945년간 산견 50만석(15,700M/T)을 추가로 증산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한편 생사를 일반 견직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직과 면직에 혼직(混織)을 강제화하고 '잠사업 신체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1941년 3월 24일 전국의 잠사주임관 협의회의 지시사항을 보면 나일론에 대처하기 위한 잠사업 재편성과 잠사업은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같은 해 정부가 50% 출자한 '잠사통제회사'를 설립하여 잠사업 전체를 중앙집권화하면서 가격통제, 수급조절, 잠종, 생사 매매를 통제하여 공정가격 배급제로 결정하고 이 모든 사항을 도맡아 수행하게 될 '조선잠사주식회사'를 1941년 12월 8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총독부 지도 감독을 받는 잠사업통제 기관으로 여러 분야에서 잠사업통제와 강제수탈의 악랄함을 구체화 시키면서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일본 자국 내에서도 잠견(蠶繭)증산 추진 방안으로 뽕밭 530,000ha, 견(繭) 326,000M/T을 목표하였으나 1942년 실적은 뽕밭 410,000ha, 견(繭) 225,000M/T에 불과하여 일본 농림대신이 직접일선에서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조선에서도 고치 생산량이 1941년 20,185M/T에서 1942년 14,753M/T, 1943년 14,346M/T으로 감산추세였기 때문에 더욱더 고치증산 필요성이 강요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감산추세는 조선에 있어서는 전쟁이라는 이유만은 아닌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1943년 1월 29일 총독부 정무총감이 각 도지사에게 지시한 '잠사증산에 관한 건'에 부연해서 농림국장에 의하면 잠사 생산자들 의욕이 감퇴되고 경기가 침체되어 이를 촉구하는 대목을 강조한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 1) 잠사업통제령

일본 자국 내에서 '잠사업 통제법'을 공포하고 통제기구로서 '일본잠사통제주식회사'를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조선잠사업통제령'이 공포될 것이 확실하므로 총독부 주관으로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1941년 8월 16일 '조선잠사주식회사'의 발기인회를 가졌으며, 12월 8일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조선잠사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잠사업을 관리 통제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잠사류 일체의 수급조절, 가격통제, 잠사류의 매입매도사업을 관장하는 통제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42년 3월 25일 마침내 '조선잠사업통제령'이 공포되었다.

이어서 5월 20일에는 '조선잠사주식회사'를 총독부가 50%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단지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로 명칭만을 바꾸어 설립한 것이다.

### 2) 조선잠업통제령의 주요내용은

- (1) 조선총독은 잠사생산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잠사생산업자에 대하여 생산량, 품종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2) 잠사류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 (3) 잠사류의 가격통제를 한다. 라는 내용이다.

잠사통제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조선잠사업통제령의 주요내용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상묘, 잠종의 생산량 지정과 그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의 전도.

둘째, 생산된 상묘, 잠종의 전량을 매상하여 양잠농가에게 공급.

셋째, 양잠농가가 생산한 고치를 매상하여 제사공장에게 배정.

넷째, 제사공장에서 생산한 생사의 매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산계획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통제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엄밀히 보면 잠사통제주식회사는 잠사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잠사업의 통제기구로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존속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도 일시적으로 부활한 일이 있다.

## 제 2장 해방 이후 조선잠사회 재창립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잠업은 책임생산 및 잠견 공출에 시달려, 심한 단속과 고통을 받은 양잠농민들은 8·15해방이 되자 앞다투어 뽕나무를 굴취(掘取)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양잠은 일본인들이나 하는 특수한 것으로 오인되어 일본의 국화(國花)인 뽕나무(사쿠라)와 동일시하고 닳치는 대로 베거나 캐내어 버렸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뽕나무 베어내기와 농민의 양잠의욕감퇴를 비롯하여 잠사업 정책을 추진해야 할 미군정청마저 잠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 잠사업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가운데 누에고치 가격 또한 다른 물가에 비해 평가 절하로 국내의 산견량(産藏量)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광복 직전인 1944년 말의 남북한 합계의 잠업상황을 살펴보면 양잠호수 922,017호, 잠종소잠량 1,128,855매로 누년 통계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뽕밭 면적도 81,778ha로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광복 이후 전반적으로 행정지도체계가 문란하고 추진력도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 산견량 또한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기형적인 형태로 발달한 잠사업이 광복 이후 대책이나 준비 없이 민간에게 이전됨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다양성을 지닌 잠사업 속성상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 제1절 조선잠업회 발족

#### 1. 조선잠업회 결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잠사업계의 혼란을 그대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잠업계에 종사하던 잠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껴기하여 잠사업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자는 의견이 잠사인들 사이에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의서가 미 군정청에 전달되었다. 이에 미 군정청의 협조와 동의를 얻게 되

어 전국잠사인 대표 12명을 지명하였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 종로의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 낭독 장소이기도 한 태화관(泰和館)에서 1차 잠사인 회합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미 군정청이 지명한 12명의 외에 추가로 3인의 잠업관련 인사가 참석하여 몇 차례의 회합을 거듭한 끝에 1945년 10월에 조선잠사회 창립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체 협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임의단체 성격의 '조선잠업회'가 결성되고 이에 따른 운영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잠업회의 회장으로는 농학박사인 계응상(桂應祥)과 부회장으로 김동경(金東經)을 선출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잠사회의 창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2. 조선잠업회 활동

창립을 마친 조선잠업회는 사무실을 당시 섬유회관 2층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회원은 잠사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나 사업가는 없었고 주로 잠업연구 및 기술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여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운영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전국 잠사인의 규합을 추진하는 일에 전념하며 미 군정청 요청으로 초대 한국인 잠정(蠶政)계장으로 이기인을 추천하고 잠정계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들도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상무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제사공장 관리를 농무부로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1년이 지나자 마침내 제사공장 관리가 농무부로 이관되었다.

일본이 전쟁에 패망함에 따라 일본 잠종 제조업자들이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잠종을 소홀하게 다루었다. 이듬해 잠종수급 상황이 불안할 것을 대비하여 조선잠업회 회원들을 각지로 급파하여 잠종수량 조사 및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잠종확보와 수량과약에 필요한 지방 출장과 제경비 역시 조선잠업회 회원들 자신이 각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미 군정청은 조선잠업회를 통해 일본인이 운영하던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여론을 살피고자 1946년 1월 초에는 전국잠업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과거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 운영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당시의 혼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기까지는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를 계속해서 운영방안이 현명하다는 결론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 군정청은 같은 해 4월 정책적인 판단을 이유로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다.

## 제2절 잠업단체 설립 필요성 대두

일제에 의해서 생산, 유통, 판매 등 잠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완전히 통제하고 관리해 오던 잠사통제주식회사가 1946년 4월 말에 해산됨에 따라 당장 잠업 관련 사업을 대체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잠사업계는 민족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남겨놓은 업체를 그대로 인수받은 업자들로서는 상묘나 잠종의 생산자금, 제사공장의 구건자금 등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집행예산마저 없는 사회적 임의단체인 조선잠업회가 이 거창한 사업을 맡아 집행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잠사업계는 물론 미 군정청에서도 이러한 업무수행을 담당할 잠업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잠사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45년 10월 발족한 조선잠업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전국의 잠사업계 대표를 모아 법인단체인 잠업단체를 정식으로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3절 조선잠사회 창립 (1946. 7. 8)

### 1. 창립총회 개최

1946년 7월 8일 오전 9시 미 군정청 제1회의실에 전국 잠사업계 대표 64명이 모여 사단법인 조선잠사회의 창립총회를 이틀간 개최하였다.

창립총회는 9일까지 연이틀 동안 진행되고 난 이후 폐회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 범위는 전국의 각 도 잠업회 대표 각 1명과 각 도의 잠업 주임기사 각 1명, 그리고 양잠농가 대표 각 1 또는 2명, 상묘, 잠종, 제사업자 대표 각 1명이며 부 잠사업자는 경기, 충북,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각 1명이고 충북을 제외한 견방직업자 대표 각 1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시대표로 경기도 참석자인 이영섭를 선임하고 개회사와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어서 미 군정장관(러취)의 인사말이 진행되었으며 곧바로 회의를 주관할 창립총회의 임시의장으로 김동경(金東經)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창립총회 의제로서 정



관심의 안전과 임원의 선출, 출범 년도의 수입지출 예산 등을 토의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조선잡사회가 출범하였다.

## 2. 창립정관 주요내용

당시 결의된 조선잡사회 창립정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사단법인 조선잡사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경성부내에 둔다.  
각 도에는 지회를 두며 부·군·도·읍·면에 분회를 둘 수 있다.
- (2) 사업으로는 잡사류 생산품의 생산비조사 및 가격협정, 잡사류의 생산자금 융통 및 알선, 잡사업 관계 물자의 구입 및 판매의 협력, 군정청 협력하에 잡사업 관계 생산품의 개량지도, 잡사류 생산품의 수출 수입 및 무역증진대책 강구, 군정청 협력하에 있어서 잡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시찰 선전 건의 및 강습강연회 개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3)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있으며 정회원은 양잡업자, 상묘생산업자, 잡종제조업자, 제사업자, 견방직업자, 부잡사가공업자가 되며,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 (4)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27명(회장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정), 감사 3명을 둔다.
- (5) 총회의 구성은 양잡업자 대의원으로 각도에서 2명, 잡종제조업자 대의원, 상묘생산업자 대의원, 제사업자 대의원, 부잡사업자 대의원, 견방직업자 대의원을 각도 1명씩으로 조직한다.
- (6) 잡사류의 가격협정을 위하여 잡사류가격협정위원회를 둔다.

### 사단법인 조선잡사회 정관 (1946년 7월 8일 창립총회)

####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조선잡사회라 칭함.

제2조 본회는 사무소를 경성부내에 위치하고 각 도에 지회를 설치함, 단 필요에 의하여 부, 군, 도, 읍, 면에 분회를 설치함을 득함.

제3조 본회는 조선잡사업의 개량장려를 목적으로 함.

#### 제2장 사업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함.

1. 잡사류 생산품의 생산비조사 및 가격협정
2. 잡사류의 생산자금융자 및 알선
3. 잡사업관계물자의 구입급 및 판매의 협력
4. 군정청 협력하에 잡사업관계 생산품의 개량지도
5. 잡사류생산품의 수출수입급 및 무역증진대책 강구
6. 군정청 협력하에 있어서 잡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시찰, 선전, 건의급 및 강습강연회개최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은 좌(左)의 이종으로 함.

1. 정회원
2. 명예회원

제6조 회원자격 좌와 여함,

1. 정회원  
양잡업자, 상묘생산업자, 잡종제조업자, 제사업자, 견방직업자, 부잡사가공업자
2. 명예회원  
본회에서 차를 선정함

제7조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금을 첨부하여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을 요함.

제8조 입회금의 기준은 좌와 여히 정함.

1. 양잡업자는 일호당 10원 이상
1. 상묘생산업자는 생산수량 1천주당 5원
1. 잡종제조업자는 잡종제조 수량 1천매당 백원
1. 제사업자는 1부당 백원 단 족담기는 1부당 50원
1. 부잡사가공업자는 2천원 이상
1. 방직업자는 기계 1대당 50원 이상, 단 수직기는 1대당 25원

제9조 본회 회원은 대의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본회사업실행에 의한 제 이익의 향유의 권리가 유함.

제10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경비부담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유함.

제11조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차를 제재 또는 제명함을 득함.

제12조 기납한 입회금은 차를 반환치 아니함.

제13조 본회를 탈퇴코자 할 시는 회장의 승인을 요함.

## 제4장役員 및 직원

제14조 본회에 좌의 역원을 치함.

1. 회장 1명

1. 부회장 2명

1. 이사 27명 (회장,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함)

1. 감사 3명

1. 본회에 고문, 참여 약간명을 이사회에서 차를 추대함

제15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차를 선거함.

제16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함.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사고 있을 시는 차를 대리함.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정한 회무를 장리 함. 감사는 본회 사무를 감사함.

제17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의함.

고문, 참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함을 득함.

제18조 역원임기는 2개년으로 함, 단 감사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함.

제19조 역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는 필요에 응하여 보결선거하되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제20조 본회에 좌의 직원을 치하고 회장이 차를 임면함

1. 지회장 8명

1. 주사 약간명

1. 기사 "

1. 서기 "

1. 기수 "

직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 및 기술에 종사함.

## 제5장 회의

제21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회의 2종으로 함.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시 차를 소집 함. 단 이사회는 이사 3분지 1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시에 회장이 차를 소집함.

제22조 총회구성은 좌기(하기)대의원으로써 조직함.

가. 양잠업자 대의원 각 도 2명

나. 잠종업자 대의원 각 도 1명

다. 상묘생산업자 대의원 각 도 1명

라. 제사업자 대의원 각 도 1명

마. 부잠사업자 대의원 각 도 1명

바. 견방직업자 대의원 각 도 1명

제23조 대의원은 각 도 지회에서 선출함, 대의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함.

제24조 총회, 이사회는 정원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자로 차를 조직함. 결의는 출석자의 반수 이상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제25조 회의의 의장은 회장 차에 당하고 회장 사고 있을 시는 부회장이 차에 당함, 회장, 부회장 사고 있을 시는 이사 중 1인이 차에 당함.

## 제6장 가격협정위원회

제26조 본회는 제4조 제1호 및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정청의 요청을 얻어 잠사 류가격협정위원회를 설치함.

제27조 전조의 위원회는 좌기의 위원으로써 조직함.

1. 양잠업자 대표 각 도 2명

1. 상묘생산업자 대표 각 도 1명

1. 잠종제조업자 대표 각 도 1명

1. 제사업자 대표 각 도 1명

1. 부잠사가공업자 대표 각 도 1명

1. 견방직업자 대표 각 도 1명

1. 본회역원 약간명

1. 정부관계관 약간명

## 제7장 자금급회계

제28조 본회의 기본금은 입회금 및 기부금으로 적립함.

제29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본회수입금으로써 충당함.

제30조 자본의 보관운영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차를 정함.

제31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함.

## 부 칙

① 제32조 본정관은 농무부와 상무부 인가일로부터 차를 시행함. (1946년 7월 16일 승인허가)

## 3. 초대 임원 선출

조선잡사회 임원의 선출방식은 전형위원회에 의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임시의장이 각 도에서 1명씩 전형위원을 지명하여 각 도에서 8명의 전형위원을 지명하였다. 지명된 전형

위원 8명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초대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숙의한 끝에 창립총회 임시 의장이던 김동경을 회장으로 부회장에는 이 영변, 권헌길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사 27명과 감사 3명을 선출하여 조선잡사회 초대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 4. 조선잡사회 설립인가 및 등기 (1946. 7. 12)

1946년 7월 8에서 9일까지 이틀간의 창립총회를 마치고 창립발기인 대표 김동경은 미군정청 농무부장 앞으로 사단법인 조선잡사회의 설립인가를 요청하였으며, 1946년 7월 12일자로 농무부장 이훈구 명의로 조선잡사회 설립에 따른 운영허가서가 발부되었다.

한편 창립인가 승인 이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17번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식으로 잡사업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6년 7월 26일에는 서울지방법원 제338호로 법인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적인 정식단체로 정식 발족하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를 마치고 잡사회가 발족하게 되자 곧이어 정관 규정에 따라 각 도 지회를 설치하였다.

#### 5. 출범년도의 수입지출 예산

창립총회에서 심의 통과된 수입지출 예산은 6,350,000원이었다.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입회금이 1,885,000원, 기부금이 115,000원, 회비는 구견, 상묘, 잡종, 생사, 부잡사 유통거래 당시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나누어 적립(割)한 금액으로 4,340,000원, 물품의 구입, 판매 알선료 10,000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에는 잡사업 관련 업자들은 입회를 주저하는 형편이어서 회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김동경 회장이 사재를 기증한 바도 적지 않다고 한다.

### 제4절 조선잡사회 운영 정립을 위한 활동(1947~1948)

#### 1. 사업 정립 활동 (1947)

##### 가. 정관변경 (1947. 3. 12)

조선잡사회의 창립 이후 초기업무로

첫째는 잡사회의 사업내용 정립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의 변경이 진행되었으며, 둘째로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귀속재산의 관리인이 결정되면서 잡사회 임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정관은 잡사업자 전체를 총망라하여 잡사업의 개량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1947년 3월 12일 개최된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일제 당시에 개설되고 운영해오던 잡사통제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많은 부분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948년 3월 5일 당시의 미군정청의 농무부는 이러한 정관개정 내용에 반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여 인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목 적 (제3조)

잡사회의 정관변경에서는 “잡사업의 개량발달, 회원의 복리 증진 및 잡사업 각 부분의 이익 균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하였으나, 농무부에서는 잡사업 각 부분의 이익 균점을 도모하기 위함에 대해서는 각 업종 간의 조정, 생산계획, 원가계산, 제품관리, 경영 감독 등에 대하여 너무 범위가 넓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잡사업 정책에 귀속되는 문제이며 행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므로 이것을 삭제하여 “잡사업의 개량발달, 회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함”이라고 수정하여 인가하였다.

##### 2) 사 업 (제4조)

잡사회 정관변경에서는 “잡사류라 함은 상묘, 잡종, 잡견, 생사, 견직물, 부잡사 및 기타 부산물을 칭함”이라고 정의하였으나, 농무부에서는 잡사 부문에서 견직물까지 칭함은 타당하고 능률적이나 현재 과도정부 체제에서는 견직물이 상무부 소관으로 되어있으므로 견직물을 삭제하고 인가하였다. 그리고 제4조 제3항에 “잡사류의 수급 및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매입, 매도와 함께 환원 배급”이라고 잡사회에서는 개정하였으나, 농무부에서는 이것을 “잡사류의 수집 및 환원 배급”이라며 정정하여 인가하였다. 그 사유로는 “잡사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잡사류의 매입 매도같은 순수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물론 국책으로 국민 경제 형편상 요청과 잡사류의 수급 및 가격조정의 필요로 경제에 통제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상행위를 외곽단체에 행정조치로써 영위시킬 수 있으나, 그 외곽단체는 공익성을 이탈한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제12조에 있어서 “본회 정회원은 그 생산한 잡사류를 본회에 매도 또

는 매수의 의무 권리가 유(有)함”이라고 잠사회에서는 결정하였으나, 농무부에서는 이 조문을 전문 삭제하며 그 사유로 “제4조 제3항 경정 이유와 같이 본 항은 잠사회 공익성의 한계를 이월한 부당 상행위로서 그 목적에 배치되며 의거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통제회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은 공익사단법인의 성격과 본질에 모순된다.”라고,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잠사회는 일본에 의해 진행되던 잠사통제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공익법인체로서 앞으로 잠사회의 운영에 따른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회원

제6조 제1항에 정회원의 자격을 “양잠업자, 상묘생산업자, 잠종제조업자, 제사업자, 견방직업자, 부잠사가공업자”로 규정하였으나, 농무부에서는 견직물이 상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견방직업자와 부잠사가공업자를 삭제하여 인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견방직업자와 부잠사가공업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관수정요청에 대하여 잠사회에서는 1948년 3월 25일에 개최된 제2회 정기총회에서 재차 정관을 개정하여 미 군정청 농무부에서 요구한 삭제 또는 경정된 조항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초기의 방안대로 인가하도록 요청하여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 4) 농무부장의 승인사항 규정

1947년 3월 12일 개최된 제1회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을 승인할 때 농무부는 다음 사항을 농무부장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즉 제15조 단서(但書)

“회장, 부회장, 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함”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농무부장의 승인을 득함”이라고 수정(更正)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임원(役員)진의 구성은 사업운영의 요체이므로 인재배치의 적정과 그의 신중(慎重)을 기하며 주무관청으로서 감독의 만전을 기하려면 이를 장악할 필요가 있음(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제24조에 단서(但書)로서 “총회 결의 중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해산은 농무부장의 인가를 득함을 요함”이라 부가하였으며, “단서는 감독관청인 농무부가 당연히 관리할 성질의 것으로 이를 정관에 부가하여 성문으로 명문화하여 주무관청으로서 사무 감독 철저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그 이유를 단서로 밝혔다.

### 나. 제1회 정기총회에서의 이사 보선 (1947. 3. 12)

조선잠사회 창립 당시는 잠사인들의 사회적 성격의 모임인 조선잠업회가 주동이 되고 미 군정청과 협의하여 하향식으로 대표 선출이었으나, 시일이 흐르면서 유력업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개편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1947년 3월 12일 개최된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귀속재산의 관리인이 결정되면서 이에 관련된 잠사회 임원도 사임하게 됨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게 되자 부득이 개편 단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궐에 따른 8명의 이사를 각도별로 선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다. 각도 지회 및 분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47. 3. 13)

1947년 3월 12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정관 제2조에 의하여 각도 지회는 필요에 따라 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으며, 설치된 지회 및 분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절차에 따라 전국에 지회가 설치되었다.

### 라. 각종 물자의 알선 (1947~1948)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한 시기였으므로 조선잠사회는 여러 가지 잠사업 관련 물자를 수급하여 양잠 농가나 잠사 업자에게 공급하였다. 1947년 추잠 수집용 보상 물자인 미국산 용 300,000마(嗎)를 각도별로 분배하여 배급하였다.

1948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잠좌 대지 588,000매를 수입하여 각도지회를 통하여 잠종업자에게 분배하였다. 또 잠구 제조용 면사 1.5곤(湄)을 동양방직으로 부터 인수하여 각도에 배급하는 한편 농림부로부터 배급받은 잠좌지용권지 234편을 각도지회에 배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타이어공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타이어 20개를 구입, 각도에 알선하여 주기도 하였다.



조선잠사회 창립 2주년 기념(1948. 7)

### 마. 생사의 수출 (1947~1949)

초창기 잠사류의 알선은 물론 수출사업까지도 조선잠사회에서 일괄 업무로 처리하였으니 그 사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초창기의 생사류 수출지역은 주로 홍콩이었는데 1947년에는 생사 약 4,100관을 49,949,547원에 수출하였다. 부잠사(生皮苧; 생피저), 엽은고

치(比須:비수), 양견(揚繭), 출각견(出殼繭)도 16,192관을 7,740,400원에 수출하였다.

수출지역 또한 홍콩으로 1948년에는 생사 약 2,080관을 37,502,747원에 한국무역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수출하도록 하였으나, 조일조(朝日組)라는 창고에 생사를 입고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되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 2. 체제구축 활동 (1948)

### 가. 제2회 정기총회- 일제 귀속재산 관리에 따른 임원개편

1948년 3월 25일 제2회 정기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귀속재산의 관리인이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회원이 참여하게 되어 잠사업계의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정관상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27명의 이사가 총사직을 결의 하였다. 3월 25일 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신규로 선출하고 연이어 이사회를 열어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를 새롭게 다시 선출하였다.

중앙이사 4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무이사 1명)은 대의원들이 선출하되, 대의원 10명을 선출하여 이 대의원들이 중앙이사 입후보자 6명을 선출한 다음, 투표로써 4명을 득표순으로 결정하여 중앙이사로 김동경, 권현길, 류준수, 이영섭 등 4명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도별 이사는 각 도 대의원들에 의해 29명을 선출하였으며, 감사는 의장이 지명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라 3명의 감사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총회를 휴회하고 새로 선출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회장단, 상무이사 및 각 도 지회장을 선출하였다. 회장단과 상무이사는 유임되었고, 각 도 지회장은 8명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 나. 잠사류안정자금 관리에 따른 가격협정

1947년 12월 1일에 생사 가격의 통제가 해제되자 생사의 생산가격과 시중의 가격 사이에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3월 25일에 개최된 잠사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잠사류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이 차액을 적립하여 양잠농가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는 제사업자에 국한되는 문제이므로 그 이튿날 열린 전국제사업자 회의에 회부하였다. 이후 4월 15일 제사업자회의에서는 잠사류안정자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적립기준과 액수를 두고 협의를 거듭하여 5월 28일 적립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신문과 방송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안정자금의 적립과정에서 적립성적이 부진함에 따라 잡음도 많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잠사류안정자금은

잠사업장려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50년 3월 10일에 잠사업장려자금에 대한 처분 결정이 내려져 상모대 보조 및 잠종대 보조 등으로 양잠농가에게 환원되었다.

### < 1948-1962 잠사류 가격협정 >

잠사류의 가격협정은 잠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1947년까지는 기존의 가격 통제령에 따라서 통제되었기 때문에 가격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62년까지 대한잠사회의 주관으로 잠사업 관련업자 사이에 가격협정을 조정하여 건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결정하고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해가 상반되는 업자 간의 가격협정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한잠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호 간에 의견을 절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잠사류의 가격을 당시 민간 주도로 관련 업체 사이의 문제를 협정에 의하여 가격을 스스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잠업 체계를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또한 산업계 전반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잠사류의 가격협정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많고 파란곡절이 심하였던 것이 잠견 가격의 협정이었다. 양잠가 대표와 제사가 대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며칠씩 회의가 연장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농림부에 일임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였다.

### 다. 누에고치 씨(剩餘種 : 잉여종)의 수출

1948년에는 춘잠기에 남아도는 누에고치 씨(剩餘種, 1947년산) 50,000매를 각 도로부터 수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동년 10월 20에는 각 도로부터 잉여잠종 79,639매를 수집하여 한국무역공사와 계약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발생한 내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 후 관계 업자와 이사들이 여러 차례를 거치며 대책을 논의한 끝에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한국무역공사에 현품을 인도한 바 있다.

### 라. 조선잠사회 선전계몽사업 (1948)

조선잠사회는 잠사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선전을 위하여 포스터, 월력 등 인쇄물을 작성 배부함으로써 양잠의욕을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 잠업관련 연중행사가 표기된 1948년용 월력 127,500매를 양잠농가와 잠업관계자 및 기타기관에 분배하였으며, 이듬해



조선잠사회 1949년 달력

인 1949년용은 170,000매를 배부하였다.

- (2) 1948년 1월 1일을 기하여 잠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친목을 피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잠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명단 1,100부를 인쇄 배부하였다.
- (3) 잠업장려를 선전하기 위하여 포스터 29,100매를 농촌 양잠지역과 홍보가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각 도에 무상 분배하였다.
- (4) 재상기술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도자용으로 상수재배법 표준 5,000매를 인쇄하여 각 도에 배부하였다.
- (5) 양잠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매년 증가 되는 복제 잡종을 근절시키기 위한 포스터 20,000매를 제작하여 각 도에 배부하였다.

**마. 주요 진행사항**

- 7월 9일 : 조선잠사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28번지로 이전.
- 8월 9일 : 정부에 잠업 전담기구인 '잠사국(蠶絲局)' 의 설치를 건의.
- 8월 30일 : 제5차 이사회 구건 자금용자에 대하여 공제기관설치 결의.
- 11월 9일 : 잠사업 장려자금 운영의 건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인가.
- 12월 23일 : 제6차 이사회에서 잠사 공제규정 및 동 시행세칙 승인.

## 제 3장 대한잠사회 시대별 활동

### 제1절 대한잠사회 명칭변경과 홍보활동(1949)

#### 1. 대한잠사회 명칭변경 및 대정부 건의

##### 가. 조선잠사회에서 대한잠사회로 명칭변경 (1949. 6. 9)

1949년 3월 30일에 개최된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조선잠사회 정관 내용 가운데 '농무부' 라는 문안을 '농림부'로 개정하고, '농무부장'을 '농림부장관'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1949년 5월 2일에는 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조선잠사회라 칭함'을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라 칭함'이라고 개정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1949년 4월 15일(농비 第258號) 발표된 단체명칭 변경 지시에 관한 건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단체로 그 명칭이 "조선"으로 표기된 것은 "대한"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 한 가지 안전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서면결의를 하였던 것이며 이로써 5.10 선거기념일 이후부터는 대한잠사회로 새롭게 개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1949년 6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이후부터는 사단법인 '대한잠사회'라 통칭하게 된 것이다.

##### 나. 부잠사가공공장 관리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제출 (1949. 9)

대한잠사회에서는 잠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기에 맞추어 가며 정부와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1949년 9월 13일 부잠사가공공장 운영에 정부 소관부서 이관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대한잠사회 김동경 회장 명의로 관계 부처장에게 제출하였다.

#### 2. 잠사정보지 발간 및 제1회 전국잠업강습회 개최

**가. 잠사신보의 발간 (1949. 10)**

해방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나자 대한잠사회는 잠사업 전문홍보지 발행의 필요성에 따라 잠업정보지 '잠사신보' 발행을 결정하였다. 잠사업의 사육기술과 개량발달에 필요한 논설 강습, 잠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잠사업의 합리적인 경영 방법, 지도 장려 방침을 홍보하고, 잠사정책의 논평, 조사, 통계, 농림부의 공보, 독자의 체험기, 잠사업에 관한 질의응답 등을 게재하여 잠사인의 지식 교류와 기술 향상, 연구·계몽에 선도적 역할 추진을 위하여 1949년 10월 1일 잠사신보의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잠사신보 창간호

국관 크기로 매월 100면의 2,000부 발행으로 발간경비는 특별회계 경비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한잠사회 일반경비 예산 가운데 제작비 약 반액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대 및 광고료 수입으로 충당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대는 120원(실비의 약 반액)이었으며 구독 신청은 지회를 통하여 주문하고 보급 부수의 확장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8권을 내놓은 이후 6. 25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정간되면서 발행이 중단 되었다.

**나. 제1회 전국잠업강습회 개최 (1949. 11)**

194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상공회의소 강당에서 해방 이후 최초로 전국 잠업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잠사업계의 기술전달과 사기 양양을 위하여 대한잠사회가 주최한 이 강습회에는 전국의 잠사기술 지도자와 관계자 및 관계단체 직원 그리고 유지 등 3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에는 대한잠사회 김동경 회장, 농림부 정구홍 차관, 과도정부의 농무부장이던 이훈구 등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23일 강습회에서는 신익희 국회의장, 김동일 박사, 백남익 선생 등 국내의 쟁쟁한 연사들이 잠사 정책을 비롯하여 잠업 관련 기술과 세계잠사업 현황 등에 대한 강연이 3일간 진행되었다.

제1회 전국 잠업 강습회의 연제와 강사진, 내용은 해방 이후 전체 산업계를 통하여 가장 큰 회합으로서 알려졌으며 잠사업 발전에 매우 큰 성과를 올린 대회였다.

**다. '잠사공사 법안' 파동에 따른 회장단 사임 (1949. 11)**

잠사회가 창립되고 3년이 지난 1949년 후반에 중대한 시련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일인 소유의 모든 제사공장을 정부에서 현물 출자하고 민간업계는 현금으로 출자하여

잠사공사를 만들자는 소위 '잠사공사 법안'이 국회에 제안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양론의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1949년 11월 25일 대한잠사회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잠사공사 법안'문제로 초대 회장단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잠사업계는 양론으로 갈라져 분열 직전에까지 이르렀으나, 1950년 1월 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일간의 논쟁 끝에 표결을 보류하기로 결론지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사건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잠사공사 법안'이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의 기간 만료에 따라 폐기되고 말았다. 잠사공사 설립에 관한 법안은 파란만 일으키면서 잠사업계에 어떠한 결과나 성과도 이룩하지 못했다.

**라. 주요 진행사항**

- 1월 8일 : 잠사업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잠사업 재건강화에 대한 건의서 제출.
- 3월 10일 : 일본생사 수입계획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각 부처에 제출.
- 3월 29일 : 제7차 이사회 개최 이사보선.
- 3월 30일 제3회 정기총회 개최 - 정관일부변경.
- 6월 28일 : 조선잠사회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269-3으로 이전
- 12월 1일 : 각 도 대의원 개선.
- 12월 16일 : 제9차 이사회 일본 유학생 학비보조의 건 결의.

**제2절 잠사업 기반 마련 활동(1950~1959)**

**1. 6.25전쟁으로 잠사 업무마비 (1950)**

**가. 전국 제사기술자연구회 개최 (1950. 2. 26 ~ 27)**

1950년 2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 편창공업회사에서 전국 제사기술자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정부시책인 생사수출 계획에 호응하고 생사 생산 기술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열린 이 연구회에는 전국제사공장의 기술책임자 48명, 관계당국 22명, 대한잠사회 7명 등 77 명이 참석하였다. 이 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생사검사와 시험성적 및

원료건 등급과 수출에 관한 내용으로 2일간 개최되었다.

#### 나. 상묘 및 잠종 생산의욕 고취 표창 (1950. 3. 8)

1950년 3월 8일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1949년도 우량 상묘 및 잠종 생산업자 15명에 대한 표창 행사를 진행하였다. 표창의 의미는 정부의 잠사업 장려계획에 의한 상묘 및 잠종의 소요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업체의 우량 상묘와 잠종의 생산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각 도에서 업종별로 성적이 우량한 생산업자 1명씩을 선발하여 표창하였는데 우량 상묘 및 우량 잠종 생산업자 각 8명 등 총 16명에게 표창하였다.

#### 다. 1949년 잠업경진 우수도(道) 표창 (1950. 3. 8)

1949년도(1949년 4월 1일부터 1950년 3월 말까지) 춘, 하, 추잠 공동판매 성과와 상묘, 잠종 대금의 징수성적, 잠사류 생산자금의 상환(償還)성적 등을 각 도 단위로 심사하여 성적이 우수한 도를 표창한 것이다. 1등은 30만원, 2등은 10만원(2개도)의 표창과 감사의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당면한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 지도 의욕과 성적양양을 도모하였다. 표창은 1등이 강원도, 2등은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수상하였다.

#### 라. 6.25 전쟁 대한잠사회 업무 파행

해방 직후 혼란기를 거쳐 미군정청, 과도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짧은 기간이지만 잠사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추진해오던 가운데 6. 25동란이 발발하였다. 당시 대한잠사회는 봄 누에고치 공판 시기가 한창일 무렵이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잠사회의 기능도 마비되고 임직원들도 각기 자신의 삶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업무기능은 마비되고 말았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11월이 되어서야 업무가 비로소 재개는 되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12월 초순 중요서류만 챙겨서 긴급하게 부산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50년 잠사회 업무는 완전한 공백기가 되고 말았다. 전란을 피해 다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온 대한잠사회는 전쟁으로 혼란의 와중 임에도 불구하고 피난지 부산에 긴급하게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 마. 주요 진행사항

- 1월 7일: 임시총회 개최, 국회에 '대한잠사공사법'안 반대청원 제출.  
잠업 시설관리 이용에 관한 건의서 제출을 결의.
- 3월 29일: 제14차 이사회, 생사 및 전사구입의 건과 부잠사수집의 건 결의.
- 4월 21일: 제15차 이사회, 잠종생산관련 침산도구 및 염산수입의 건 결의.
- 12월 20일: 전쟁에 따른 대한잠사회 중요서류 일부를 대구로 긴급 이전.

## 2. 피난지 대한잠사회 활동 (1951)

### 가. 피난지에 임시사무소 설치와 이사회 및 정기총회 (3. 20)

대한잠사회는 6.25 전쟁 발발로 피난지인 부산으로 긴급히 자리를 옮겨 1월 27일 부산시 동광동 3가 37번지 1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전쟁 중 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3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년 만에 개최된 당시 회의에는 이사정원 33명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8명만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정기총회를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차기 정기총회까지 경비 1,000만원은 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일부 직제 변경에 따라 초대 사무장에 전승규를 임명하였다.

전란으로 모든 것이 불안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5월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1949년 11월 25일 결정한 소이사회제를 재승인하여 잠사회 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1년 5월 6일에는 대의원 53명 가운데 34명이 출석하여 제5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총회 개최장소는 부산시 부민동 2가 10번지 주택(한남득씨 대)이었다.

정기총회는 전쟁 중이고 비상사태이므로 총회 모든 부의 사항 심의 의결권을 이사회로 일시 부여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 및 임원의 선임이 있었는데 당시는 비상시국임을 들어 잠사회 운영을 위해 잠사인이 아닐지라도 명망과 함께 능력있는 유력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당시 국회의원이면서 재경위원장이던 홍성하씨가 추천을 받게 되어 대한잠사회의 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제3대 대한잠사회 홍성하 회장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잠사류 생산자금이나 구견자금의 용자에 많은 도움이 가능했으며, 5월 8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시 완월동 1가 27번지의 2 목조가옥을 구입하게 되었으



며 사무실 겸 임직원들을 6월 4일 입주하도록 조치하여 생활의 근거까지 마련하기도 하였다.

전란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잠사업을 장려하여 생사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잠사업장려 정책의 요청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 불균형과 수출을 위탁받은 무역업자의 농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952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6회 정기총회에서 홍성하 회장은 생사수출이 없다면 잠사업장려에 대한 의의도 없으므로 제사업체가 부흥해야 양잠농가도 더 붙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잠업부흥추진위원회'를 두어 잠사업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잠업부흥추진위원회의 추진목적은 잠업정책 특히 생사수출 증진대책의 건의와 잠사 관계 입법건의 등에 있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추후 생사수출조합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나. 잠업부흥 기본자금의 적립 (1951. 9. 1)

6.25동란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전쟁의 상흔을 입게 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잠사업을 부흥·발전시키고 잠사업자의 공존공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자금을 적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잠사업계에서는 1951년 8월 15일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잠업부흥 기본자금 적립을 결의하고 9월 1일부터 적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12월 19일에는 잠업부흥 기본자금 적립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결의하였다. 이 기본자금을 적립에 있어서 당시의 대한잠사회 홍성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공로가 컸으며, 당국과 은행단 그리고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된 것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난 시절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이 잠업부흥 기본자금으로 추후 대한잠사회는 잠사회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잠사회의 운영에 큰 기틀이 되는 운영기본금도 바로 이 당시에 마련된 것이다.

#### 다. 잠사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알선

상모 및 잠종, 구견 등 생산자금의 용자는 1950년까지는 한국은행(구. 조선은행)으로부터 직접 용자를 받아 왔으나, 한국은행법이 공포된 이후 한국은행과 직접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대한잠사회가 일괄 차입하여(각 도 지회 대행) 각 잠사

류 생산업자에게 전대하고 정해진 계획에 의하여 상환케 하였다. 이후 1954년부터는 산업은행이 발족함에 따라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게 되었다.

#### 라. 6.25 동란으로 부족한 잠사류 물자의 배급과 알선

6. 25동란 이후 전시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모든 물자는 품귀 상태를 이루게 되고 잠사류인 재고 괄사 및 편색사를 소실 또는 분실하여 생사처리에 곤란한 사정이었으므로, 잠사회에서는 1951년에 면사를 배급받아 일괄 가공한 다음 각 제사공장에 배급하였다.

그리고 상공부로부터 잠견대용 면포와 수출 및 국용 생산용 포대를 배급받아 각 도지회를 통하여 각 업자에게 배급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잠사회는 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잠업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받아 잠사 업자에게 배급하기도 하는 등 잠업용구 구입과 알선을 집행하였다.

### 3.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창립 (1952)

#### 가. 한국생사수출조합의 탄생 (7. 10)

대한잠사회는 1946년 창립 이후 잠사류의 수출을 도맡아 왔으나,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업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시장 개척에도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1952년 7월 잠사류의 수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사수출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제6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잠업부흥추진위원(상임위원)들은 1952년 7월 10일 부산시 남포동에 있는 국제구락부에서 한국생사수출조합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창립총회에는 제사업자 25명 가운데 22명이 참석하였고 임시의장에는 잠사회 회장인 홍성하가 추대되었다.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설립목적으로 '잠사업 전체의 부흥발전을 위한 국책에 순응하여 잠사류의 대외수출의 적극 추진과 국내수급 조절을 진행함으로써 잠사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 선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다. 전시(戰時)중 피란지 어려움 속에서 생사수출의 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경제재건을 위하여 한국생사수출조합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생사수출조합의 모체는 잠사회였으며, 조합장은 잠사회 회장이 겸임하며, 상무이사 1명은 잠사회 상무이사가 겸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연결 사무를 집행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1952년도 이후의 잠사류 수출은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사업이 되겠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대한잠사회의 업무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생사수출조합은 생사의 수출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수출증대와 외화획득에 대한 공로가 지대하였으며, 이후 1961년 10월 16일 수출조합법에 의한 동일한 명칭으로 한국생사수출조합(상공부 산하)이 창립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 나. 잠견 및 상묘, 잠종가격 보상용 물자 배급 (1952-1953)

전쟁 중이므로 물자가 품귀된 상태였기 때문에 1952년과 1953년에도 대한잠사회는 잠견 및 상묘, 잠종 대금 가운데 일부를 비료, 면포 등 현물로 지급하여 주었다. 잠사류 가격보상용 물자 배급으로 잠사회는 상공부로부터 면포를 배급받아 추잠견을 출하한 사람에 대하여 잠견 관당 2.5마씩, 상묘생산자에 대하여 접목묘(합격묘) 10,000주당 70마를 유상배급(면포가격 1마당 110원)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3월 1일 : 각 도지회 사무장회의 개최 및 잠업부흥대책 관한 타합회의 개최
- 3월 29일 :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부회장으로 신중목 선임
- 5월 16일 : 제27차 이사회 정부에 대한 잠업대책 건의서 채택
- 5월 26일 : 전국 제사업자 회의에서 생사수출 촉진책 협의
- 6월 1일 : 전국 제사업자 회의에서 춘 잠견 가격에 대하여 농림부에 건의
- 9월 25일 : 전국 상묘생산업자 회의에서 우량상묘생산 대한 간담회 진행

### 4. 서울 환도 이후 활동 (1953)

#### 가. 대한잠사회 업무 정상화와 임원진 사퇴에 따른 보선

1953년 8월 서울 수복에 따라 잠사회도 이전의 사무실이었던 서울시 저동 서울금융조합 중앙지점의 건물을 전세로 임대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1년 제3대 대한잠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던 홍성하 회장은 1953년 3월 25일 제31차 이사회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유임요청으로 인하여 반려되었다.

이후 8월 13일 개최된 제32차 이사회에서도 홍성하 회장은 연이어 사의를 표명함에 따

라서 이사회는 조건부 사임에 동의하였고, 당시 부회장이던 신중목씨는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표가 수리되어 1953년 9월 4일 제33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제4대 대한잠사회 회장으로 홍재근, 부회장은 김홍식 씨를 선임하였다.

#### 나. 잠종 침산용구 및 잠업 용구의 수입알선

잠종 침산용구 및 잠업 용구는 6. 25동란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이 많았으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여 분배하였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매년 수입알선을 하였으며 당시에는 아주 간단한 기구까지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3일 : 제30차 이사회 개최 잠업장려 조성금 적립 및 비료 수입의 건
- 12월 22일 : 제34차 이사회 개최 인하대학설립기금 각출에 관한 건 결의

### 5. 본격적인 활동재개 (1954)

#### 가. 잠사업 전문 정보지 잠사보의 창간 (6. 30)

1949년 10월부터 대한잠사회는 잠사업계 전문지인 잠사신보를 발간하였으나, 6.25 동란으로 불과 8회분 만을 발행하고 이후 폐간되는 운명이 되었다. 서울 환도 이후 잠사회관이 마련되고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정상화 되면서 대한잠사회는 잠사회지의 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1953년 9월 5일 제4대 대한잠사회 홍재근 회장은 취임한 이후 잠사보 창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비 등 기타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기어코 발간을 서둘러야 한다며 창간작업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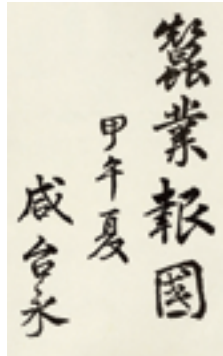


잠사보 창간호

이에 따라 1954년 6월 30일 공보처에 발간등록을 마치고, 원고청탁과 동시에 편집에 착수하여 8월 5일 드디어 잠사보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잠사보 창간호의 판형은 국판(25절)으로서 본문 102면, 목차 6면, 휘호 2종이 수록되었다. 표지는 3도로 인쇄하였으며, 제자 및 휘호는 함태영 당시 부통령 친필서체를 직접 전달해주어 제작되었다.

전쟁 이후 어려운 가운데 창간을 맞이한 잠사보는 잠사업계의 유일한 홍보매체로서 잠사업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잠사업의 성쇠에 따라서 잠사지 또한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창간 이후 월간지로서 1956년까지 계속 연간 10,000부 이상 발행하였으나, 1957년에는 2개월 합본 호 발행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연간 발간 부수는 10,000부 이하로 떨어졌으며, 1960년에는 격월간(2개월에 1회 발간)으로 발행되었다.



잠업보국 : 함태영 부통령 휘호

#### 나. 잠사업 법 제정을 위한 활동 (8. 16)

해방 된 이후 잠사업계는 일제시대 제정된 잠업령이나 제사업령 등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해오고 있었다. 대한잠사회가 창립되고 난 이후부터 뜻있는 사람들은 잠사업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6.25전쟁 이후 수복한 뒤 업무가 정상화를 찾으면서 잠사회관 마련과 더불어 안정을 이루며 잠사업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정비단계에 접어들자 잠사업 법 제정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잠사업 법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잠사회는 1954년 8월 16일에 개최된 제42차 이사회에서 잠사업 법 기초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한잠사회는 잠사업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12명의 기초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0월 26일에 초안을 마련하여 심의하였고 여러 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잠사업 법 초안을 12월 10일 개최된 제44차 이사회에 부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업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후 수차례 걸친 토론 끝에 최종 수정안을 1955년 1월 28일 자로 농림부 장관에게 잠사업 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회신을 지연시키던 와중에 1957년 농림부 청사의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발생하여 잠사회에서 제안한 잠사업 법 제정안 내용도 함께 불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잠사회는 1957년 4월 4일 재차 잠사업 법 제정을 건의하게 되었으며 농림부는 5월 2일 잠사회에서 건의한 잠사업 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 심의 이후에도 잠사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심의와 건의를 통해 정부에서도 잠업법 제정에 관심을 보였으며, 1961년 12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잠업인 의지로 기초한 잠업법이 공포된 것이다. 대한잠사회에서 정식으로 잠업법 제정을 논의 시작하고 7년이 되어서 잠업법의

공포를 보게 되었는데 이는 대한잠사회의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 중의 하나가 되었다.

#### 다.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자금을 얻기까지의 경위

1954년 초부터 농림부에서는 파괴된 제사공장의 건설과 신식 제사 기계시설의 도입을 위하여 200만 불의 FOA 원조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결국 745,000불 밖에 배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 건설은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전액을 기계도입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17개 공장에 배정하였고, 실수요자 대표로 대한잠사회가 기계도입에 관한 전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FOA 본부에서는 원조자금으로 도입하는 기계류는 미국에서 구매하라는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제사기계는 일본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 FOA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조건을 정정하여 일본의 제사기계를 도입하고자 협의를 거듭한 결과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사기계 도입이 성사되었으며, 당시 도입한 기계를 활용한 제사업계의 활약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OA 원조자금 지원

#### 라. 주요 진행사항

- 1월 30일 : 제35차 이사회 개최 잠업부흥기본자금 적립 및 운영요강 일부변경
- 2월 26일 : 제36차 소이사회 개최 한국잠사회재해상해보험주식회사(가칭) 설립의 건
- 4월 16일 : 제40차 이사회(서면결의) 잠사회관 구입에 관한 건
- 4월 30일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1로가18번지 잠사회관으로 이전

#### 6.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1955)

##### 가. 안보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매수 (3. 22)

1951년 8월부터 대한잠사회에서 적립이 시작된 잠업부흥기본자금을 활용하여 한국잠사해상보험회사 설립 계획으로 창립위원을 선출하고 추진하였으나 창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기존에 존속해오던 안보화재보험주식회사가 운영난으로 인해 금융조

합연합회에 매도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보험업을 인가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것을 대한잡사회에서 매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잡사회는 안보화재보험주식회사 매입을 위해 인수창립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955년 3월 24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동년 3월 31일에 열린 제47차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동년 4월 1일에 사무인계가 진행되었다. 매입금액은 총 56,079,259원 83전이었고 당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잡사회 기본금으로 매수한 안보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잡사회가 100% 주주로서 운영 주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얼마 동안은 보험회사의 운영에 익숙하지 않아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정상화 되면서 대한잡사회 임철호 회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업무실적이 향상되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대한잡사회의 기본금으로 매입하여 운영된 안보화재해상보험회사 운영 이익금은 잡사회 운영 및 잡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



안보화재 인수 (1955. 3. 24)

#### 나. 잠견 경쟁 입찰제의 반대 (7. 7)

1954년 추잠기부터 국회 농림위원회에서는 잠견 매매에 대하여 가격 협정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제를 실시하여 잠견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양잠의욕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당시의 농림부는 잠견의 경쟁 입찰제 실시요강을 작성하여 1955년 7월 7일 부흥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1955년 7월 16일자(농정 제1221호)로 농림부장관은 대한잡사회 회장에게 잠견경쟁 입찰제 실시요강을 시달하였으며, 동년 추잠기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잠견경쟁 입찰제 실시요강을 보면 '잠견매매를 대한잡사회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입찰자 자격은 면허제사업자로서 제사시설이 완비된 자에 한하고, 금추(秋) 각 제사업자의 입찰 한도 수량은 8월말 까지 조업이 가능한 현재 제사시설에 의하여 조사기 보유 대수의 비율에 의거해 산출한다.'(후략...)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는 잠업정책의 일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업무를 대한잡사회 책임으로 실시하라고 하였으니 잡사

회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 긴급히 1955년 7월 21일 제5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농림부 농정국장과 잠업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3일에 걸쳐 장시간 논의하였다.

당시 이사회는 경쟁 입찰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견으로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각 도의 농무과장들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전체 업계에서 반대의견이 비등하게 되자 농림부에서도 잠견경쟁 입찰제를 철회하고 가격 협정제에 의하여 공동판매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8월 19일에 개최된 부흥위원회에 잠견경쟁 입찰제 실시에 관한 건을 재차 부의하여 농촌의 제반실정이 경쟁 입찰제를 실시함에 부적합하므로 종전과 같이 협정가격에 의한 공동판매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여 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잡사회장에게, 7월 16일자 농정 제1221호 통첩은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협정가격에 의한 잠견공동판매를 실시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로써 약 2개월간에 걸쳐 잡사업계에 혼란을 가져왔던 잠견경쟁 입찰제 문제는 대한잡사회의 주장이 관철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1월 17일 : 제45차 이사회 개최 잠사업 법 초안제정 건의에 관한 건
- 3월 23일 : FOA 자금 기계도입 관계 제사업자 회의
- 3월 30일 : 제11회 정기총회 개최 잠업부흥기본자금 적립 요강 및 동 운영 위원회
- 11월 23일 : FOA 원조사금에 의한 제사기 도입의 건으로 제사업자 회의

#### 7. 잠사업 진흥 전국대회 (1956)

##### 가. 잠사업진흥 전국대회의 결의 (12. 3)

양잠의욕의 저하와 상전의 황폐화, 이에 따른 잠종의 수요 감퇴, 화폐개혁에 따른 민심의 동요가 함께 도래하자 이러한 여러 가지 난국을 타개하고 잠사업 진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잠사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지를 모으는 동시에 정부 부처를 찾아 건의서 및 진정서도 제출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선전 계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대한잡사회에서는 잠업진흥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잠업진흥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도 지회로 하여금 잠업진흥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 작성하도록 하고 1956년 10월 말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잠업진흥 전국대회 개최 준비에 앞서 대한잠사회는 1956년 12월 1일 제60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에 제안할 안건 내용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12월 3일 오전 10시 반부터 대한잠사회 회의실에서 잠사업 진흥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생산검사소, 농산물검사소, 농업기술원(전 농촌진흥청) 잠사과 등 관계기관과 각 도에서 업종별 대표 1명 이상, 기타 관계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한잠사회 회의실에서 잠사업진흥 전국대회의 진행은 권기동 사무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홍재근 회장의 개회사 이후 임시의장단 5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잠사업진흥대회 개최의 취지, 잠사업 진흥정책 토론을 마친 다음 결의문, 메시지를 작성할 기초위원을 선출하였다. 전국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잠사업진흥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였다.

이 대회는 하루 만에 끝났으나 이 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잠사업진흥 추진위원회는 전국대회 다음날인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추진위원회 규약의 작성, 상임위원 선출, 구체적인 활동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이후 대통령에게는 잠사업진흥 전국대회의 결의문과 탄원서를 전달하였고 부통령, 민의원 의장, 경제 4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게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보냈다. 그리고 국회, 각 도지사, 각 도의회 의장, 언론기관, 각 은행장, 시장, 군수, 각급 상공회의소, 잠사업 관계 기관장, 금융통화위원회, 무역협회 등에도 결의문을 발송하였다. 이 밖에도 1958년도 예산에 잠사업 관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의원 농림분과 위원장, 농림부 장관, 재무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노력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잠사업진흥 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잠업 증산계획안을 검토한 다음 농림부 대책 시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게 되었으며, 다시 시안을 참고자료로 OEC 측과 절충한 결과 경제원조에 의한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수립을 진행하게 되었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3월 20일 : 제12회 정기총회 안보해상보험주식회사 운영의 건과 잠사회관 매도협의
- 6월 1일 : 제13회 정기총회 개최 안보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정관 승인의 건 협의
- 12월 21일 : 잠사업 진흥책에 관하여 국회 농림분과 위원과 협의회 개최

#### 8. 세계를 무대로 활동영역 확대 (1957)

#### 가. 회장단의 총사퇴에 따른 임원 보선 (11. 23)

1957년 3월 21일에 열린 제14회 임시총회에서 재선된 홍재근 회장을 비롯하여 권헌길, 변준모 두 부회장이 동년 11월 13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제64차 이사회와 제16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11월 22일에 개최된 제64차 이사회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1월 23일 개최된 제16회 임시총회에서는 임시의장을 선출, 의사 진행을 하였으나, 대의원들로부터 회장단의 총사직 이유를 밝히려는 추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전일 이사회의 임시의장이었던 탁임조 이사로부터, 홍재근 회장이 잠사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해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일부 대의원은 이를 계기로 정관을 개정하여 회장 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자고 긴급동의 안을 냈으나 격론 끝에 정관개정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속개된 이사회에서 투표 결과 회장으로 임철호(29표)가 선임되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철호는 농림부장관, 자유당중앙당 부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잠사인들의 잠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1957년 11월에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임철호 회장은 재임 2년 동안에 난맥을 보이던 안보화재보험회사의 경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았으며, 잠사회의 운영도 정상화하는 등 공로가 컸으나 국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1959년 10월 16일 대한잠사회 재임 2년 만에 회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 나. 한국의 ISA 가입 (12. 5)

국제견업협회(International Silk Association 약칭 ISA)는 1949년 5월 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잠사업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 국제견업협회(ISA) 가입

한국은 창립 당시 대외적인 국제활동을 펼칠 형편이 되지 못하여 ISA 창립총회에 한국대표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7년 8월 19일 ISA 회장대리 H. Morel-Journel 씨가 한국의 가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농림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대한잠사회는 12월 5일 ISA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959년 6월 1일 제7차 국제견업대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국제견업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잠사회로서는

국제활동의 터전을 닦아 놓았으며 ISA를 통하여 우리나라 잡사업의 현황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 각국 잡사업 동향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4월 22일 : 상모, 잠종, 제사, 각도대표자 회의 개최
- 5월 2일 : 잡사업법 초안심의 회의 개최
- 8월 17일 : 잡사업 진흥협의회 개최와 OEC, 농림부, 잡사회 연석회의 개최
- 8월 26일 : 법제위원회에서 잡사업법안 일부 수정 통과
- 12월 2일 : 잡사가 안정법안 심의 (6인위원회) 개최

### 9. 잠업증산을 위한 활동 (1958)

#### 가. 생사물품세의 면제를 위한 활동 (1958-1961)

1956년에 개정된 물품세법에 의하여 생사에 관해서도 물품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당시 국회 상공위원회에서는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세하도록 결의되었으나 재정위원회에서 국가 세수증가를 위해 재차 부활시키려 한 것이다.

당시 견직물을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생사 거래에 물품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고치 값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영향으로 양잠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잠업증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한잡사회가 앞장서고 잡사업계가 총동원되어 생사 물품세의 면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59년 12월 23일 제33회 정기국회에서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10여년 동안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재연되었으며, 그것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잡사회를 비롯하여 잡사업계는 동분서주하였다.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잡사회는 대정부 활동의 일환으로 1958년 5월 19일에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게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제, 관세 부과 및 수출불(弗) 우대에 관하여 임철호 회장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5월 29일에 이 진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잡사회는 대정부 활동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1959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사업자회의에서는 국용생사의 물품세 면제, 수출불에 대한 특혜조치, 수출보상금 제도실시 등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잡사회장과 연명하여 관계 당국에 결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당시 잡사회는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제 관철을 위해 정부 해당 부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자유당 및 국회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제5대 대한잡사회 회장이었던 임철호 회장이 국회 부의장이었으며, 대한잡사회 중앙이사인 변진갑 이사가 국회 농림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대 국회 잡사업 정책 수립 활동에 앞장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침내 자유당 정책위원회의 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변진갑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 생사에 대한 물품세 폐지를 내용으로 한 물품세법 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으며, 1959년 12월 23일에 열린 제33회 정기국회 제22차 회의에서 물품세법 중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잡사업계의 숙원이던 생사에 대한 물품세에 대한 면제가 결정되었다. 당시에는 국민 대다수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사 제품 즉 견직물은 사치품이므로 생사 거래에 대한 물품세를 20% 부과하였던 것이며 이 물품세가 부과됨으로써 생사 원가가 높아져 생사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것이 바로 고치 값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고치 생산에 있어서 감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사유로 잡사업계에서는 이 생사 물품세 철폐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주 : 잡사보 1960. 1~2월 합병호 1~6페이지 참조)

#### 나. 주요 진행사항

- 2월 13일 : “뽕따러 가세” 영화제작 각본 심의회
- 5월 28일 : 제67차 이사회. 부잠사수출 제한 반대결의
- 10월 29일 : 잠사업증산 계획 6인 추진 위원회



뽕따러가세 영화 (1958)

### 10. 이사장 책임제로 조직개편 (1959)

#### 가. 이사장 책임제로 정관변경 (11. 12)

잡사업계로서는 임철호 회장의 과거의 공로와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추진에 있어 회장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장 책임제로 하는 동시에 임철호 회장을 계속 회장(명예직)으로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대한잡사회는 1959년 11월 12일 제71차 이사회를 거쳐 오후에 제19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회장과 부회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개정하며 이후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권헌길을 선임하고 회장으로 임철호를 선임하여 승락을 받았다.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28일 : 1958년 잠업 경진회 우수자에 대한 표창식
- 5월 15일 : 국제견업협회 한국대표로 참가 (잠사회)
- 5월 18일 : 생사물품세 면세 추진 예비 위원회 구성

**제3절 의욕적 잠업증산 활동 (1960년대)**

**1. 잠업증산 장기계획 마련 (1960)**

**가. 또다시 불거진 생사에 대한 물품세폐지에 대한 활동(1.1 ~ 10.30)**

195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면세 결정이 되었으나 1960년 7월 27일 총선에 의해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서는 9월이 되자 ‘견직물은 사치품이므로 그 원료인 생사에 대하여 과세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의 세율보다 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1961년부터 부과하여야 한다’는 재무부에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잠사업계는 또다시 생사 물품세 면제를 요청하는 단체 활동에 돌입했다. 당시 대한잠사회와 양잠농가 대표들은 관계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잠업계 대표단을 구성, 당국을 방문해 항의했으며, 학생들까지 일제히 나서 대 정부활동을 펼쳤다. 1960년 10월 28일에는 농업은행(현 농협중앙회의 전신) 회의실에서 한국농업문제연구회와 농업경제신문사 주최로 잠업진흥에 관한 협의회, 즉 생사 물품세 부활의 타당성 문제로 진행



생사물품세 반대운동 (1960)

된 회의에서도 생사에 대한 물품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잠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생사 물품세 면세 활동방안은 제1단계로 농림부가 주관하여 재무부와 교섭하여 동안이 삭제되도록 진행하고, 제2단계로는 전국 양잠농가의 서명서를 받아 국

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8명의 추진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잠사회가 협동하여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한 결과 동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생사에 대한 물품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의됨으로서 생사에 대한

물품세는 계속해서 면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제를 계기로 적립되었던 적립금은 잠종대금의 일부로서 양잠농가에 환원되었고, 환원하고 남은 금액 1,120,714원으로는 일본에서 수입한 잠업영화 “내일이 있는 양잠”복사비 사용이 결정되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1962년 5월 14일자). 복사한 영화는 제목을 “새로운 양잠”이라고 수정하여 번역과 해설을 삽입 각도 지회에 배부하여 상영 홍보함으로써 양잠의욕의 고취와 기술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생사에 대한 물품세가 면제됨에 따라 고치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됨에 따라서 양잠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 잠업발전을 위하여 잠사회가 이룩한 큰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 된다.

**나. 주요 진행사항**

- 2월 10일 : 1959년 도 대항 잠업경진회 우수도 표창식
- 8월 27일 : 잠업증산 5개년계획에 대한 협의회
- 10월 22일 : 생사물품세 부활 방지책 추진 위원회

**2. 잠사업 진흥을 위한 활동 (1961)**

**가. 수포로 끝나버린 제2차 잠사업 진흥 전국대회 (1. 25)**

1956년 12월 3일에 제1회 잠사업 진흥 전국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와 한미 경제조정협정 사업기관인 OEC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59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나 그 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1961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도 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한잠사회에서는 1961년 1월 25일에 제2회 잠사업 진흥 전국대회를 개최를 통하여 잠업증산계획의 확대와 추진에 필요한 방책 등을 협의하여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정리하여 민의원, 참의원, 민주당중앙당 등 관계부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4개월 이후 5.16 군사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몰려남에 따라서 이 건의서는 결국 효력이 상실되었다. 비록 정권의 빈번한 교체로 말미암아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대한잠사회가 주도적으로 선도하여 잠사업 진흥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서 등이 밑거름이 되어 차후에 잠업증산계획 수립 정책의 원천이 되었으며, 잠업증산 5개년계획 수립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정치적 혼란 속에 임원개편 (3. 16 ~ 17)

1961년이 되면서 명예회장으로 있던 임철호가 재차 사임을 표명하고, 다년간 잡사업체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던 변준모 부회장이 사망하였으며 또한 이사장 권헌길은 고령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임원 보선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961년 3월 14일에 열린 제76차 이사회에 앞서 농림부로부터 고문 2명을 추대할 것과 농림부 잡업 과장을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다.

제76차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토의한 끝에,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다면 정치파동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임원도 정당인이나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업계 내부에서 추대하고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하면 활로가 생길 것이라는 지배적의견에 따라 농림부의 고문 추대요청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수락을 결정하였다.

1961년 3월 16일~1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2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권헌길, 부회장 이석운을 선임하였고 이사회를 속개하여 제2대 이사장으로 권기동을 선출하였다.



누에고치수매(1961)

### 다. 잡서류 알선사업 일체를 농협으로 이관 (8. 15)

1961년 8월 15일 농업협동조합이 발족하게 되어 모든 농민관련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대한잡사회에서 추진하던 잡서류의 알선사업도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잡서류의 알선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로 대한잡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알선수수료로 운영과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각 도지회 및 시·군 분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일선의 지도 및 장려사업은 물론, 상묘, 잡종의 운임, 배부, 대금회수 등의 업무 집행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잡서류 생산자금의 취급이 곤란하여질 것 등이었다. 대한잡사회로서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향후 진로에 대하여 1961년 9월 18일 제78차 이사회와 1961년 9월 19일 제2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잡사회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단체별 자금의 용자와 공판 및 알선업무를 농협에 이관하고, 기존의 문화사업은 계속 진행하며 이에 따른 직원의 감축과 시와 군의 분회직원 은 농협에 이관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한잡사회의 수입재원에 대한 안건을 부의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잡사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존속하면서 경제행위를 떠난 문화사업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시기를 보가며 필요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재단 법인체로 변경을 위해 해산 시의 재산처분에 관

한 규정도 아울러 개정정관 안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이사회와 총회는 정부 시책에 따르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한잡사회의 향후 진로방안'과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결의되었다. 다만 해산 시의 재산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에 재산처리 규정이 없으면 유사단체에 인계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로써 지난 15년 동안에 걸쳐 실시해 오던 잡서류의 알선사업은 모두 농협으로 완전히 이관되었으며, 대한잡사회는 순수한 문화사업 단체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 라. 알선사업 농협이관으로 업종별 단체 설립 (10. 10)

잡서류의 알선사업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한잡사회는 경제적인 사업은 중지되고 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한잡사회에서 취급하던 상묘, 잡종의 생산자금의 용자사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체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서 잡사업 종별 생산단체가 분리되면서 각각 창립한다.

이에 따른 단체별 창립과정을 살펴본다.



업종별 단체 설립추진

#### 1) 한국상묘협회의 창립(10. 28)

1961년 9월 19일 대한잡사회의 제22회 임시총회 이후 각 도 상묘 대의원 8명은 별도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농협 특수조합으로 발족할 것도 구상했으나, 특수조합으로써는 생산자금의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961년 10월 10일 대한잡사회 회의실에서 각 도 대표 10명이 참석하여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961년 10월 28일 대한잡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각 도 대표 53명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창립정관을 심의하여 통과시켰으며, 1961년 11월 21일자로 농림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승인받았다.

#### 2) 한국잡종협회의 창립(11. 16)

1961년 9월 19일 대한잡사회 제22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각 도의 잡종 대의원 8명은 업종별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협 특수조합으로 발족할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통해 동년 10월 10일 농협 특수조합 발기인회가 구성되었으나 전국의 잡종업자 회원 숫자



의 미달로 인하여 특수조합 법정 인원 확보의 불가능함에 따라 사단법인 체제로 발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창립 발기인회에 가부를 서면으로 물었으며, 전원의 찬성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잡종협회의 창립총회를 1961년 11월 16일 대한잡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정관을 심의하여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1961년 12월 6일 자로 농림부 장관의 설립허가가 이루어졌다.

### 3) 대한제사협회의 창립(10. 29)

5·16 이전에도 제사협회의 설립 문제가 거론된 일이 있었다. 1957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었을 때 동 법에 의하여 양잡업자, 상묘생산업자, 잡종제조업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할 것이므로 제사업자만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제사협회의 창립을 추진하고, 따라서 대한잡사회의 정관도 개정할 것을 제의한 일이 있었으나, 1957년 3월 21일 대한잡사회 제62차 이사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잡사류의 알선사업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잡사업 관련 단체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창립됨에 따라 제사업자들도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하여 1962년 7월 18일에 열린 한국생사수출조합 임시총회에 제사협회 창립의 건이 상정되었다.

1962년 10월 29일 한국생사수출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 정관심의회는 협회 구성의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하지 않고 임의단체로 운영을 결정하며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 4)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창립(10. 31)

임의단체로서의 생사수출조합은 1952년 7월 1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년 8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그동안 생사류의 수출업무를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5·16혁명 이후 수출조합법에 의하여 각 품종별 수출조합을 개편하여 새롭게 설립하라는 상공부의 지시에 따라서 종래의 생사수출조합은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일한 조합원이고 업무도 대동소이하므로 종래의 생사수출조합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수출조합법의 뒷받침이 있는 동시에 상공부의 지시를 받으며, 정관도 달라졌으므로 그 성격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1년 10월 16일에 발기인 15명이 참석하여 한국생사수출조합 창립 발기인회를 가졌고, 1961년 10월 31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상공부 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내었으며, 동년 12월 7일자(상역 제924호)로 설립 인가가 났으나 정관 중 일부를 개정하라는 조건부 인가였다.

### 마. 주요 진행사항

- 2월 24일 : 잡사업법 국회통과 추진 협의회
- 5월 5일 : 전국제사업자 총회에서 잡견 경쟁 입찰제 검토
- 9월 19일 : 제22회 임시총회 정관 일부 변경 (잡견공판업무 농협이관에 따른 설립 목적 변경)/ 잡업증산 추진 5인 위원회 선출

### 3. 잡업증산 5개년계획 추진 (1962)

1962년부터는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잡업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동안 잡업증산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제대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잡업개발 5개년계획의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침체일로의 잡사업계에는 활기를 되찾게 되었으며, 대한잡사회는 비록 잡사류의 알선업무는 농협에 이관 하였으나 잡사업 증흥 관련 사업만큼은 활발한 전개가 진행되었다.

### 가. 전국 잡업대회 개최 (2. 21)

잡업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제1차 년도인 1962년 2월 21일에 서울 국민회당(현.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잡업대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이 대회는 농림부가 주최하고 대한잡사회가 후원하기로 되어있어 모든 준비로부터 진행은 농림부와 대한잡사회 사이에 긴밀한 협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산업인 잡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잡업에 종사하는 전국 잡업인들이 함께 모여 잡업증산 5개년 계획 성공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전국 잡업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광화문 입구에 대형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1,515명에 이르는 행사 참석 인원만으로도 해방 이후 민간단체로서는 최대규모의 운집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잡업대회를 마치고 잡사인 일동은 결의문을 채택을 통하여, 잡업대회 참가자 대표를 비롯한 대한잡사회장, 생사수출조합장 명의로 잡사업 발전의 염원을 담은 대회의 상징과 의미가 담긴 당시 국가재전최고회의 의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성황리에 개최된 전국 잡업대회는 제1차 잡업증산 5개년계획의 출발신호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침체상태에 빠져 있던 잡사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켰다.

#### 나. 잠업증산에 대한 정부대책 건의(3. 23)

대한잠사회는 3월 23일 제23회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5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짐하면서 일선 지도원의 양성화 등 10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농림부 장관과 최고회의 농림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다. 각종 잠업증산 활동전개

2월 10일과 10월 10일에는 도 농무과장회의와 도 산업국장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잠업증산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숙원이던 잠업 직종이 일반농업에서 분리되어 우수한 잠업기술 공무원의 확보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6월 28일에는 일본의 전국 양잠농업협동조합장을 단장으로 하는 7인의 잠사인이 내한하여 대한잠사회를 방문하였으며, 이 무렵 이후부터 국내 잠사관계 인사의 해외 활동이 활발하여졌다. 7월 10일에 농림부는 교통부의 협조를 얻어 철도 연변에 식상 지침을 시달하였고, 농림부와 업계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분야별로 방송망을 통한 권잠 장려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잠업관계 방송프로그램을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잠업계의 각 분야 대표적 인사들이 출연하여 총 9회가 방송되었다.

이 밖에도 당시 대한생사(주)에서는 한국잠업사상 처음으로 최고 생사품위인 6A를 생산하였으며, 누에품종 설악과 소양이 장려 누에품종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해의 일이다.

#### 라. 잠사인의 외국 파견 (1962 ~ 1971)

1960년대에 들어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잠사류 생산이 급격히 증가 됨에 따라, 잠사인들의 외국 파견도 확대되었다. 잠사인들의 외국 파견 목적은 주로 잠사류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의 개척, 선진국의 잠업정책 및 현황시찰, 선진기술연수 등이었다. 시찰단의 파견 국가는 주로 일본이었는데 이는 당시 잠업 생산국으로서 세계 제1위이며, 잠업 기술 또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다.

1962년 일본 잠사업의 제도, 경영, 시설에 관한 연구 시찰을 시작으로 1963년 동남아의 견업현황 시찰 및 생사와 견연사의 수출시장개척, 1964년 일본의 근대적 기술을 도입, 보급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1965년과 1966년에는 일본과 한일 기술협력에 관한 협의와 기술도입을 위해 방문하였고, 동남아와 유럽의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다. 이후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일본잠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제도, 시설, 경영에 관한 시찰이 이어졌다.

#### 마. 60년대 외국 잠사인의 초청

한국의 잠업생산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외국인 특히 일본의 잠사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리하여 우리 잠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려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외국 기술자를 초청하여 기술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외국 잠사인들의 초청이 많아졌다.



유승처장-잠업시험장 방문

#### 바. 잠업진흥 발전을 위한 건의

잠사업의 올바른 발전과 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대한잠사회는 업계의 대변하는 단체로서 모든 애로점과 건설적인 의견을 관계 정책부서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잠사업 진흥을 위한 건의로 1960년에 들어와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잠사업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었으므로 대한잠사회로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건의를 활발하게 하였다. 건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 (1) 잠업증산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
- (2) 일선 잠업 기술지도원 확보 건의
- (3) 잠사류 자금(상묘, 잠종, 구견자금) 금리 인하조치 건의
- (4) 추잠견 구견 대금 전액 융자조치 건의 등을 통하여 잠업증산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였다.

#### 사. 잠업증산의욕 고취를 위한 표창

한편 잠사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통하여 증산의욕을 고취를 위해 1960~70년까지 잠업증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증산의욕을 더욱 고취 시키는 것에 일익을 담당했다. 표창 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도에는 모범조상육 양잠가와 우량생사 제조공장 등이었으나, 특히 1963년부터 시작된 농림부 주관의 전국 잠업경진 대회 입상자에 대한 부상을 대한잠사회 이름으로 수여하였다. 잠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아. 잠사관계 서적의 발간

잠사관계 서적은 잠사회보인 잠사신보와 잠사보 외에 1950년대까지는 거의 발행이 된 적

이 없으나 1960년대부터 잠업법이 제정되고 잠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관련 연구와 기술 분야의 서적이 발행되었다.

1962년에는 잠사업법령집 1,000부, 옥외조상육 방법 2,000부, 10년 후의 세계 생사수요 전망 1,000부 등을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자. 잠업증산 홍보활동**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선전 활동으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2년부터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식상시기, 소잠시기, 사육시기, 누에고치 공판시기를 택하여 매년 1~2회씩 전파를 통한 방송으로 잠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양잠기술의 개선 및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잠업증산 홍보활동

**차. 안보화재해상보험회사 매각(11. 28)**

1955년 4월 1일부터 대한잠사회가 운영하던 안보화재해상보험회사는 1962년 1월 15일 공포된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1억원 이상 증액 출자하라는 재무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잠사회로서는 외부자본의 투자를 배제하고 안보해상화재주식회사 자체 재산으로써 증자하기로 하되 만약 자체증자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제24회 임시총회(1962년 11월 8일)에서 매각하기로 결정되어 1962년 11월 28일 안국화재(손영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7년간의 잠사회가 운영하던 안보화재해상보험회사는 잠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종결 되었다.

**카. 주요 진행사항**

- 2월 3일 : 잠업증산대회 산업박람회 출품 협의회 (관련단체 전원참석)
- 9월 12일 : 잠사가격 안정기금법안 제안 협의회
- 10월 29일 : 대한제사협회창립 총회
- 11월 8일 : 제82차 이사회, 제24회 임시총회 개최 안보화재 처분 결의

**4. 운영자산 확보 활동 (1963)**

**가. 대한잠사회 기본금의 운영대책안 마련 (3. 6)**

대한잠사회는 1962년 11월에 안보화재해상보험회사 매각결정 이후 1963년 3월 6일부터 기본금 경리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본금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대한잠사회는 안보화재주식회사를 매각한 5,000만원의 동산과 약 1,800만원의 부동산을 기본자산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대한잠사회의 기본금을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및 관리를 통해 운영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당시의 경제상황에 기본금을 현금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하락시키게 될 뿐 아니라,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말미암아 실용가치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한잠사회가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대한잠사회의 경상비를 유지발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1963년 6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본금 운영 연구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5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였다.

기본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극장 매입 운영, 연탄공장의 매입 운영, 국채매입, 은행주 매입, 경성궤도 매입 등 여러 가지 예상 안이 상정되었으나 논의 끝에 폐기되었고 1964년 1월 9일 제3차 기본금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해동화재보험 주식매입 안에 대해서만 승인·결정되어 동년 3월 7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농업잠 1123.16-490).

그러나 그해 5월 이후 증권파동 사건이 발생하고 대한잠사회는 당초에 해동화재보험회사의 주식 50%를 매입함으로써 동 회사의 운영권을 소유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이 빗나간 것이었다. 이후 진행 과정은 주식매각을 통해 2,700만원(전금 1,800만원, 주권대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5개월 만에 720만원의 수익을 창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외에도 5,000만원을 호가하는 담보물을 취득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1964년 9월 22일 제89차 이사회에서는 해동화재보험회사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1,620만원을 추가로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처분에 따른 자금의 회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인 1969년이 되어서 마무리되었다.

**나. 잠사류 상설전시장의 설치 및 운영 (9. 30)**

잠업증산 5개년 계획 추진에 있어서 국내외 인사들을 비롯하여 국민들에게 잠사업에

대한 선전계몽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대한잡사회는 1963년 9월 30일 대한잡사회 회관(남대문로 소재) 지하층에 상설 잡서류 전시장을 설치하였다. 이 전시장에는 잡사업 전반에 걸친 각종 모형과 실물 그리고 도표 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고, 특히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집중하여 홍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잡서류 전시장에는 1963년부터 1965년까지 매월 1,000여명 이상의 관람자가 방문하였으며 이후 1966년 관철동 대한잡사 회관으로 전시장을 옮기면서부터 회관의 위치가 골목에 위치한 관계로 관람자가 대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9년 6월에는 잡서류 전시장을 폐관하게 되었다.



잡사회관 상설전시장

#### 다. 잠업장려금의 적립요령과 관리방안 마련 (12. 13)

잠업증산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고치 생산이 급속히 증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생산된 고치의 처리를 위한 제사공장의 제사시설의 증설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원활했던 고치처리와 생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제사공장에 우선권을 주어 시설 규모를 확장시키는 방안의 대안으로 제사업자로 하여금 잠업장려 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잠업장려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63년 12월 13일 “제사공장 조사시설 증설인가 사무취급 지시”와 1964년 4월 23일 농업령 1123.63-991에서 “제사공장의 조사시설 증설인가”로 그에 따른 잠업 장려금의 적립액이 책정되고 옥사 및 중하견 제사공장의 증설에 따르는 적립금도 대한잡사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잠업장려금을 적립하기로 한 목적은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잠업장려에 투자케 함으로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사업 종목으로는 식상과 상전 비배관리 및 개량 잠구의 보급 등이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잠업증산 요원 증원 배치, 잠실설치, 상전 병충해 방제 등 사업 종목이 추가되었다. 일반 장려금은 각 도지회에서 제사업자와 협의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사전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잠업장려금의 적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막바지에 많은 장려비가 투입되었다. 사업별 집행상황을 보면 상묘대 보조와 증산요원 배치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묘대 국고 보조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식상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업장려금 중에서 보조하여 준 것으로서, 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식상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 그리고 증산 요원 배치비용은 지도체계 일원화로 잠업지도원이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선 지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한잡사회가 독자적으로 지도원을 배치한 것으로 일선 잠업지도에 공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상전 비료대 보조는 비배관리 면에서, 상전 약제대 보조는 집단 상전 지대 병충해 방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오토바이의 구입 배부는 일선 행정기관의 기동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도 중하견 장려금은 대한잡사회에서 관리하며 집행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방침에 의하여 잠업기술 종합연수원 설치비에 10,249,817원, 양잠협동조합 육성비로 2,232,410원, 생사 시장 육성비 1,674,500원 등 합계 14,156,727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이후 남은 잔액은 주로 잠업기술 종합연수원 건립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잠업기술 종합연수원 완성과 그 기능을 수행해 나아감에 있어 한국 잠업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당시 잠업계에서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되었다.

#### 라.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 (1) 잠업증산 5개년계획 수행에 관한 건의
- (2) 상묘대 국고보조 8할 확보 건의
- (3) 생사 물품세 면세 건의

#### 마. 잠사관계 서적의 발간

1963년부터 우리나라의 잡사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국잡업사 350부, 양잠기술관련 간이양잠법 1,500부, 잠사업관련 통계 및 법령, 관련인 명부와 관련하여 잠업통계 300부, 잡사업의 개황 300부, 잠업관계법령집 250부, 잠사관계 인사명부 2,000부 등을 각각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 바. 잠업영화의 제작 및 상영

시청각을 통한 잡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선진국의 잠업영화 필름을 수입 복사하여 각도에 배부하여 상영하는 동시에, 한국 잡사업의 발전상을 실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등 잡사업의 홍보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잡업홍보를 위한 영화 제작상황을 살펴 보면 1962년에는 일본의 잡업영화 '새로운 양잠' 필름을 수입하여 10부를 복사하여 각 도 지회에 배부하여 상영토록 하였다.

1963년에는 잡업영화 '뽀아가는 양잠'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한국 잡사업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이 또한 필름 10부를 복사하여 각 도 지회에 배부하여 상영하였고, 문화영화 '누에의 일생'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전국 주요극장의 뉴스 방영시간에 상영하는 동시에 필름 10부를 복사하여 각 도 지회에 배부하여 상영하였다. 또한 일본영화 '견의 기록' 및 '내일의 양잠'이라는 잡업관련 영상을 도입하여 상영하였다.

#### 사. 언론매체 홍보활동

1963년부터는 TV를 통해 잡사업 홍보를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TV 보급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주로 정책 수립자나 상류층에 잡업증산 5개년 계획 추진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열차 내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1963년과 1964년에는 농촌경제 향상과 외화획득에 유리한 잡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요간선 12개 노선에서 2개월간 열차 내 방송을 지속하여 상당한 잡업 홍보 성과를 거두었다.

#### 아. 주요업무 진행사항

- 2월 15일 : 잡업법 세칙 심의회 개최 (연3일간)
- 2월 25일 : 생사 물품세 계속 면세 추진 협의회
- 3월 8일 :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 제3대 이사장 윤광빈 선임, 회장 탁임조
- 5월 7일 : 잠사 관계 조사 연구 문제 협의회
- 5월 20일 : 농림부 주최 잠사 가격 심의회 참석
- 9월 23일 : 한·일 농림기술교류회의 잠사분과 위원회 참석
- 11월 18일 : 기본금 운영 연구위원회 개최

### 5. 양잠협회 탄생 (1964)

#### 가. 양잠협회의 탄생과 잠업진흥조합법안 (9. 25)

대한잡사회의 잠사류 알선사업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면서 상묘, 잠종, 제사협회

등 잡사업종별 단체가 창립되었으나, 오직 양잠 관련 단체만이 설립되지 못하였다. 50만 양잠 농가의 양잠 단체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양잠 단체의 설립이 늦어진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양잠 농가의 의식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양잠 단체의 필요성이 절감되지 못하고 있었고

둘째로, 구심적 역할의 양잠관련 지도적 인물이 없었으며

셋째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잡업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자 잡업이 활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행정 및 지도기관이 총동원되어 식량 장려를 추진하게 되자 양잠농가들도 양잠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대한잡사회 소속의 양잠 대의원들 중심으로 양잠협회의 창립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 1) 양잠협회 창립까지의 경위(10. 27)

잡업증산 5개년 계획의 3년이 경과 된 1964년 9월 25일 일부 양잠인들이 모여 대한양잠협회 설립준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0월 7일에는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창립총회를 1964년 10월 27일 대한잡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정관심의회 임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양잠협회는 다른 업종단체와는 달라 하부조직의 강화가 최우선이었으므로, 1965년에는 각 도 지부의 결성과 시·군 분회의 조직에 중점을 두었다.

#### 2) 양잠협회 독자추진 잠업진흥조합법안 국회에 제출

잠업은 특수한 구조적 상황이 병행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농협의 잠사류 알선사업에 대한 불평이 많았다. 상묘나 잠종의 공급에 있어서 문외한인 농협 직원이 일반 물품(비생물)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일반농업 지도사가 잠업지도까지 맡게 됨으로써 양잠 지도방식에 공백이 생기는 등 잠사업계로서는 불만이 많았으며, 어떤 회합이 있을 때마다 알선사업과 지도사업을 대한잡사회로 환원시키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비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법인인 대한잡사회로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촌진흥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었으므로 법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외국으로부터 차관(A.I.D 자금 등) 도입을 위해 잠사류 자금을 독자적으로 충당해 나가기 위하여서도 양잠인 만의 독자적인 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출된 법안이 바로 '잠업진흥조합법'안이다. 구체적인 잠업진흥조합법 안을 마련한 대한잠사회는 1965년 11월 4일에 제95차 이사회와 11월 5일 제3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부의 하였다. 농림부 농업생산 국장과 잠업 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방침과 잠업진흥조합법 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여 대한잠사회는 추후 이 법안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양잠협회에서는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 상정까지 되도록 추진하였으나, 제6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이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고, 농협 측의 강력한 반대와 잠종 및 제사업계의 반대도 있어 끝내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 나. 막대한 규모의 식상

1964년의 식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목표 1억6천5백만주 식상에 대하여 추진실적은 1억4천8백만주에 이르렀다. 이것은 목표량, 실적 공히 잠업증산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그 사업 규모가 가장 컸던 해이다.



상묘 식상장려 운동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5개년 동안에 있어서 목표량 5억6백만주, 실적 4억8천4백만주에 대하여 1964년 1개년의 것이 30%를 넘는 규모인 셈이다. 1960년의 경우, 불과 10백만주 정도였고, 1차 5개년 계획 1차 년도인 1962년에 30백만주, 2차 년도인 1963년에 60백만주 정도를 목표로 하였던 것에 비교하면 실로 막대한 사업 규모였다. 전국의 상실(桑實) 가용자원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였고 접수의 확보, 수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 보지 못하던 다양한 애로를 겪어야 했다.

1963년까지는 상묘대 국고보조가 80%였으며 1964년에도 같은 수준이 약속되었으나, 정부의 확정예산은 50% 보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되면 1억65백만주나 되는 막대한 물량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상황을 1964년 3월 18일의 대한잠사회 제26차 정기총회에서 논의하여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 다.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 (1)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세 건의
- (2) 상묘대 국고보조 5할 확보 건의
- (3) 일선 잠업기술원 확보 건의
- (4) 견연사에 대한 태국 수출 판로 확보 건의

#### (5) 생사 무(無)L/C 수출금융 용자신청에 관한 진정

#### 라. 잠사관계 서적의 발간

잠사업 관련 서적은 1964년에는 작잠개론 500부, 잠업통계 300부(추가인쇄), 잠사업의 개황 300부(추가인쇄) 등을 발행하여 배포함으로써 잠사업 현장의 기술과 현황에 참고토록 하였다.

#### 마. 언론매체홍보활동

1964년에는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전망과 실적에 대하여 장장 30일간에 걸쳐 TV로 연속 반복 방송하는 등 큰 홍보 성과를 거두었다.

#### 바. 잠업영화의 제작 및 상영

새로운 양잠기술 보급을 위하여 잠업영화 '뽕어가는 양잠'과 '누에의 일생'을 제작하여 누에사육 시기에 각도를 순회하며 상영하였다. '뽕어가는 양잠'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견업협회(ISA) 대회 현장에서 상영하여 한국 잠업의 발전상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까지 진행하였다.

#### 사. 포스터류의 인쇄 배부

최대의 식상장려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식상 장려포스터 50,000매, 잠견의 생산에 따른 수매를 돕기 위하여 잠견 공판 출하 권장담화문 100,000매를 주요지역에 배포하여 널리 홍보하였다.

#### 아. 주요 진행사항

- 1월 9일 : 제3차 기본금 운영 연구위원회, 연 8회 위원회 개최
- 4월 1일 : 제사업자 회의 개최 생사 물품세 면세 추진
- 4월 24일 : 한·일 농림수산 기술 교류협회 참석
- 5월 5일 : 대한무역진흥공사 회의참석
- 6월 16일 : 국제견업대회(스위스 취리히) 참석, 대표 윤광빈, 이원영
- 8월 19일 : 제사 기업경영 및 기술 강습회 개최
- 10월 22일 : 한·일 농림수산기술 교류협회 참석자 귀국 보고회

## 6. 내실강화 및 홍보활동 (1965)

### 가. ‘잡사보’에서 ‘잡사’로 내용혁신과 제호변경(3~4월호)

1954년 8월 5일에 창간호를 발간한 잡사보는 업계의 호응을 얻어 순조롭게 발행되었으나, 잡사업계가 침체상태에 빠진 1950년대 말기부터 발간 부수의 격감과 결간의 경우가 잦아지다가 1960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하게 되면서 면수도 80면으로 줄었으며 편집인도 부족하였고 예산의 제약을 받아 발행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잡사보 발행의 수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연간(6회) 6,000부 발행으로서 1회 1,000부 정도를 발행한 셈이었다.

그런 가운데 1961년 잡사류의 알선사업이 농협으로 이관에 따라 선전계몽사업으로서의 잡사보 발간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1962년부터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자 1963년부터는 면수를 110면으로 확대하고, 발행 부수도 1회 1,500부 내외로 증가하여 연간 10,380부를 발행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서는 잡사보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내용도 혁신하고 보강해 나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중간하면서 매회 5,000부씩 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잡사지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잡사보 발간사업에 역점을 둔 결과 1964년 하반기부터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국내 월간잡지로서는 내용이나 발행 부수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발전하여 잡사업의 발전과 양잠 생산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 1965년 3·4월호부터 “잡사보” 제호를 “잡사”로 >

1964년까지 잡사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1965년부터는 독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접근하기 위하여 1965년 3·4월호부터 제호를 잡사보에서 “잡사”로 바꾸는 동시에 발행 면수를 160면으로 증면하는 것을 단행하였다. 양잠농가를 위한 기사를 더욱 많이 게재하고 특히 각도 지회 및 잠업지도원을 대상으로 애독자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1회에 10,000부 이상을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에 편집실이 독립하면서 1966년부터는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하였고, 서체도 국한문 혼용을 한글전용으로 바꾸어 양잠농가 중심의 대중적 잡지로서 탈바꿈하게 되었다.

창간 당시 격월간으로 출발하였다가 1960년에 월간으로 전환 이후 5년 만에 다시 월간으로 환원된 것이다. 1966년도의 연간 발행 부수가 123,000부로서 잡사지 창간 이후 최고부수를 기록하였다. 1967년 9월호부터 잡사지의 보급 운동을 전개하여 1968년 8월호

는 마침내 목표 부수인 20,000부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 나. 일본현지 선진 잠업기술연수 (1965. 7~10)

잠업기술 향상 발달을 위해 직접 양잠을 경영하는 청년들에게 잠업 선진국인 일본에 장기간 파견하여 잠업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대한잡사회는 각도에서 1명씩 8명의 잠업기술연수생을 선발하고 1965년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 현지에 머무르면서 선진잠업 기술을 연수하도록 하였다. 잠업기술 연수생들은 일본 군마현 양잠 농가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장기간 머무르며 숙식을 해가며 직접 뽕밭을 가꾸고 누에를 치면서 양잠기술을 연수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선진 잠업기술을 연수하고 귀국한 연수생들은 각기 본인이 생활하는 도내를 순회하면서 강습회 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선진양잠기술의 보급 지도에 앞장섰다. 그리고 각자가 일본에서 연수한 새로운 양잠기술을 도입하여 직접 시범적으로 양잠을 연동하여 양잠경영 선진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선진적 잠업기술이 점차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잠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다. 대한잡사회관의 매입 (1965. 9. 29)

대한잡사회는 제6차 기본금 운영위원회와 제90차 이사회에서 잡사회관의 매매 및 매입안건을 부의 하였으나 보류된 경우가 있다. 당시 잡사회관 매입 후보 건물로서 충무로 2가 소재 대지 85평의 5층 건물(건평 330평)이었다.

이후 1965년 8월 16일 제10차 기본금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마침내 종로구 관철동 15의 1번지 소재 건물을 3,260만원에 구입하고 기존의 잡사회관을 6천 157만 6천원에 팔아 약 2천800만원의 기본금(자산)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관철동 잡사회관 매입(1965)

### 라.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 (1) 잠업증산 5개년계획 완수를 위한 건의
- (2) 잠업기술 지도원의 일원화 건의
- (3) 중앙 및 지방의 잠업기구 확장에 대한 건의
- (4) 생사 물품세 계속 면세건의

(5) 상묘대 5할 국고보조 확보 건의 등이 있다.

**마. 언론매체 및 인쇄물을 통한 홍보활동**

1965년에는 ‘외화획득과 수출산업으로서의 잠업’이라는 제목으로 TV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65년 잠사관계 서적으로는 ‘기업양잠경영안’ 1,000부를 발행하였다. 식사 장려 및 잠실 설계를 위해 1965년 포스터 및 전단으로 식사장려 포스터 30,000매, 식사장려 전단 400,000매, 일반잠실 설계도 2,000매, 기업양잠용 잠실설계도 1,000매를 제작하여 양잠 해당 지역에 배포하여 홍보하였다.

**바. 주요 진행사항**

- 4월 14일 : 잠사가격 심의회 참석
- 6월 21일 : 일본견업협회 이사 縫島次男씨를 초청 “잠사업세미나” 개최
- 7월 5일 : 각 업종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잠업관계 법령 대국회 대책협의)
- 7월 30~31일 : 잠업개량 연찬회 개최
- 8월 11일 : 잠업관계법령 개정안 자료 심의회 참석
- 9월 7일 : 견방업 경영 합리화 대책 협의회 참석
- 10월 14일 : 국제 농림수산물 교류 협의회 참석
- 12월 3일 : 국제농업식량기구(FAO) 회의 참석

**7. 해외무대로 활동영역 확대 (1966)**

**가.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및 식사장려 홍보활동**

- (1) 잠사기구 확장에 대한 건의
- (2) 생사물품세 계속 면제 건의
- (3) 1959년도 안 구입자금 미상환액 차손처분 건의
- (4) 상묘대 5할 국고보조 건의
- (5) 잠종 및 상묘 검사기관 변경 철회에 대한 건의



박정희 대통령 동방제사 방문(1966.4.7)

등을 비롯하여 식사장려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식사장려 포스터 25,000매와 식사 장려 전단 300,000매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20일 : FAO 이사회 참석
- 3월 16일 : 제31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제8대 이사개선  
제4대 이사장 이원영/ 회장 탁임조, 부회장 변진갑, 고문 권헌길
- 5월 1일 : 대한잠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5~1로 이전
- 5월 16일 : 제10차 국제견업대회 참석, 국가대표 이원영
- 5월 24일 : 잠견 밀매매 방지 대책 협의회 참석
- 9월 20일 : 전국이동 농협업종 경진 대회 참석
- 11월 24일 : 업종 단체장 회의 개최

**8. 잠업증산을 위한 활동 (1967)**

**가.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및 인쇄 매체 홍보활동**

- (1) 농촌진흥원에 잠업계 신설 건의
- (2) 기업양잠농 제사공장의 원료 수급에 관한 건의
- (3) 생사수출 대책 건의
- (4) 생사에 대한 물품세 면제 건의

등이 건의되었으며 이외에도 잠사관계 화보 서적으로 한국의 잠사업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1967년 또한 식사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식사장려 포스터 27,000매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나. 주요 진행사항**

- 2월 25일 : 잠업 대(大)증산 운동에 관한 좌담회 개최
- 3월 31일 : 잠사금고 설치협의회 개최
- 4월 25일 : 잠사지 발행 100호 기념 유공자 표창
- 4월 26일 : 일본 잠사판매 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잠업 시찰단 17명 내한
- 9월 2일 : 터어키 잠업인 내한
- 11월 9일 : 국제견업협회 Oporto 이사회 국가대표 이원영, 정부대표 김영진, 제3부 회 대표 윤우동, 한공철 참석



## 9. 박람회 출품 및 홍보활동 (1968)

### 가. 잠사류 박람회 전시 출품과 홍보활동

1968년 9월에 개최된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에 참가 상묘, 잠종, 양잠, 제사, 견방, 견직물 등을 출품 전시하는 동시에 한국 잠업의 발전과 잠사류의 수출 잠재력을 널리 홍보하였다. 또한 식상상전 비배관리 장려 포스터 100,000부와 식상장려 전단 300,000매를 인쇄하여 전국 양잠지역에 배포하여 잠업증산 의식을 고취 시켰다.

### 나.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 (가) 잠사류 가격심외에 대한 건의
- (나) 잠종 및 상묘 검사기관 변경 철회에 대한 건의
- (다) 1959년 상묘 구입자금 미상환 차손처분 건의



1968 박람회 전시관

### 다. 주요 진행사항

- 3월 27일 : 제33회 정기총회개최, 제5대 이사장 신영목, 회장 탁임조 선임
- 6월 5일 : 무역 박람회 잠사관계 출품 추진 위원회 개최
- 9월 9일 : 무역박람회 개관식 참석
- 9월 12일 : I.S.A. 이사회 및 기술회의 파견
- 9월 16일 : 일본잠업시찰단 내한(일본견업협회)
- 11월 12일 : 일본잠업기술교류 및 생사시장 조사를 위해 직원파견

## 10. 잠업단체 통합체제 (1969)

### 가. 잠업관련 단체의 통합

1946년 7월 12일 대한잡사회가 창립된 이후 1966년에 잠업진흥조합 법안이 대두되면서 부터 잠사류 알선사업과 지도사업의 환원을 전제로 잠업단체의 통합 또는 정비에 대하여 국회와 업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진행된 농림부의 잠업단체 정비에 대한 시안과 대한잡사회의 잠업단체 통합 시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7대 국회에서는 1967년에 “잠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기구를 강화하고 잠업관계 단체를 정비 단일화하여 잠업농가의 지도와 선전계몽을 강화 조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단체통합추진위원회 개최(1969. 1. 20)

이에 대하여 농림부에서는 잠업단체의 정비안을 작성하였으나 시안으로 그쳤다. 그러나 1969년에는 농림부의 지시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합의 기본방침으로 잠사업의 급속한 발전과 제 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자기업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자적

으로 구성되어있는 양잠협회, 상묘협회, 잠종협회 및 제사협회의 기구를 조정하고 통괄할 수 있도록 대한잡사회를 해체하여 대한잠사중앙회(가칭)로 발전시키고, 각 도의 각 협회 지회를 해체하여 대한잠사중앙회 휘하에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의 절약과 잠사부문 각 업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케 한다는 것이다. 잠업단체의 통합기운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농림부에서 구체적인 시안까지 마련되자, 대한잡사회로서도 조직 내에 각 단체를 흡수 통합하는 시안을 작성하였다.

단체통합의 필요성으로 '현존 단체는 그 성격으로 보아 정부에서 잠업정책 수행을 위한 강력한 지시와 철저한 감독을 하기에는 업종별로 다수가 난립 되어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태세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며, 대내외적으로 잠사업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야 할 업무를 각 단체에서 분산 집행하고 있으므로 주체성이 결여와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계획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각종 단체의 분산 난립으로 막대한 경비가 가중 지출되므로 결국 생산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관성을 지니며 한층 더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단체를 현재의 대한잡사회 기구 내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실행과정에서 농림부와 대한잡사회는 여러 가지 통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69년 1월 17일 농림부 차관실에서 각 단체장을 초치하여 잠업단체 통합에 관한 농림부의 방침을 설명하는 동시에 공문으로 지시를 내림으로써 단체통합은 급속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1월 20일자(잠업 1123.1-190)로 시달된 농림부 장관의 지시 공문에 의하면 농림부가 단체 통합 방침의 필요성으로

‘잠업증산계획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한 지원체제의 확립과 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잠업단체의 통합은 우리나라 잠업이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당면과

제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설립되는 단체는 통합단체로서 발족하되 현존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며 통합단체는 기존단체의 모든 업무는 물론 정부가 위임하는 새로운 업무도 담당한다. 기존단체는 회계연도가 종결되는 3월 31일을 기하여 완전히 해산하되 그 이전에 청산인을 두어 해산업무를 완료한다. 통합단체는 사단법인으로 4월 1일을 기하여 발족하도록 하되,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모든 발족업무를 끝낸다.’ 라는 내용이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정관개정안 통과와 1969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03차 이사회, 3월 6일에 열린 제34회 정기총회에서는 단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개정안을 심의 통과됨으로써 단체통합의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이어서 1969년 3월 27일 개최된 제35회 임시총회에서는 이전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에 따라서 임원선거가 진행되어 마침내 잠사업계는 단일체제로 출범하게 되었다.

잠업단체의 통합은 농림부 요청에 의한 타율적인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통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합이 이루어진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대한잠사회로서는 처음으로 3개월간의 공백 기간을 거친 다음 다시 한번 일대 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회비징수의 차질과 유명무실한 기구의 확장, 난관에 봉착하게 된 예산심의 등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되어 통합 1년 만에 재정비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 2월 24일에는 단체통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신영목 회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2월 26일에 제10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제36회 정기총회를 속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장 중심제로 바뀌진 이후 1년도 못 되어 다시 이사장 중심제로 환원되었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새 임원을 중심으로 기구개편에 따르는 인원 정리를 끝내는 동시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리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동안 누적되었던 경리 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사항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자산부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부실했던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알찬 전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게 되었다.

#### 나. 잠업진흥을 위한 건의

- (가) 잠종사업 원할 추진에 대한 건의
- (나) 기업 양잠농 예치자금 고정조치에 대한 건의

- (다) 상묘 재해보상책에 대한 건의
- (라) 잉여잠종 보상책에 대한 탄원
- (마) 세계개정에 따른 생사 물품세 시정에 대한 건의
- (바) 춘추건 등급 격차 폐지에 대한 건의 등이 진행되었다.



단체 통합이후 첫회의(1970)

#### 다. 주요 진행사항

- 1월 17일: 하위급 생사격부 방법 개정에 대한 회의참석
- 2월 17일: 일본 잠업시찰단 내한
- 3월 27일: 제35회 임시총회 개최, 제6대 회장 신영목, 부회장 류수룡 선임
- 8월 7일: 제주도 출장소 설치
- 9월 27일: 풍수해로 인한 잠업관계 부채상환 연기 요청
- 10월 2일: ISA 이사회, 국가대표 류수룡, 정부대표 송춘중, 업계대표 윤의두 참석
- 10월 27일: 개량잠구 전시회 개최
- 11월 18일: 세계개정에 따른 생사에 대한 물품세 시정 호소문 제출

### 제4절 적극적 잠업 활성화 활동(1970년대)

#### 1. 해외시장 개척 홍보 활동 (1970)

##### 가. 해외시장개척 및 인쇄물에 의한 홍보 활동

해외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Expo '70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생사류 및 견직물 41점을 출품하여 전시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동경을 비롯한 3대 도시에서 패션쇼를 95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한국 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잠견공판에 의한 누에고치 수매상황을 널리 알



일본동경 엑스포 70 실크패션쇼

리기 위해 누에고치 검사 안내문 3,500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며 배포하였다.

#### 나. 잠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잠사업의 개량 발전을 위하여 잠사업계의 권위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1960~1970년까지 잠업기술에 대한 연구 및 잠업 경영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고 추진하여 잠사업의 개량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잠업기술 서적 및 신문 등을 입수하여 이를 회원과 업계에 배포함으로써 선진국의 양잠기술 보급에 앞장섰다.



대한잠사회 광고 (1970)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26일 : 제36회 정기총회 임원선임, 제6대 이사장 장영진, 회장 이원영
  - 직제를 회장제에서 이사장제로 정관개정에 의해 변경
  - 기구는 4부 1소 11과에서 2부 1실 7과로 축소를 결정
- 5월 8일 : 실크 패션쇼 개최 (조선호텔), 대한잠사회 및 한국생사수출조합 후원
- 5월 15일 : 1개월 간 일본 각지에서 100여회의 실크 패션쇼 개최
- 6월 8일 : 일본 생사 취인소 한국시찰단 34명 내한
- 6월 24일 : 일본양잠농업협동조합 熊本縣 잠업시찰단 내한
- 7월 4일 : 직원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지원자 50명 중 6명 채용
- 9월 11일 : 육군 제사단 자매결연
- 10월 5일 : 일본 丹後직물조합연합회 한국시찰단 24명 내한
- 10월 16일 : 터어키 잠업과장 외 2명 한국잠업 시찰차 내한

## 2. 한·일 민간잠사업 활동 (1971)

### 가. 한·일 민간 잠사회 활동 (6. 21~22)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 배경은 1960년대 잠업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는 대일 생사수출과 관련하여 중국의 저가공세로 일본에 수출시장 진출로 일본 실크 시장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치열한 가격경쟁에 돌입하게 된 상황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일 양국의 잠사업에 대한 정보교환과 잠사업계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한·일 민간잠사회의 개최를 일본에 제의(1970. 9. 5)하게 되었다. 일본은 민간이 주가 되고 정부는 옵서버 형식으로 한·일 민간 잠사회의 개최가 시작되었다.

한·일 민간 잠사회의는 71년 6.21~22 일본 동경에서 1차 회의 이래 양국이 교차로 회의를 개최하였고(한국은 대한잠사회장, 일본은 중앙잠사협회장이 대표단장 및 주관),

72년에는 대한잠사회 주관으로 제2차 한·일 민간잠사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1990년 제12차 서울회의까지 지속 되었다.(1973, 1981, 1983, 1985~88년은 미 개최됨)

### 나. 잠업법 제정에 따른 잠사류 가격 결정방식 변천

우리나라의 잠견가격 결정방식은 대체로 잠사가격안정기금법(1963. 5 제정, 1971. 1 폐지) 및 잠업법(1971. 1 법제정 및 1997.11 폐지)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방식과 생산자(양잠가) 및 수요자(제사업체) 대표사이 또는 단체 간 협정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협정가격은 해방 후 1945년부터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정 이전인 1962년까지와 농수산부에서 단체 간 협정을 유도한 1988년 추기부터 1999년 잠업법이 폐지에 이르기까지이다. 이 시기를 제외한 기간은 관련 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정부고시 가격제이다.

정부 결정 고시가격의 시작은 1963년 5월에 제정된 '잠사가격안정기금법'부터이고 이는 1971. 1. 23 제정된 '잠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에 의한 가격결정은 농림(수산)부가 국제 생사시세, 생산비 조사결과, 일반물가 등을 기초로 하여 정부안을 작성 잠사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방식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 누에고치수매 가격결정은 97년 잠업법 폐지와 함께 진행된 양잠농가의 누에고치수매가격에 대한 고시는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치 수매가격의 결정은 현실적 의미는 없으나 잠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양잠농가의 희망을 상징적으로나마 유지할 위해 가격만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체 간 협의에 따라 2000년 6월 생산자와 수요자 간 합의한 결과 99년도 고치 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다. 잠업증산을 위한 홍보활동

1971년도에 들어서도 잠업증산을 위한 홍보활동은 계속 이어져 누에고치 검사 안내문 1,000부와 뽕밭 비배관리 및 잠실소독 전단 250,000부를 제작하여 양잠농가에 배포하였다.

**라. 주요 진행사항**

- 2월 2일: 잠업 성공사례 체험 발표회 좌담회 개최
- 2월 17일: 잠사회 25년사에 대한 협의회 개최
- 3월 29일: 잠업증산 표어 발간, 생사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 책자 발행
- 4월 13일: 110차 이사회, 잠업연수원 후보지결정, 농림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 4월 23일: 잠업연수원 용지구매계약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 5월 3일: 잠업단지 종합적 조사연구용역 계약 체결
- 6월 5일: 잠업연수원 건축부지선정
- 6월 21~23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 잠사회의 개최(제1회)
- 6월 29일: 잠업증산세미나 개최
- 8월 30일: 한·일잠사인 간담회개최
- 9월 18일: 잠업기술연수원 건물 착공
- 10월 22일: 미국 뉴욕 한국전직물전시회 개최
- 10월 25~27일: 파리 실크 패션쇼 개최
- 12월 17~18일: 양잠농가 성공사례 발표

**3. 제1회 새마을 양잠시범대회 (1972)**

**가. 대한잠사회 부설 잠업기술연수원 설립 (5. 22)**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새마을정신 고양, 사명감이 투철한 잠업기술 전문가 및 독농가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던 대한잠사회는 1970년 9월 26일 농수산부로부터 잠업기술연수원 설치 및 운영승인을 받아 1972년 5월 22일 대한잠사회 부설 「잠업기술연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청주잠업기술원 개원 (1972)

건립비용은 잠업증산 5개년계획 추진 중인 1963년 12월부터 시작된 잠업장려금 적립과 1967년 11월 말에 시작된 옥사 및 중하견 제사공장 증설에 따르는 적립금 가운데 당시 잠사회에서 관리하던 중하견 장려금가운데 1차 설치비로 10,249,817원과 2차로 15,000,000원이 투입되었다.

당시로서는 잠업기술 종합연수원 설립으로 잠업기술교육 기능이 본격화되어 그 역할

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향후 한국잠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획기적인 사업으로 전망되었다.

**나. 제1회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 (6. 9)**

1960년대 이후 잠업진흥 사업에 대한 국가정책과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를 일으켜보자는 의미를 담아 잠업증흥에 더욱 힘차게 견인하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조선시대 권잠의 행사로 실시하였던 친잠의 행사를 재현(再現)하는 의미에서 당시 농림부에서는 청와대 측과 수차례 논의 끝에 육영수(陸英修)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제1회 새마을시범대회’를 1972년 6월 9일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 2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1회-새마을 양잠시범대회 [가평]

제1회 새마을 양잠시범대회는 해방 이후 친잠의 첫 번째 재현이란 의미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행사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회의장 구성과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영부인 행사의 의미를 넘어선 국가적인 공식행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영부인은 대회개최 기념으로 행가 진행된 마을에 치잠공동사육장을 마련토록 경기지사에게 지시하고 이 마을에 동력경운기 1대, 리어커 20대를 기념으로 전달했다. 행사개최 내용은 전국에 방송되어 커다란 잠업홍보 효과를 거두며 잠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 1972년 대한잠사회 일본지사 개설 (8. 21)**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대한잠사회는 일본지사를 동경에 설치를 결정하고 1972년 8월 21일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잠사업 선진국 일본에서 해외잠사류 정보수집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잠사업계의 국제적 동향 및 정보를 수시로 국내에 전달해 왔다.

1972년 이후 13년간 운영을 지속하여 왔으나 잠사류 생산과 수출의 급속한 상황변화에 따라 일본 동경 대한잠사회 사무소는 1985년 12월 31일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다. (초대소장: 이영렬, 2대 소장: 김은엽)

**라. 주요 진행사항**

- 1월 25일 : 농림부 인도에 잠종 1만6천 상자 수출 허가
- 2월 28일 : 실크패션쇼 개최(조선호텔, 한국생사수출조합, 조선견직 주최)
- 3월 2일 : 농림부 이란에 잠종 1만5천 상자 수출허가
- 4월 22일 : 72년도 미스실크 선발(충남 이인숙)
- 4월 30일 : 잠업기술연수원 준공
- 5월 3일 : 농협취급 잠업관계 업무 양잠협동조합으로 이관
- 5월 8일 : 잠업기술연수원 제1기 입소식 거행
- 5월 22일 : 잠업시험장 향온향습잠실 준공 잠업기술연수원 개원식 거행(초대원장 이덕순)
- 6월 9일 : 제1회 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개최 (경기 가평)
- 6월 23일 : 제2회 한·일 잠사회의 개최
- 8월 21일 : 대한잠사회 일본사무소 개소(초대소장 이영렬부임)
- 9월 5일 : 실크코너 개점 (신세계 백화점 2층)
- 10월 12일 : 전국양잠협동조합장회의 개최(30개 조합)
- 10월 15일 : 농림부 대한잠사회 잠사업요람 발간
- 11월 10일 : 잠업중산간담회 개최(농림부차관주재) · 실크패션쇼 개최(신세계)
- 11월 11일 : 농협중앙회 가을누에고치 11,700톤 수매 (91억6천만원 방출)
- 11월 17일 : 새로운 양잠기술 표준심의회 개최
- 12월 6일 : 생사검사규칙개정령 공포 (농림부령제515호)
- 12월 7일 : 전국양잠연합회 발족

**4. 제2회 새마을 양잠시범대회 (1973)**

**가. 제2회 새마을 양잠시범대회 개최 (충북, 청원. 6. 5)**

제2회 양잠시범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양잠농업인과 대통령부인 육영수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1973년 6월 5일 청주 대한잠사회 잠업기술원에서 1회 행사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제2회 새마을 양잠대회[청주]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11일 : 한국잠종협회 창립총회 개최 (회장 김달홍)
- 1월 13일 : 양잠재해대책회의 개최
- 1월 15일 : 농림부 새마을잠업전진의 메아리 발간 (월간)
- 1월 18일 : 생사류수출 1억\$ 돌파
- 1월 20일 : 한국상모협회 창립총회 개최
- 2월 12일 : 농림부 전국양잠협동조합장회의 개최
- 2월 21일 : 농림부 상모생산비상대책회의 개최(1억주 생산)
- 4월 10~17일 : 코리아실크애호가협회 제1회 실크제품품평회 개최 (16개사 153점 출품)
- 5월 12일 : 잠업법시행규칙개정 (잠종포장 최청을 겸하도록 함)
- 5월 21일 : 제12차 국제견업협회(ISA) 바르셀로나총회 (한국대표 장영진 대한잠사회이사장 참석)
- 6월 5일 : 제2회 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개최 (충북 청원 잠업기술연수원)
- 7월 6일 : 농수산부 양잠부녀회육성지침시달 · 상공부 생사류수출 추천업무 농수산부로 이관
- 7월 31일 : 농수산부 잠업영화(한국의 잠사업 - 30분칼라 35m/m 제작배포)
- 12월 16일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 잠업과로 직제개편(4계)

**5. 새마을 권잠실 현판식 (1974)**

**가. 제3회 새마을 양잠시범대회**

제3회 새마을양잠시범대회는 1974년 5월 28일 농수산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1, 2회 행사보다 참석 인원, 행사내용 면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상천리 뽕나무마을에서 진행되었다.

**나. 『새마을권잠실』기공식(1973. 7. 12)과 현판식 거행(1974. 10. 4)**

1973년 6월 5일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한 제2회 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개최 이후 잠업중산을 위한 잠사인의 단합과 생산의욕을 북돋고 양잠 부녀자를 위한 기숙시설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요리 실습 등으로 활용토록 생활관 건립을 위해 금일봉 5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생활관 준공에 참석을 약속했다. 이에 잠사업계 각출금 등으로 55평의

전통한옥 방식의 건물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으나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유품정리 중에 1974년 8월 13일에 쓴 것으로 확인된 『새마을권잡실』이라는 육영수여사의 마지막 친필 휘호를 발견하여 대한잠사회로 보내왔다. 대한잠사회는 육영수 여사의 마지막 휘호를 액자에 담아 본 건물에 고인의 유품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기공식은 1973년 7월 12일 거행되었으며 육영수 여사의 휘호는 50년생 배나무에 현판에 조각하여 입구상단에 설치하였고 1974년 10월 4일 현판 제막식 행사에는 고인을 대신하여 큰딸인 박근혜양이 참석하였으며 제막식 이후 『새마을권잡실』이라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권잡실 현판식

#### 다.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 단행 (1974. 8. 1)

우리의 생사 생산 물량의 90%를 수입하던 일본은 자국 내의 양잠농가 및 잠사업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1974년 8월 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중국, 북한, 브라질 등으로부터 생사 수입을 규제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잠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1974년 5월부터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 움직임을 정부와 잠사업계는 사전에 파악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생사 수입규제조치가 양국 생사류 교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한국의 강력한 주장을 담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후 대한잠사회를 비롯하여 정부와 전국의 양잠농가와 제사업계는 물론 언론까지 나서서 일본의 생사수입 금지에 대한 반대규탄대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2년만인 1976년 4월 7일 제3차 한·일 섬유 회담에서 생사류 수출입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상호양해 사항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일본생사수입 규제 반대 규탄대회

#### 라. 주요 진행사항

- 1월 12일 : 대한잠사회 잠업증산촉진대회 개최 (300여명 참석)
- 5월 10일 : 전국 잠사학과 학생 학술심포지엄 개최(서울산업대학)  
새마을 잠업전진부락 육성요강 개정
- 5월 16~17일 : 제 3회 한·일 잠사회의 개최
- 5월 28일 : 제3회 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개최(춘천 뽕나무마을)

- 7월 18일 : 농수산부 잠업법 시행규칙 개정(의잠공급 기준)
- 7월 22일 : 새마을 잠업지도자 일본잠업시찰
- 8월 28일 : 일본의 생사수입규제대책 방안 강구
- 10월 4일 : 새마을권잡실 현판식 거행 (박근혜,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 참석)
- 10월 11~30일 : 한국실크애호가협회 뉴욕실크패션쇼 개최
- 10월 12일 : 국제견업협회(ISA)이사회 개최(대한잠사회장 이원영참석)
- 10월 21일 : 한일생사 회담 개최(서울) 일본의 생사수입규제철폐 촉구시위(무역회관)
- 10월 29일 : 잠사업계 단체장회의 개최(잠사업안정대책건의)

#### 6. 잠사류 수출장려금 지급 (1975)

##### 가. 제4회 전국새마을 양잠 시범대회 잠업기술연수원 개최

제4회 전국새마을 양잠 시범대회는 잠업기술연수원에서 농수산부 식산차관보가 참석하는 행사로 격이 축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사내용의 격이 축소되는 이유로는 잠업환경의 변화와 비중이 그만큼 위축되어감에 따라 비롯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나. 기타지역 수출장려금 지급 (1975. 12 ~ 1981. 12)

일본의 '생사수입 금지반대' 규탄대회를 포함하여 새로운 타개책 마련의 일환으로 일본 외 지역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일본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저하된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1975년 12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기타지역(일본 외 지역)에 수출되는 생사류에 대하여 수출장려금 56억 7천 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수출장려금은 잠업진흥기금과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자체적립금에서 지급하였는데 장려금 지급 총액 56억 7천 9백만원 가운데 42억 6천 8백만원은 잠업진흥기금에서 나머지 14억 1천 1백만원은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자체적립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장려금 지급액은 그동안 잠업진흥기금의 규모로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에 생사류 수출타개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타지역 수출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37,958표의 생사류가 기타지역으로 수출되어 생사류 수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에까지 진출하여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실크를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견직물은 총 수출량의 64%를

차지하여 수출장려금 지급이 견직물 수출증대는 물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에 크게 공헌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1월 25일 : 대한잠사회 실크센터 설치협의회 개최
- 5월 22일 : 일본의 생사수입규제 연장 절대반대 잠사인 총궐기대회(청주)
- 6월 5일 : 제4회 전국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개최 (청주 잠업기술연수원)
- 7월 3일 : 대한잠사회 제1차 캐리어 잠실관리기사 자격전형 실시
- 9월 4~5일 : 제4회 한·일잠사회의 개최(서울)
- 9월 25~28일 : 국제견업협회 이사회 개최  
(한국대표 대한잠사회장 이원영참석)
- 10월 11일 : 잠사지 통권 200호 발행기념
- 10월 13일 : 농수산부 잠업법시행령 개정 공포
- 10월 15일 : 잠사업 난국타개 궐기대회 개최
- 11월 10일 : 농수산부 생사검사규칙 및 잠견검정규칙 개정 공포
- 11월 16일 : 생사류 검사규칙 개정 공포(농수산부령 제611호 : 견연사검사)



잠사난국 타개 궐기대회 (1975)

#### 7. 국산 실크이용 세미나 개최 (1976)

##### 가. 대한잠사회의 국산실크소비 확산노력 (12. 14)

대한잠사회 주관으로 잠업단체 및 제사업체, 견직업체, 실크협회, 한국부인회, 김문협 교수 등으로 “국산실크 선전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4일 한국 실크전시회와 국산실크 이용세미나 개최 등 실크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잠사회와 한국직물원사수출조합 등이 주관하여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실크 패션쇼를 개최하고 미스실크를 선발하는 등 실크에 대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실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국내 우수 실크업체들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직판 및 전시장을 개설하고 신세계, 미도파, 롯데 등 유명백화점에도 10여개 실크 직판코너를 설치하여 국내 판매촉진에 적극 참여하며 내수소비 증대와 견 제품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크소비 확산을 위한 패션쇼 행사

#### 나. 주요 진행사항

- 2월 8~9일 : 한·일 섬유회의 개최(서울 제1차)
- 2월 27일 :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 결사반대 전국잠사인 총궐기대회 개최
- 3월 4일 : 제2차 한·일 섬유 회담개최(동경)
- 4월 1일 : 잠종 이란에 75,000상자 수출
- 4월 7일 : 제3차 한·일 섬유(생사, 견직물) 실무 회담개최(서울)
- 4월 12일 : 한·일 견직물 회담 타결
- 6월 4일 : 제5회 전국새마을 양잠시범대회 개최(잠업기술연수원 380명 참석)
- 7월 12일 : 대한잠사회 창립30주년 기념식 거행(최각규농수산부장관 참석)
- 9월 21일 : 제13회 국제견업협회(ISA) 총회참석  
(이태리코모 대한잠사회장 이원영, 농수산부 권영하 잠업과장 참석)
- 10월 12일 : 잠업기술요원 교육실시(952명)
- 10월 19일 : 한국생사의 KOSILK 패션쇼 개최(조선호텔)
- 11월 9일 : 내각회의 잠업법 개정안 의결
- 11월 10일 : 농수산부 잠견검정 규칙 및 생사검사규칙 개정
- 11월 16일 : 제5회 한·일잠사회의 개최(동경)
- 12월 4일 : 대한잠사회 실크선전추진대책회의 개최
- 12월 17일 : 잠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21일 : 경북 영천군 고치 1,000톤 돌파 기념대회
- 12월 31일 : 잠업법 개정 공포 · 잠사원예국 탄생

#### 8. 한·일 생사회담 진행 (1977)

##### 가. 잠견생산 조정과 그 배경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잠업증산정책으로 1970년부터 1976년까지 7년간에 누에고치 생산량은 2배로 증가 되었다. 반면에 197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잠사산업에는 어려움이 가중되며 오히려 증산된 누에고치는 국내잠사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1977년 이러한 심각한 잠사산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는 물론 잠사업계와 학계 그리고 잠사단체들 상호 간에 수차례에 걸쳐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977년의 잠업시책은 증산을 억제하고 1976년 수준으로 유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 했으나, 결론적으로 누에고치 생산량을 감산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1977년의 잠업시책 기본방향으로 누에고치 생산기반을 감축하여 잠사류 생산의 증산을 억제하고 단위당 생산성 제고 및 품질개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생사류 시장 다변화 및 생사 가공을 확대하는 방향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감산정책에 심각성을 느낀 잠업관계 단체장들은 1977년 11월 30일 대한잠사회 제49차 정기총회에서 잠사업 안정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급기야는 정부의 감산정책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농림수산부 장관은 회신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재원 마련에 힘쓸 것과 견직물의 수출시장 개척 및 내수개발을 위하여 추후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11일 : 대한잠사회 실크선전추진위원회의 개최(2월 9일)
- 1월 31일~2월 2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동경)
- 2월 10일 : 한국부인회 실크 내수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250여명 참석)
- 2월 15일 : 대한잠사회 실크 내수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월 28일 : 이란에 잠종 50,000상자수출, 실크패션쇼 개최(조선히otel, 500명 참관)
- 3월 10~11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서울)
- 4월 7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동경)
- 4월 21일 : 잠업기술연수원 개축 준공식 거행
- 5월 2일 : 잠업법시행령개정 공포
- 5월 18일 : 잠견 181,500kg 일본에 처음 수출
- 5월 20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 6월 8일 : 실크세미나 개최(대구)
- 7월 3일 : 국제견업협회(I.S.A.)회장 와이즈브로씨 대한잠사회장 방문
- 8월 16일 : 실크선전추진위원회 실크전시회 개최(미도파)
- 8월 22일 : 잠업법 개정
- 9월 1일 : 대한잠사회 국산실크 애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산실크애용 세미나 (1977)

- 9월 8일 : 한·일 잠사회의 개최(경주)
- 9월 24일 : 77년 미스실크 선발대회(金仙福양 19세)
- 9월 28일 : 국제견업협회(ISA) 기술부회 개최(영국 런던, 대한잠사회장 최연홍 참석)
- 10월 5일 : 잠사단체 관계부처에 잠사업 구제에 관한 건의서 제출  
대한잠사회 잠사업안정대책 조찬회
- 10월 12일 : 부산 실크패션쇼 개최
- 10월 15일 : 잠견 630톤 홍콩에 수출
- 10월 26일 : 대한잠사회 실크세미나 개최(한국부인회 부산지부주관)
- 12월 21일 : 제1회 실크니트 패션쇼 개최

**9. 실크 홍보 전시장 개설 (1978)**

**가. 잠업진흥대회 및 대농민교육과 홍보사업**

잠업진흥 시책을 대한잠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인식시켜 잠업의 붐을 일으키고 양잠기술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일이 우선시되었다. 그에 따라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 도별로 잠업진흥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시책을 이해시키고 잠업에 대한 영농의욕을 북돋아 가며, 양잠기술 교육도 병행하며 실시했다. 이 대회에서는 1978년 잠업지침 시달과 함께 잠견생산 목표량 달성을 다짐하면서 전국적으로 각 도 단위 또는 주산단지 시·군 단위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잠업증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78년 2월 22일 청원군청에서 양잠 독농가를 비롯한 잠업관계 인사 800여명이 참석, 잠업진흥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월 22일 경기도에서, 2월 24일에는 경상북도에서, 3월 11일에는 강원도 춘성군에서 시책 시달과 아울러 양잠기술 교육 교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춘성군의 경우는 당시 국회의원이 잠업증산을 격려하기도 하였고, 3월 12일에는 김제군에서 1,200여명이 참석, 잠업증산대회와 기술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당시 무임소장관이 참석하여 잠업증산을 격려하였다. 이렇게 재개된 잠업증산 대회 및 기술교육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행정 및 지도기관과 학계, 업계가 힘과 노력을 합쳐 실시하였으며, 시·도 단위의 교관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자가 선도교관으로 활동하며 각시·군 읍·면 단위로 잠업증산과 뽕밭 조성, 비배 관리 및 생력 양잠기술 등에 대하여 농가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18일 : 한·일무역회담 개최 (동경, 정용복 국장, 안신환 과장 참석)
- 2월 14일 : 대한잠사회 실크선전 추진위원회 개최
- 3월 15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 3월 16일 : 대한잠사회 실크전시 판매장 개장 (신세계백화점)
- 4월 24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 6월 3일 : 애누에 인공사료육 결과 보고회의 개최  
(경기잠업연구소)
- 7월 22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동경)
- 9월 5일 : 대한잠사회 실크세미나 개최 (300명)
- 9월 24일 : 대한잠사회 실크전시판매장 설치 (워커힐)
- 10월 3일 :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에서 실크제품 전시회 개최
- 10월 11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동경)
- 10월 17일 : 국제견업협회(ISA) 이사회 개최(인도, 한국대표 참석)
- 10월 24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서울)



실크전시판매장 개설

**10. 생력 양잠기술 보급 (1979)**

**가. ‘전환기 잠사업의 과제와 그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79. 4. 18일에는 한국잠사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잠사회 등 잠업단체의 후원으로 ‘전환기 잠사업의 과제와 그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나. 제6회 전국 새마을양잠시범대회 개최 (6. 8)**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국새마을 양잠시범대회를 1979년에 다시 부활하여 6월 8일 충북 청원군 대한잠사회 잠업기술연수원에서 “제6회 전국 새마을양잠시범대회”를 개최하여 잠업진흥을 새롭게 다짐하고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 시켰다.



제6회 새마을 양잠대회[청주]

**다. 생력양잠의 필요성에 따른 양잠기술보급**

국민 경제의 발달과 공업화의 진전으로 농촌노동력 부족 현상과 농촌노임의 상승은 날로 심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덜 드는 ‘손쉬운 양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주곡달성을 위하여 다수확 벼 품종인 통일계 품종이 확대 보급으로 모심는 시기가 앞당겨 짐에 따라 논외 파종과 봄누에의 소잠 시기와 겹치면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누에농사가 한층 더 힘들어졌다. 따라서 종전의 30일 양잠에서 15일 양잠을 목표로 하여 실제로 농가에서는 15일 동안 누에를 사육하면 누에고치를 수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력 양잠기술을 확대 보급에 주력하였다. 즉, 공동 최청, 의잠(蟻蠶) 배부, 애누에 공동사육 및 인공사료에 의한 애누에 사육기술 등을 보급하여 일반 농가에서는 누에를 3령 또는 4령부터 사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뽕 수확과 뽕 주기에 노동력이 적게 드는 가지 뽕 치기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큰누에(壯蠶)도 종전의 잠박 육에서 가지 뽕 치기를 하여 노동력을 적게 들이도록 하였다.

1979년 이후 생력 양잠기술 보급시책을 보면 잠종전량 공동최청, 의잠배부 및 가지 뽕 치기는 각각 60% 이상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잠업진흥기금에서 애누에 공동사육비를 1982년부터 상자 당 1,000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마을 단위 공동사육 잠실을 보급하고 가지 뽕 자르는 기계 등을 보급하였다. 그리고 회전설 등 개량 잠구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 지원하여 보급함으로써 누에올리기를 쉽게 하는 한편, 누에고치의 품질향상도 기하도록 하였다.

**라. 주요 진행사항**

- 2월 22일 : 대한잠사회 잠업진흥대책회의 개최
- 3월 12일 : 대한잠사회장 김원태(金元泰)부임
- 4월 7일 : 파리 여성기성복 박람회에 한국 실크출품.
- 4월 10일 : 대한잠사회 협찬 국제부인회 자선패션쇼
- 4월 25일 : 전라북도 제1회 누에의 날 행사거행
- 5월 7일 : 한·일 생사료무역회담 개최
- 6월 8일 : 제6회 전국새마을 양잠시범대회 개최  
(잠업기술연수원 농수산부 조익래 농특국장 임석 300명 참석)
- 7월 19일 : 대한잠사회 잠업진흥대책회의 개최

- 9월 7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동경)
- 9월 24일 : 국제견업협회 제14회 총회개최(스위스, 한국대표 김원태 회장)
- 9월 27일 : 농수산부 잠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10월 16일 : 대한잡사회 잠업진흥 대책위원회 개최
- 11월 23일 : 제8회 한·일 잠사회의 개최(서울)

## 제5절 잠업 부흥을 위한 활동(1980년대)

### 1. 분야별 진흥사업 활동 (1980)

#### 가. 대한잡사회 활동과 사업지원

대한잡사회는 잠업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잠사업 진흥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 (1) 경제적인 지원사업
- (2) 문화적인 지원사업
- (3) 대 농민홍보 및 교육사업

그리고 잠사관계 각 업종 간의 업무협조와 잠사류 가격 결정의 조정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사업을 주도해 왔다. 대한잡사회의 지원사업의 지원 종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잠업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잠업증산 지원사업으로 누에고치 증산을 위한 비배관리, 잠병방제, 뽕나무 심기 등의 현지도 및 잠병방제를 위한 약제비용 지원, 교육비지원, 양잠시범부락육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160개 시범부락에 생력양잠 기자재, 향온향습 치잠공동사육시설의 보수, 뽕밭 조성지원사업을 잠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 나. 1980년 전국 양잠시범부락 육성대회 개최 (8. 31)

농수산부 관계관, 각도 관계관, 잠사단체 임직원, 양잠농가대표 등 8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양잠시범부락 육성 대회에서 양잠성공사례 발표, 부락평가보고, 간담회 등이



전국양잠시범부락 육성대회[부안]

진행되면서 1980년 8월 31일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 유유마을에서 개최되었다.

#### 다. 제5회 치잠공동사육장 관리기사 자격전형 (10. 5)

치잠공동사육장 운영에 따른 관리기사 전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농림수산부의 지침으로 치잠공동사육장 관리요령 '농수산부 잠업 1126.1-898(79.9.18)' 제12조(條)에 의거 대한잡사회는 제5회 관리기사 자격전형을 1980년 10월 5일 잠업기술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 자격시험 합격자 10명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와 함께 치잠공동사육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라. 잠사회관 신축건립 이전 (10. 31)

대한잡사회는 영등포 지역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여의도에 부지 832평에 연건평 1,92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 건립하여 1980년 10월 31일 잠사회관을 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대화된 잠사인의 전당이 마련되었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대한잡사회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게 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잠사회관 내에 잠사류 상설전시장을 개설하여 잠업활성화 기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12월 30일에는 신축된 잠사회관 준공식에는 대한잡사회 김원태 회장과 농림수산부 이병기 차관보 및 잠사관계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대한잡사회와 잠사업 발전을 축하해 주었다.

#### 마. 생산기반조성의 선진화로 증산유도

누에고치 생산의 감산을 막고 양잠의욕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양잠 생산성의 제고와 정부의 투자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뽕밭의 정비보완이 급선무였으므로 1979년부터 계획된 식상사업이 재개되었다.



뽕밭개량 및 잠업증산대회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상 의욕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각 행정 지도기관은 물론 잠사업 단체 등을 총망라한 식상 추진위원회를 각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추기식상 교육과 연중 증산대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에게 식상 붐을 일으키는 동시에 기술지도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는 별도의 식상 독려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식상 지도에 노력하였다. 또한, 1980년부터는 대부분 속성 밀식다수확 뽕밭이 조성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1981

년부터는 대한잠사회 잠업진흥기금에서 속성 밀식다수확 뽕밭 조성의 경우 피복에 필요한 비닐비용을 지원하여 밀식뽕밭 조성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뽕밭 조성 시 다른 작물과 경합에서 유리한 산간지 중심으로 집단화하여 잠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부터는 주산지 군(郡)에서도 뽕밭이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을 각도별로 20개씩 모두 160개를 선정하여 양잠시범 부락으로 지정하여 조상육 잠실, 동력 견면채취기, 상예기(桑刈機) 등을 대한잠사회가 운영하는 잠업진흥기금으로 지원했다.

#### 바. 잠사업 선전 및 홍보사업

##### 1) 견제품 품질보증 실크마크 제작배포

선전 및 홍보사업으로 실크의 홍보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실크마크(ISA)를 실수요자에게 월간섬유, 경제통신 등 신문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견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실크마크 1,000개를 제작·배포하여 실크제품의 내수확대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실크라벨 사용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고, 실크제품의 검사규정에 의거 한국직물시험검사소의 검사에 합격한 견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만 실크마크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 2) 잠업증산 포스터 및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누에고치 값 27% 인상 내역을 게재한 잠업증산 계몽포스터 30,000매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여 홍보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재상 및 육잠 교육용 양잠슬라이드 10세트(각 50컷)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잠업홍보 및 증산활동

##### 3) 잠사경영기초연구 용역 및 잠업관련 학생 장학금지급

잠사류 가격 결정 및 잠사업 경영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잠사류(누에고치, 생사) 생산비 조사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와 용역을 체결하고 이행하였다. 그리고 잠사 관련학과가 속해있는 대학 및 전문대 재학 중인 우수 잠업전공 학생 22명에게 총 1,96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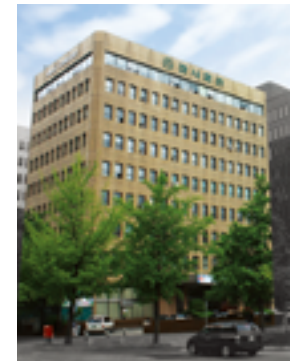
##### 4) 잠업관련 도서발간 및 견직업체 ISA 준회원가입

도서발간 사업으로 1980년도 잠사업 통계 600부와 해외잠사정보(월보) 2,200부, 잠사통

계월보 2,400부를 배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ISA(국제견업협회)에 이사국(理事國)이므로 국가대표기관인 대한잠사회에서는 견직분야의 기술개발과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아견직(주) 등 6개 견직업체를 ISA에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주선하여 이를 성사시켰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잠사업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를 올렸다.

#### 사. 주요 진행사항

- 1월 5일 : 80년도 대한잠사회 잠업진흥시책 방안 수립
- 1월 10일 : 한·일 생사류 무역회담 개최(서울)
- 3월 31일 : 잠사단체장회의 개최
- 4월 25일 : 전라북도 제2회 누에의 날 잠업증산 대회 개최
- 5월 31일 : 국제견업협회(ISA)회장 김원태 회장 예방
- 6월 18일 : 한·일 생사류 무역회담 개최(서울)
- 7월 1일 : 대한잠사회 잠업진흥대책협의회 개최
- 8월 31일 : 전국양잠시범부락육성대회 개최  
(전북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
- 9월 16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동경)
- 10월 31일 : 대한 잠사회(잠사회관) 여의도 이전
- 12월 4일 : 대한잠사회 한국양잠협회 흡수통합
- 12월 30일 : 잠사회관 준공식 거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잠사회관 신축건립 이전

#### 2. 전국 양잠시범대회 및 홍보활동 (1981)

##### 가. 전국 양잠시범대회 개최 (충북 청원, 9. 9)

충청북도 청원군 대한잠사회 잠업기술연수원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 양잠시범대회는 당시 대통령 부인 이순자여사와 각 도지사 부인들이 참석하여 양잠시범대회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양잠시범을 통한 잠업장려와 증산의 뜻을 되살리며 잠업증산에 대하여 격려했다. 이 시범대회는 그 후에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어 농림수산부 장관과 그 부인이 참석



전국양잠 시범대회

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양잠농가 대표와 잠업관계 인사들에게 잠업 장려 및 진흥에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순자여사 참관

#### 나. 양잠 시범부락 조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제8회 전국 양잠시범대회 개최와 함께 농림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주산단지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잠업단체 등에 친서를 보내어 누에고치 생산목표를 달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산단지의 규모를 마을단위 규모로 하여 5ha 이상 되는 지역을 시범부락으로 지정하며 전국 800개 시범부락을 집중육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산기반 조성과 양잠경영 규모 적정화로 합리적인 경영을 유지하고자 호당 적정규모를 30~50a로 책정하고 전국 양잠농가의 호(戶)당 뽕밭을 30a이상 조성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잠사회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TV와 라디오, 신문 등 매체를 통하여 양잠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잠업진흥 시책과 잠업기술을 꾸준히 홍보하였다.

특히, 1981년부터 TV홍보를 시작하여 KBS의 “잘살아보세”, “앞서가는 농어촌” 등의 프로그램과 MBC의 “밝아오는 우리마을” 등의 프로그램에 잠업의 시책, 장기전망, 속성 뽕나무 가꾸기 등 뽕밭조성과 비배관리, 누에고치 생산 등 잠업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1981년에는 6월부터 14회나 방영되었고, 1982년에는 20회, 1983년에는 23회나 방영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작된 잠업영화로는 1980년에 “수지맞는 양잠”비롯하여 1981년에는 양잠시범대회와 양잠 전반, 1982년에는 “속성다수확 뽕밭조성방법”, 1983년에는 “손쉬운 누에 치기” 등 잠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영화를 매년 1편씩 제작하여 각도에 배부하고 각종 잠업진흥 대회나 교육, 행사 등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세미나와 심포지엄 및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사업 등을 실시하여 잠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잠업진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1월 10일 : 뽕밭조성(3천만주)에 3억 1천 6백만원 보조

- 3월 16일 : 잠종 수출실적 71,580상자
- 3월 20일 : 잠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 4월 23일 : 대한잠사회 잠업진흥대책회의 개최
- 5월 18일 : 국제견업협회(ISA) 이사회 개최 (프랑스, 이영렬 상임이사 참석)
- 6월 10일 : 대한잠사회 잠업진흥대책위원회 개최
- 8월 25일 : 대한잠사회 기구 개편 (3부1실1원1소를 2부1원1소로 축소)
- 9월 3일 : 잠업법시행령 개정 공포
- 9월 9일 : 제8회 전국양잠시범대회 개최 (양잠농가 등 500명 참석)  
(잠업기술연수원 영부인 이순자 여사 및 각 도지사 부인 참석)
- 10월 30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 11월 12일 : 양잠영화 “수지맞는 양잠” 시사회 개최
- 11월 30일 : 대한잠사회 실크전시장 개장

### 3. 잠업법 시행규칙 공포와 실크 전시장 개관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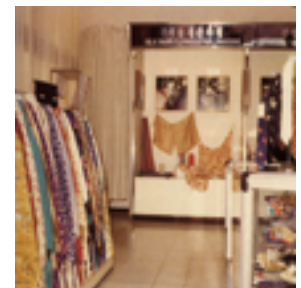
#### 가. 농수산부장관 잠업 중점사업추진 특별지시와 잠업법시행규칙 공포

1982년 1월 21일 고건 농수산부 장관은 1982년도 6대 중점추진 사업을 각 도지사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6대 중점사업 가운데 누에고치 증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출수요 감퇴로 생산이 저조하므로 생산성 향상으로 누에고치 증산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1월 20일에는 잠업법 개정에 따라 잠업관련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잠종, 제사, 견방업 생산시설 임대 시 서식변경과 잠종 생산량 업체별 허가 시설규모를 전년도 생산실적으로 하는 등 잠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 나. 잠업진흥기금 지원 및 실크전시장 개관

대한잠사회는 ‘82잠업주산단지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잠업진흥기금 1억 8천 400만원을 지원하여 치잠공동사육용 잠종대금보조, 피복용 비닐, 분무기, 벌채기 등의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보조하여 양잠농민의 사기진작과 잠업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제 53차 정기총회에서 대한잠사회 제15대 회장으로 정태암 전임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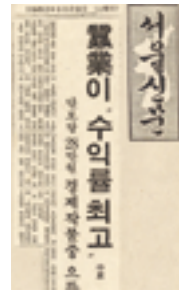
잠업시험장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11월 30일에는 그동안 잠사회의 숙원이었던 잠사회관 1층에 개관한 실크 전시장에서 4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실크제품 전시와 판매업무가 시작되었다.

#### 다. 제9회 전국 양잠시범대회 및 잠업진흥 홍보활동

제9회 전국 양잠시범대회가 박종문 농수산부장관과 전국 양잠농민, 잠업 관계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0일 대한잠사회 잠업기술연수원에서 개최되어 잠업진흥을 위한 다짐을 공고히 했다. 또한 잠사업 홍보활동으로 TV를 통해 잠사업시책 및 뽕나무 가꾸기, 누에 병충해 방지, 섬유의 여왕 비단 등이 방송되었고, 82년산 누에 고치 가격과 여름 뽕밭 관리요령 관련 홍보용 전단지 20만 부를 제작하여 각 도에 배포하였다. 잠업생산기반 강화와 생력양잠기술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잠업기술편람'을 발행하였다.

#### 라. 주요 진행사항

- 1월 14일 : 잠사업 현안문제점 및 대책협의회 개최
- 1월 20일 : 농수산부 잠업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2월 3일 : 새로운 미포자에 관한 연구발표회 개최(임종성박사)
- 2월 11일 : 농수산부 잠사업진흥시책 TV 방영
- 2월 16일 : 농수산부 '82 잠업주산단지 지원사업 실시요령 시달
- 3월 11일 : 대한잠사회 총회개최, 회장 정태암 선임
- 4월 20일 : 대한잠사회 실크 전시장 판매업무 개시
- 4월 22일 : 대한잠사회 인공사료육 연구협의회 개최
- 6월 26일 : 생사류검사규칙 개정령 공포 (검사표본시료 반환)
- 9월 10일 : 제9회 전국 양잠시범대회 개최
- 9월 20일 : 제15차 국제견업협회 총회 개최 (런던, 한국대표 정태암 회장 참석) 양잠영화 속성 밀식다수확뽕밭 조성방법 제작·배포(농수산부 기획, 대한잠사회 제공)
- 10월 27일 : 제9회 한·일 잠사회의 개최(동경)
- 12월 22일 : 대한잠사회 '82 잠사업 용역연구사업보고회 개최



잠업홍보 및 증산활동



제9회 전국양잠 시범대회[청주]

#### 4. 인공사료육 개발 및 교육 (1983)

##### 가. 애누에 인공사료육의 단계적 실용화 및 보급

우리나라의 누에 인공사육은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연구팀이 누에의 인공사료개발에 성공하면서 이루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인공사료를 동방유량에서 3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인수하여 이를 제품으로 농가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인공사료육은 뽕잎육에 비하여 사육노력이 80% 절감되며, 또한 1~3령까지 어린 뽕을 따지 않고 뽕잎이 최대로 자란 큰 누에 때에 따게 되므로 뽕잎육보다 더 많은 누에를 사육할 수 있어 10a당 뽕잎육 2.8상자의 사육규모를 3.2상자로 늘릴 수 있다. 이처럼 애누에 인공사료육은 노동력 및 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별도의 사육시설 및 기자재 소요, 인공사료에 적합한 누에 품종개발, 인공사료의 품질보증 및 원가절감, 사고발생시 보상대책 등 본격적인 농가보급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태였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에서 인공사료육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애누에 인공사료육의 단계적 실용화 및 이에 필요한 사전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잠업기술연수원에서는 시범사육지역의 잠업관계 공무원 및 농가에 대하여 인공사료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였다.



인공사료육 보급 교육

1983년에는 충북, 충남, 전북, 경북 4개도에 각 1개 부락에서, 1984년에는 경남을 추가하여 5개 지역에서 인공사료의 시험사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춘추기 누에사육이 끝나면 인공사료육에 대한 종합평가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가에 보급대책을 강구해 나갔다. 이를 위하여 잠업진흥기금을 통하여 1983년부터 애누에 인공사료육 기술보급 사업비를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인공사료에 의한 사육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 나. 양잠 1톤회 결성 - 양잠성공 사례집 발간

누에고치를 증산하자는 순수 양잠인의 열정으로 500kg이상 누에고치 생산 양잠농가 52명이 1월 22일 대전에 모여 '양잠1톤회'를 결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충남 서산의 운명식씨를 선임하며 출범하였다. 또한 양잠농민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잠사인에게 귀감이 되어



양잠성공 사례집

잡업증흥의 의미를 담은 '양잠성공사례집'을 12월 30일에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25일 : 한국잠종협회 이란에 잠종 7만 상자 수출
- 3월 15일 : 대한잡사회 밀식뽕밭피복용 비닐 공급(50%지원)
- 4월 15일 : 대한잡사회 잠사관계단체 대표회의 개최(생사류 수입자유화 규제건의)
- 5월 6일 : 대한잡사회 표준규격잠실설계 협의회 개최
- 5월 7일 : 한국잠종협회 인도에 잠종 18,000상자 수출(168천\$)
- 5월 23~24일 : 한·일 무역회담 개최(동경)
- 7월 5~19일 : 대한잡사회 양잠농가 일본연수
- 7월 5~15일 : 대한잡사회 각도별 잠업증산 연찬회 개최(3,000여명교육)
- 7월 9일 : 잠업법시행령 개정 공포
- 7월 28일 : 대한잡사회 잠사업 현안문제 대책회의 개최
- 8월 30일 : 대한잡사회 가을고치 6,500톤 수매계획
- 12월 1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서울)
- 12월 22일 : 양잠 1톤회 발족
- 12월 30일 : 대한잡사회 '양잠성공사례집' 발간



양잠1톤회 창립

#### 5. 잡업홍보 영화제작 (1984)

##### 가. 잠사지 지령 300호 기념 및 생사검사 40년사 발행

잠사업 전문잡지로 발행을 시작한 '잠사보'는 1954년 8월 창간 이후 1964년 제호를 '잠사'로 변경하고 1967년 5월호 지령 100호, 1975년 10월호 지령 200호, 1984년 2월호로서 지령 300호를 맞이하여 잠사지의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잠사지 발행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잠사지 300호 발행 편집회의

논의와 함께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1942년 우리나라 생사검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42년 만에 생사검사의 목적과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 '생사검사 40년사'를 국립생사검사소에서 책자로 발행하였다.

##### 나. 양잠기술 홍보영화 제작 및 '84년 풍년제 행사 '누에의 집' 운영

누에고치 품질향상을 주제로 한 양잠기술영화 제작을 위한 협회가 3월 27일에 진행되었고 이후 '좋은고치 고운비단'이라는 잠사업 홍보영화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또한 3월 29일에는 누에고치 증산을 통하여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용 전단 10만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84년 풍년제 행사 [누에의 집]

그동안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를 규탄하는 가운데에서도 대한잡사회는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잠업영농인 후계자에게 일본 양잠현장으로 잠업연수 활동을 지원하며 선진양잠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84풍년제(kbs주최)에서는 대한잡사회의 독립전시관인 누에의 집을 개설하고 '누에에서 비단까지'라는 주제로 살아있는 누에에서부터 실크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홍보하고 판매하였다. 행사장에는 박종문 농수산부 장관까지 참관하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 다. 제10회 전국 잠업증산대회 개최(9.14)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생사와 비단이 우리나라 고유상품으로서 유망한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 1988년까지 총 7백 40억 원을 지원하여 뽕밭 4만5천ha에 누에고치 2만5천t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이 14일 충북 청주 잠종장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잠업 증산대회

제10회 전국 잠업증산대회에서 밝혔다. 1982년 당시 뽕밭 면적은 2만 3천 7백ha이며 누에고치 생산량은 1만 2천 5백 톤으로 집계되어있다. [출처: 중앙일보 1984.09.14. 기사 참조]

##### 라. 주요 진행사항

- 2월 18일 : "잠사"지 발간 300호 기념행사 개최
- 3월 6일 : 한국상묘협회 상묘생산기술교육 개최(잠업기술연수원 180명)
- 3월 13일 : 대한잡사회 안동군 예안면 자매결연
- 3월 16일 : 한국잠종협회 이란에 잠종 6만 상자 수출
- 3월 27일 : 대한잡사회 주관 양잠기술영화제작 협의회 개최

- 5월 8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동경)
- 5월 18일 : 국제견업협회(ISA)이사회 개최(정태암 회장 및 김한수 잠업과장 참석)
- 6월 21일 : 농수산부 생사검사규격 개정 공포
- 7월 17~20일 : 대한잠사회 잠업영농 후계자 일본연수
- 9월 14일 : 대한잠사회 제10회 전국잠업증산대회 개최(충북 잠종장)
- 9월 27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서울)
- 12월 20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동경)

## 6. 88 서울올림픽기 제작 (1985)

### 가. 우리 손으로 제작한 '88서울 올림픽기 IOC에 전달 (7. 11)

국제 올림픽 제1호기는 1920년 벨기에의 안트워프(Antwerp)에서 만들어져 '엔트워프기'로 알려져 있다. 1984년 LA올림픽을 마지막으로 IOC본부인 스위스 로잔박물관에 보존하기로 하고 올림픽 제2호기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서울올림픽기' 제작을 의뢰했다. 이에 우리나라 실크업계연구진은 올림픽 1호기를 분석한 결과 가로 218cm× 세로 155cm 크기의 실크와 면으로 제작되어 우리업계에서는 100% 국내산 실크로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고 직기를 새롭게 정비(silk habutae)하고 넓은 폭의 올림픽 깃발을 오로지 실크로만 직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오륜기의 제작은 직조, 염색 및 봉제기술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세계에 우리의 실크가공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견직(주)에서 제2호 올림픽 깃발이 제작되었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하여 1985년 7월 11일 IOC에 전해졌다.



88올림픽기 전달행사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하계올림픽 대회장에서 오늘날까지도 서울올림픽기는 개막식 메인행사인 입장식에서 하이라이트인 올림픽기 입장과 함께 계양되어 올림픽개최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세계 실크 시장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크기술을 확실하게 알리고 있다.

### 나. 잠업중흥을 위한 언론 및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

2월 26일에는 KBS를 통하여 농어촌프로에 '85년도 잠업증산시책과 장기전망에 대한



잠상산물 홍보 및 전시회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mbc 아침뉴스로 '잠사업의 현황과 양잠이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9월 15일에는 KBS 뉴스파노라마를 통하여 잠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정태암 회장과 대담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개통과

함께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잠원역에는 누에와 명주짜기 벽화가 조성되었다.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는 신세계백화점 리빙관에서 대한잠사회 후원으로 양잠의 생산과정과 실크 의상 및 명주 짜기와 함께 실크로드의 경치와 풍광이 펼쳐져 있는 장면이 포착된 실크로드 사진전시회가 개최되었다.

### 다. 잠업기술연수원 교육생 남매 34년 만에 재회의 기쁨

9월 11일 잠업기술연수원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양잠농가 위탁교육 진행하던 중 34년 만에 헤어졌던 혈육을 만나게 된 가족상봉의 기쁨이 이루어졌다. 경북 안동군 녹전면 매정리의 김팔봉(남, 당시 49세)씨와 안동군 북후면 월전리 김희순(여, 당시 48세)씨 인데 6.25동란 당시 13세이었으며 가족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생활하다가 잠업기술연수원의 양잠교육이 인연이 되어 상봉하게 된 것이다.

[1986잠사지 2월호 47p참고]

### 라. 주요 진행사항

- 4월 3일 : 한국잠종협회 이란에 잠종 51,000상자 수출
- 4월 11일 : 잠사단체장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초청간담회 개최(서울프라자)
- 6월 7일 : 대한잠사회 대규모 실크판매 전시장 설치 추진위원회 개최
- 7월 11일 : IOC사마란치 위원장에 88올림픽기 전달 (100% 한국 실크, 동아견직제작)
- 7월 14~24일 : 양잠독농가 일본연수 및 시찰
- 9월 23일 : 제16차 국제견업협회(ISA)총회개최 (정태암 회장 외 4명 참석)
- 10월 12일 : 실크로드 사진전 협찬 (신세계)
- 11월 6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 (서울)

## 7. 잠업기술연수원 개원 15주년 (1986)

### 가. 잠사관계법령집 발행 및 잠종수출

대한잠사회와 농수산부는 잠사업에 종사하는 잠업 관계기관을 비롯한 관계단체, 업체에 잠업법을 위시해 대통령령, 농수산부령, 지침 및 운영 등을 총망라한 잠사관계 법령집을 300부 발행하여 중앙 및 각 도에 배포하였다. 또한 한국잠종협회는 2월 18일 잠종 65,000상자를 이란으로 수출하였고, 8월 16일에는 코스타리카에 200상자를 1,600불에 수출하였으며 네팔에는 잠종 200상자를 지원하였다.

### 나. 농림수산부 장관의 잠사회 창립 40주년 격려사(1946년 창립기준)

그리고 7월 12일 대한잠사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황인성 농수산부 장관은 창립격려사로 '정부는 2000년대의 잠사업전망에 대한 기본구상아래 잠사업진흥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뽕밭면적을 전체 20천ha에서 32천ha로 늘려 누에고치를 19천M/T까지 증산할 계획입니다.'의 축하와 격려 내용이 잠사지를 통해 게재되었다.

### 다. '86 실크패션쇼 개최 및 나도향 원작 '뽕' 영화 흥행

9월 25일 대한잠사회가 주최하고 농수산부가 후원하는 '86 코리아 실크패션쇼를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서 국내실크 제조업체의 협찬으로 우리 실크의 우수성과 국내수요확대 및 수출증대 기여를 위해 개최되었다. 한편 당시 문화계에서는 임도 따고 뽕도 따는 나도향의 단편소설 '뽕'이 이두용 감독과 배우 이미숙 주연으로 영화로 상영되어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하였다. 이 영화의 인기를 반영하듯 뽕2와 뽕3이 속편으로 제작되어 흥행으로 이어졌다.



코리아 실크패션쇼 (1986)

### 라. 잠업기술연수원 개원 15주년 성과 및 치잠공동사육장 관리기사 전형

잠업기술연수원은 개원15주년을 맞이하여 1984까지 총 9,431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으며 1일 교육생(견학자)만도 10,653명에 이르렀다. 1986년도에는 장기교육으로(20일) 농업고등학교 학생반을 운영하고 단기교육으로 치잠사육관리 기사반(6일) 그리고 특별교육으로 양잠농가반 (2박3일)을 계획하여 총 2,560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였다.

[화보기록-1986년 10월호 잠사지 35P]

대한잠사회에서는 치잠공동사육장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잠작 안정으로 고치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8회 치잠공동사육장 관리기사 자격전형을 실시하였다.

응시자격은 농촌진흥청, 민간잠업연구소 또는 대한잠사회 잠업기술연수원에서 치잠공동사육과 시설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2잠기 이상 치잠공동사육 및 시설운영을 경험한 자로서 당해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잠사업 관계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 전문대학, 농업고등학교에서 잠사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전형결과 종합성적 60점 이상, 각 과목별 성적 40점(실기 과목은 60점)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치잠공동사육 관리사 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

### 마. 주요 진행사항

- 1월 21일 : 한일생사 회담개최 (동경)
- 2월 18일 : 한국잠종협회 이란에 잠종 65,000상자 수출
- 6월 24~30일 : 양잠농가 일본연수 및 시찰 (5명)
- 7월 5일 : 치잠공동사육장 관리기사 전형 실시 (제8회)
- 9월 25일 : 86코리아 실크패션쇼 개최(하얏트호텔, 대한잠사회 주최, 중화실크 주관)
- 11월 06일 : 한·일 생사회담 개최(서울)
- 11월 13일 : 미스실크 선발대회 개최(KBS, 진주시, 진주직물공업협동조합)

## 8. 실크 종합전시 판매장 개장 (1987)

### 가. 농림수산부 장관의 대한잠사회 방문과 잠종 수출

1월 16일 황인성 농수산부 장관은 대한잠사회를 방문하여 잠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잠업진흥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난 이후 잠사회관 1층에 마련된 실크전시 판매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실크제품을 둘러보았다. 또한 한국잠종협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2월 18일 잠종 4만 상자를 4억3천만원에 이란으로 수출하였다.

### 나. 88서울 올림픽 맞아 강남에 실크종합전시 판매장 개장(11. 2)

대한잠사회는 88년 서울올림픽개최를 맞이하여 실크의 적극적인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





강남 실크 종합 판매장 개실

기 위해 2월 잠사회관 1층에서 운영하던 실크전시 판매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실크제품의 내수확대와 전 세계에 우리 실크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전문매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실크 종합전시 판매장으로서 규모를 확장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전문매장을 마련을 계획하고 6월 16일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회합을 진행하였다. 전시 판매장소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오랜 협의 끝에 11월 2일 소비자가 대량 왕래하며 교통과 패션의 요지인 강남지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로변에 대한잠사회 직영매장 '실크프라자'라는 간판으로 실크 종합전시 전문판매장 개장과 동시에 운영에 돌입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5월 7일 : 국제견업협회(ISA) 이사회 한국대표 참석
- 6월 16일 : 대한잠사회 실크전시판매장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 7월 10일 : 자동견면채취기 성능 및 시운전 실시(장소 : 잠업기술연수원)
- 11월 2일 : 대한잠사회 실크프라자 개장(서울 서초구 반포동 737-18)

### 9. 뽕나무심기 대회 (1988)

#### 가. 식상 의욕 북돋기 위한 뽕나무심기 연시대회 개최

4월 13일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 괴곡동에서 식상의욕을 북돋기 위해 윤근환 장관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지사, 대한잠사회장 및 관계자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병록 농가 뽕밭에서 뽕나무 심기 연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내 TV방송에 행사내용과 잠업진흥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앞선 4월 8일에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양영석 양잠농가의 뽕나무 심기 지원으로 잠사단체 임직원과 국립생사검사소 직원등 40여명이 함께 6천여주 뽕나무심기 지원을 하였다.

#### 나. 한국양잠협회 창립 및 양잠 농가, 일본 잠사업 연수 및 시찰

순수 양잠인들의 뜻을 모아 한국양잠협회가 5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문용

호를 선임하였으며 7월 28일 잠사회관 2층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였으며 9월 16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회단체로 등록을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대한잠사회와 농림수산부는 양잠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 총 10명이 일본의 양잠산업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연수하고 잠사업 현황을 둘러보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3월 30일 :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잠사회장 김문헌박사 선임.
- 9월 25~29일 : 제17차 국제견업협회(ISA) 총회 개최 (서독 크레펠트)
- 10월 11~17일 : 일본잠사업 시찰 (농림수산부, 대한잠사회)

### 10. 누에고치 증산고조 (1989)

#### 가. 누에고치 증산 분위기 고조에 따른 농촌지도기관 기구개편

정부의 적극적인 잠업증산 시책에 따라 누에고치 증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봄 누에고치 수매결과 작년 봄보다 증산된 도는 충청남도과 전라남도 2개도이며 증산된 시군은 34개 시군에 이르렀다. 증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은 감산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서 양잠 농민과 관계기관, 단체, 업체 등 잠사인 모두가 고치 증산을 기대하는 가운데, 농촌지도기관 기구개편에 따라 시군 농촌지도소에 잠업(잠특)계가 설치되어 4월 1일부터 농가소득 작목으로 잠업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소 잠특계 설치 이후 처음으로 중앙단위의 연찬회를 개최하여 146명에게 새로운 기술과 잠사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다.

#### 나. 대한잠사회의 국제적 활동 및 ISA 북한의 가입 승인

대한잠사회 초청으로 ISA(국제견업협회)부회장 황건모(중국사주진출구총경리)의 4명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잠업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잠사견업계 인사들과 세계잠업현황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ISA 모델회장 일행이 우리나라 실크산업, 세계생사수급 현황 및 ISA 실크마크 사용 보급 등에 관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위해 대한잠사회를 방문하였다. 또한 11월 20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SA 상설집행위원회에서 북한의 ISA가입요청이 있었다. 북한의 ISA가

입은 중국 황건모 ISA 부회장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990년 5월 14일에서 5월 17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국제견업대회에서 북한은(곽중욱 외 4인) ISA의 회원가입이 인준 되어 비로소 국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21일 : 북경 실크공사 총경리 황건모 일행 초청 협의회 개최
- 3월 31일 : 봄 뽕나무심기 농촌일손지원 (경기, 가평, 설악)
- 5월 11일 : 농림수산산부 잡업증산대책회의 개최
- 11월 7일 : 한·일 잡사회의 참석 (동경, 잡사단체장)
- 11월 29일 ~ 12월 1일 : ISA 모델저널 회장 및 Ronald Currie 사무총장 일행 내방 및 한국회원협의회 개최

**제6절 기능성 양잠으로의 대전환(1990년대)**

**1. 환경변화 대처방안 (1990)**

**가. 국제농업환경변화와 잠사업계의 대처**

1986년 9월 15일 이래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된 이후 90년도 들어서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하기 시작한 가운데 10월 18~19일 한국 잠사견업의 새로운 전략개발 연찬회가 농촌개발연수원에서 농림수산부 주최로 200여명의 잠사관계 인사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잠



잠사견업 전략개발연찬회(1990)

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4개 분임조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은 누에고치는 통상마찰과 무관한 품목이고, 국내 누에고치 자급도는 현재 20% 미만으로 생산량이 늘어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며, 상묘, 잡종, 제사, 견직, 봉제까지 폭넓은 고용기회가 마련되어있고, 우리잡업기술을 세계로 수출할 기회도 된다면 이렇게 잡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우리나라 잡업이 소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을 마치고 연찬회에 참석한 잠사인들은 대정

부 건의문을 통하여

- (1) 전통산업으로서 잡업이 유지 발전할 장기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해 줄 것.
- (2) 최소한의 양잠 생산비 보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 (3) 실크 홍보사업에 지원을 강화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나. 1990년 당시 잡업현황**

양잠농가 호수는 1975년에 488천호에서 1990년에는 32천호로써 6.6%로 축소되었으며 뽕밭 면적은 82,876ha에서 1990년에는 13,294ha로써 16%로 감소되었고, 누에고치 생산은 1976년의 14,705톤에서 1990년에는 4,635톤으로 31.5%에 불과하였다.

**다. 주요 진행사항**

- 3월 23일 : 봄 뽕나무심기 농촌일손지원 (충북, 보은, 어암)
- 3월 20일 : 국립잠사소 신설(국립생사검사소와 국립잠종장 통합)
- 5월 11일 : 잠사관계단체장 회의 개최
- 5월 15일 : 삼한시대 유물 비단노끈 출토(중앙일보 기사)
- 5월 14~18일 : ISA 이사회 참석 (스위스, 회장 김문헌 참석)
- 7월 3~9일 : 양잠농가 일본잠사업 연수시찰
- 7월 7일 : 치잠공동사육장관리기사 전형 실시 (35명 합격)
- 12월 3일 : 대한잡사회 제19대 회장 권영하 선임

**2. 애누에 인공사료육 생산 (1991)**

**가. 인공사료센터 설치 및 경과**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애누에 사육노력의 절감에는 인공사료육 활용이 적합하며 광식성 누에품종 개발과 저렴한 인공사료개발로 일주일 양잠실현의 사전단계로 인공사료육 기술의 농가정착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은 애누에시기에 수확할 뽕잎을 큰 누에시기에 수확하게 되므로 봄철 뽕잎 증수율이 17.6%, 가을철 9.3%로 연간 13.5%의 증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누에 사육노력이 62%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인공사



애누에인공사료센터 개관(1991)

료 개발은 1973년 대한잡사회의 예산지원으로 잠업시험장과 KIST 공동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도에 KIST에서 동방유량에 사료 생산기술을 이전하여 농가에 보급이 시작되었으며, 1991년 1월 7일 애누에인공사료센터 설치비 2억원을 잠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것을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애누에인공사료센터 설치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재,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3월 29일 애누에인공사료센터 설치 계획을 승인받아 경쟁 입찰을 통하여 면적 62평에 각종 필요시설을 포함하여 총 비용 19억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8월 5일 설치완공과 함께 애누에인공사료의 시험조제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가루사료를 생산하던 동방유량에서 경제성문제로 생산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대한잡사회에서는 농가 환원 사업으로 가루사료 원료를 직접구입,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가루사료 생산시설을 동방유량으로부터 인도받아 인공사료센터에 시설추가를 통하여 가루사료, 떡사료 생산을 일원화시켜 1995년 4월 이후부터 각 도 사업소 애누에인공사료육사육장, 농가 등에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다.

#### 나. 대한잡사회 창립시기(會齡)를 1946년에서 1920년으로 수정

1971년 7월 당시 잡사회 창립 25주년 행사와 기념지로 2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1946년 이후 1971년까지 출공 회령을 1946년 기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25년사(p.86, 469)에서 조선잡사회 창립이 1920년 10월로 기록하면서도 대한잡사회 회령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1971년을 창립 25주년을 당연시하였다.

그러나 잡사지 1989년 7월호에서 박재명 당시 총무부장이 1990년을 대한잡사회 창립 70주년이 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실은 바도 있어 대한잡사회는 1991년에 들어와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령수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수정안을 1991년 10월 7일 제191차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하여 통과되었다. 창립일에 대하여 단지 1920년 10월뿐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10월 중간 날짜인 15일로 결정하고 1991년 이후 오늘까지 잡사회 창립기념일을 1920년 10월 15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3월 29일 : 잡사문화재 보호사업 실시 (선잠단지, 잠실리 뽕나무)
- 4월 19일, 9월 6일, 10월 11일 : 잠사견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 7월 16~22일 : 양잠농가 및 단체요원 일본잠업 연수시찰(22명)

- 8월 14일 : 잠업기술연수원 누에인공사료센터 준공
- 9월 20~22일 : 중국 제1회 국제실크협의회 참석(중국 소주)
- 11월 4~8일 : ISA 제18차 대회 참석(이태리 시칠리섬 타오미나, 권영하 회장 참석)

### 3. 잠업 활성화 노력 (1992)

#### 가. 잠업기술협력단 구성 및 운영

대한잡사회에서는 잠업주산단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잠업시책홍보, 대규모 양잠농가 및 신규 양잠 참여농가에 대한 중점지도, 유대강화를 통한 잠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잠업기술협력단 설치 및 기술지도 강화를 위해 '중앙단위기술협력단(가칭)'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경비는 잠업진흥기금에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을 계획(연 30백만원 내외)하였고, 이에 따른 잠업기술협력단 운영요강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안은 10월 1일 농림수산부 장관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잠업기술단 구성 및 운영

#### 나. 농림수산부 장관 초청 잠사업관련 간담회(9. 24)

9월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 초청 잠사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잠사업 진흥대책과 당면 주요 과제에 대하여 진지한 환담이 진행되었다. 강현욱 장관은 잠사업 진흥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다 같이 협력한다면 잠사업이 농업의 중간적인 역할을 다시 찾는 기회가 올 것이며 어려울수록 힘을 합치자고 하였다.

그리고 11월 4일 강현욱 장관은 대한잡사회를 방문하여 권영하 회장으로 부터 잠사업계의 현황을 청취하고 정부의 '93년도 잠사업지원 예산확대에 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다.

#### 다. 양잠농가 경영실태조사 실시(9. 21~10. 2)

대한잡사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 '양잠농가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누에고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2년의 각 도 누에고치 주산지 군 양잠 농가를 대상으로 양잠규모 현황과 누에고치 가격에 대한 반응, 비료지원 방법, 고치검사에 대한 신뢰도, 인공사료의 품질과 인공사료육 실시

농가의 호응도 및 농가의 건의사항 등 양잠농가의 경영 실태조사를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인공 사료육 농가 위주로 무작위 63호 농가를 상대로 현장설문 형식으로 진행했다.

#### 라. 주요 진행사항

- 3월 11일 : 이란에 잠종 70,000 상자 수출
- 4월 7일 : 봄 뽕나무심기 농촌일손 돕기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 5월 20일, 7월 8일 : 잠사류가격협정 협의회 개최
- 7월 7~13일 : 양잠농가 및 단체요원 일본잠사업 연수시찰
- 9월 24일 : 농림수산부 강현욱 장관 초청 잠사인 간담회 개최
- 10월 15일 : 대한잡사회 창립 72주년 기념행사 (창립일 수정 후 첫 행사)

### 4. 잠업발전 방안협의 및 건의 (1993)

#### 가. 대한잡사회 '잠업기술협력단' 운영(3. 26)

1992년 농림수산부 승인(10월 1일)에 따라 이듬해 3월 26일 대한잡사회는 잠사회관에서 양잠농가에 대한 기술진단과 신 잠업기술지원을 통한 선진잠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잠업기술협력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후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8월 17일 대한잡사회는 고급 양잠기술을 가진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양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잠업관계 기관 퇴직자 8명을 선발하여 연고지의 양잠단지를 중심으로 가을누에 사육기부터 현장지도 활동에 돌입하였다.

#### 나. 농림수산부 장관 대한잡사회 방문 잠업발전방안 협의(5. 17)

5월 17일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은 대한잡사회를 방문하여 권영하 회장과 잠사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잠업 발전에 대한 잠사업계의 구상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6월 9일 허신행 장관은 권영하 회장 및 잠사 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잠사업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잠사 단체장들은 잠업은 생산원가를 줄이고 생력화를 통하여 단위 생산성을 높인

다면 경쟁력 높은 작목이므로 적극적인 육성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허신행 장관은 잠사업 분야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여 잡사회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건의하면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7월 22일 잠사업발전방안 연구계획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대한잡사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잠사전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농림수산부의 정책개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는 잠사전업 생산기반, 유통구조,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기로 하였다. 9월 17일에는 대한잡사회를 비롯한 상모, 잠종, 양잠, 제사 잠사 단체장들은 단체장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가을누에고치 수매를 위한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16일, 5월 16일 : 잠업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
- 3월 26일 : 잠업기술 협력단 발족
- 5월 16일 : 선잠제 거행 (85년 만에 재현, 성북구청)
- 6월 9일 : 잠사단체장 농림수산부 허신행 장관 면담
- 12월 9일 : 대한잡사회 제20대 회장에 최연홍 선임



선잠제 85년만에 재현

### 5. 양잠산물의 약리적 효능발표 (1994)

#### 가. 양잠산물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잠상 산물이 전통적 문헌상에 약재로 이용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희대 약학대학 정성현교수는 누에 관련 물질로부터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양잠산물 약리적효능 연구 발표(1995)

또한 누에 이외에도 뽕잎에서도 항 당뇨 유효물질이 들어있어 혈당강하에 치료성분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경희대학 동서약학연구소가 주최한 '전통약물로부터 신약개발'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뽕잎, 뽕가지, 뽕뿌리 등과 누에, 누에고치 등 잠상산물이 건강을 위한 산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

## 6.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전환 (1995)

### 가. 기능성 양잠산업으로의 대전환

1995년 봄 경북지방을 비롯한 충남 등 지역적으로 누에가 고치를 짓지 않는 농가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잠사곤충연구소에서 누에의 생물학적 연구진행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건조누에를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위해 대한잡사회에서는 잠업진흥기금으로 이를 구매하여 누에의 식품소재화로 전환하고 보급하는 산업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당시 구매된 건조누에는 대한잡사회, 농림부, 잠사곤충부등 잠업관계단체와 기관이 직접 판매에 나서 구매량을 전량 판매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양잠산업은 섬유산업에서 기능성 식품소재 산업으로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연구에 착수하여 성공하였고, 동충하초 등을 생산하고 남은 출산견 등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식용이 가능한 실크파우더 개발의 개가를 올려 식품산업과 화장품 등에 중요한 소재로 제공되기 시작하며 소재산업으로서의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뽕나무 또한 이로온 점이 부각되면서 뽕잎 관련 제품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잠은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나. 대한잡사회 잠사문화박물관 건립 (10. 27)

우리나라 잠사업은 약 5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우리의 의생활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족 고유전통산업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잠사업의 최전성기로 농촌발전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도시화, 산업화 등



잠사문화박물관 개관(1995)

사회적 변화 속에 농촌 환경 또한 크게 변화되면서 잠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 고유의 잠사유적, 유물들 대부분이 의미와 가치도 하나, 돌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적과 유물들이 더 훼손되고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대한잡사회는 잠사문화박물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1995년 10월 27일 개관하게 되었다. 잠사박물관의 설립 과정은 日本의 요코하마 실크박물관과 오가야 잠사박물관 그리고 중국

의 항주와 소주에 있는 중국전통의 잠사박물관의 전시방법과 운영방향을 참고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설치장소는 잠사업의 요람인 충청북도 청원군에 소재한 잠업기술연수원 ‘새마을 권잡실’로 결정하고 대한잡사회 창립 제75주년을 기념하며 개관하였다. 이후 1996년 8월 14일 제1종 제89호로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여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잠사문화박물관 안내문>

우리나라 잠사업은 단군 이래 민족전통산업으로 우리의 의생활에 중요한 몫을 하여 왔으며 1960년대에 와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아 농촌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는 오래된 역사와 함께 조상의 슬기가 담긴 역사적인 잠사문화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으나 이들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유물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수집, 보존하여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한편 문화유산을 아끼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자 대한잡사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양잠농가 기술교육의 요람이었던 이곳 강내벌에 이 박물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잠사문화박물관 유물전시내용(뽕에서부터 비단까지)>

박물관의 전시내용은 누에와 뽕, 비단에 관하여 예부터 내려온 역사와 잠상관계 민속품, 잠상(蠶桑)관련 고(古)서적, 다양한 비단종류 그리고 누에치는 과정과 누에연모의 발달과정 등 800여점 전시하였고 양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잠관계 VTR 즉 “누에의 일생” “수지맞는 양잠” 등을 상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왕실에서 왕비가 누에를 쳤던 기록과 사진을 전시, 우리의 잠사문화와 양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뽕나무는 교육실습용으로 많은 면적에 재배되어 있고 누에를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뽕과 누에 인공사료로 사육하고 있으며 민속품은 전통적인 것으로 자새와 왕채 등 실 뽑는 도구와 실 다루기, 베틀들을 과정별로 비단종류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옛 잠상유적, 유물에 대하여는 사진으로 전시, 잠사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그 외 야외 앞마당에는 잠업인들의 축제장소로 풍잠을 기원하는 잠령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5월 뽕잎이 피어 누에농사를 시작할 무렵이면 전국 잠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잠을 기원하는 전통양잠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004년 한국잠사박물관 건립으로 모든 전시관련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동되어 전시되

고 현재는 새마을권잠실 본연의 기념관 기능으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17일 : 농림수산부 잠업법시행령 개정(안) 협의회 개최
- 3월 22일 : 잠사곤충연구소, 누에이용 당뇨병치료제 개발 보도
- 3월 29일, 4월 11일 : 잠사류가격협정협의회 개최
- 5월 28~31일 : ISA 제20차 대회 참석 (영국 브라이튼, 회장 최연홍 참석)
- 7월 7일 : 건조누에 판매대책협의회 개최
- 10월 15일 : 대한잠사회 창립 75주년 기념 창립일 1920년으로 수정변경
- 10월 27일 : 잠사문화박물관 개관(새마을권잠실, 800여점 전시)

### 7. 잠상산물 유통협의회 구성 (1996)

#### 가. 대한잠사회 잠상산물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잠상산물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대책의 일환으로 1월 31일 제209차 이사회를 통하여 대한잠사회의 기구를 개편하였다. 누에분말 등 잠상산물의 개발, 유통, 이용, 가공 사업을 전국단위로 체계화하고, 본회에 상설직판장을 개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업무를 재편하였다. 경제사업과는 잠상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홍보과 업무인 잠사지 관련 업무는 기금홍보과로 조정하였다. 2월 27일 210차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제도를 신설하여 그 밑에 관리부, 기금홍보부 경제사



잠상산물유통협의회 - 직판장 설치

업부, 잠업기술교육원으로 구성되는 조직 내용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향후 잠상산물유통협의회 운영요령을 심의하였다. 또한 3월 8일 대한잠사회는 관련기관, 학계, 관련단체, 양잠농가,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잠상산물 유통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잠상산물의 생산 및 유통, 건조누에의 식품허가 추진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96 잠상산물 유통제품 표시방안, '96 잠상산물 유통규격 및 가격(안) 등을 협의했으며 협의회 구성과 본 협의회 위원도 위촉했다. 대한잠사회 잠상산물유통위원회 운영요령에 의한 유통위원은 잠업생산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적 안배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유통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자문위원으로는 관계기관 단체장을 위촉하였다.

또한 대한잠사회는 이후 6월 24일 양잠농가가 생산한 양잠관련 제품을 직접거래하는 대한잠사회 직판장을 잠사회관 1층에 별도의 매장을 개관하였다. 6월 17일에는 '미스코리아가 누에를 친다'라는 제목으로 kbs tv 체험 삶의 현장에 미스코리아 진 이은희가 출연하여 잠업기술교육원에서 뽕따기와 누에치기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하였다.

#### 나. 충청북도 잠종장 잠령탑 이전 건립 (4. 25)

1933년 10월 31일 충청북도 내의 5만3천여호의 양잠농가에서 생산된 누에고치를 3과씩 수집하고 잠종, 상묘, 제사업자 및 관련 업계 공무원의 성금을 각출하고 각 군으로부터 채집한 자연석을 초석으로 충청북도 잠종장에 잠령탑이 건립되었다. 충청북도의 기구개편에 따라 타사업소와 통합되어 이전이 요구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잠업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간직해오던 잠령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잠령탑 이전설치(1996)

이에 대한잠사회는 잠업기술원 새마을권잠실 앞으로 충청북도 잠종장 잠령탑을 이전, 건립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996년 4월 25일 잠령탑이 대한잠사회 잠업진흥원 새마을권잠실 앞에 자리를 마련하여 이전되었으며, 매년 전국 각 지역의 잠사인은 5월 초순 누에농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잠령탑에 함께하며 인류를 위해 희생한 누에의 령(靈)을 위로하고, 당해 누에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잠기원제'를 매년 누에농사 전에 거행하고 있다.

잠령탑 이전설치 당시 충청북도에서는 비포장이던 진입로 500여 미터를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지원해 주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5월 10일 : 풍잠기원제 거행(전국잠사인 150명 참석)
- 6월 17일 : '뽕따러 가세' KBS 「체험 삶의 현장」 ('96 미스코리아 진 이은희 출연)
- 6월 24일 : 잠사회관 내 잠상산물 전시판매장 개장(뽕잎차, 뽕국수, 누에가루, 실크)
- 8월 16일 : 잠사문화박물관 문화체육부 등록(제1종 전문박물관 제89호)
- 9월 24~27일 : 중국 국제실크회의 참석(회장 최연홍 외 1명)
- 12월 1일 : 대한잠사회 제21대 회장에 최연홍 재선임

## 8. 잠상산물 유통 기구 설치 (1997)

### 가. 누에가루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잠상산물유통위원회 운영

1995년 이후 대부분의 양잠농가는 그동안 누에고치 생산에서 건조누에 생산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잡사회는 누에가루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와 유통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판매가격의 일원화, 5령 3일 동결건조누에의 생산 등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포장디자인의 통일화 및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잠상산물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 나. 잠업사업자금의 운용

#### 1) 잠업법 개정과 잠업사업자금

1963년 6월 13일 시행된 잠사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잠사가격안정기금'은 1971년 2월 18일 시행된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에서 '잠업진흥기금'으로 1997년 11월 23일에는 잠업법 폐지에 따라 기금관리 주체가 농림부에서 대한잡사회로 이관되었으며 명칭은 '잠업사업자금'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8월 22일 잠업법 대폭 개정(법률 제 5346호) 공포, 같은 해 11월 23일 시행된 이법에서 제15조~제22조에서 규정하였던 잠업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종전의 잠업진흥기금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잠업법 부칙 제2조(잠업진흥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잠업진흥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뽕밭 등 잠업기반의 유지, 양잠농가의 소득 안정, 잠업 관련산업의 발전, 자금의 관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잠업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구분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잠업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 채무 기타 권리의 무는 잠업사업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는 농림부 장관에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기(附記)하고 있다. '최근 누에고치 및 생사의 생산이 감소하고 잠사류가 수입자유화 되는 등 잠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생

사류의 수급안정 등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설치 운용되어 오던 「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민간이 그 잔여재산을 자율적으로 잠업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잠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려는 것임.'으로 되어있다.

#### 잠업사업자금 관련 개정 주요내용

잠업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잠업진흥기금의 설치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은 종전의 기금관리자가 잠업사업자금계정으로 구분 계리(計理)하여 잠업관련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함.

(법 제15조 내지 제22조 및 부칙 제2조)

\*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 한 날(1997.11.23.) <자료 : 법제처 제공>

#### 2) 잠업사업자금 운용 관리 규정 등 시행

잠업사업자금 관리를 전담하게 된 대한잡사회는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전문 6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잠업사업자금 운용관리 규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문 9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된 잠업사업자금 운영위원회 운영요령, 같은 해 같은 날 시행되는 전문 59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는 잠업사업자금 용자요령을 각각 작성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1998년 이후 개정된 잠업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 자금 사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한편 이 자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운용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3월 25일, 10월 21일 : 잠상산물유통협의회 개최
- 9월 30일, 10월 2일 : 누에 동충하초 대량생산 보도
- 11월 3~8일 : ISA 제21차 대회 참석(, 태국 방콕, 최연홍 회장 참석)

## 9. 건조누에 및 동충하초의 건강식품 등재 (1998)

### 가. 잠업사업자금 운영위원회 개최와 한국양잠연합회 창립 (4. 18)

잠업사업자금이 정부로부터 민간기금으로 대한잡사회로 이양됨에 따라 처음으로 98년 제1차 잠업사업자금 운영위원회를 2월 12일에 개최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존의 한국양잠협회가 사회단체로 서울시에 신고되어 유지되고 있었으나 사

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증을 반납하게 되면서 사실상 한국양잠 협회로서 공식명칭은 중단되었다. 이후 양잠농가를 중심으로 2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양잠연합회(회장 사공경)로 결정하고 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제173호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게 되어 4월 18일 자로 등록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누에가루, 국내외 특허획득 (6. 23)**

누에를 이용한 혈당강하제 제조방법이 잠사곤충연구소 류강선 박사와 3인에 의하여 1995년 1월 23일 특허를 출원하여 1998년 6월 23일 특허 제151731호로 등록되었다. 건조누에가루의 특허추진은 1998년 3월 13일 일본특허청에 특허 제2757937호가 우리나라 특허청 보다 먼저 등록되어 국제특허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다. 건조누에 및 누에동충하초 식품원료 인정 (7. 10)**

대한잡사회를 비롯한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1998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 제98-7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고시」를 통해서 건조누에를 누에동충하초와 함께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게 되어 건조누에의 유통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라. 주요 진행사항**

- 2월 26일 : 누에 인공사료육 평가회의 개최
- 4월 18일 : 한국양잠연합회 법인설립
- 5월 7일 : 누에 동충하초 종균배양실 현판식
- 6월 25일 : 누에 동충하초 농가재배 생산물 수매개시
- 12월 29일 : 잠사문화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준공식 거행(충청북도 지원)

**10. 잠사업 남북 협력사업 (1999)**

**가. 진품누에동충하초 상표등록**

누에동충하초를 생산 유통하면서 일반 동충하초와 제품의 차별화를 모색하던 대한잡사회는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하여 생산한 동충하초를 “대한잡사회 진품누에동충하초”라

는 상표로 등록하였다.

**나. 남북교류 잠사업 협력사업 추진 (9. 19)**

**1) 남북 잠사업 협력사업 추진 배경**

우리나라 잠사업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부터 다 같이 양잠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섬유산업의 한 분야를 이루어 왔다. 남쪽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잠사업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전략산업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값싼 중국산의 수입에 따라 점차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반면 북한에서는 50,000여ha의 뽕밭을 비롯한 생산기반은 있으나 상품의 국제화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잠업생산이 본 과도에 오른다면 북한의 농촌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남북한 간에 보완적 관계를 잘 이루어 가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잠사업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배경이다.

**2) 북한 잠사업 관련 단체 및 농가 현황**

북한의 잠업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잠학부가 있는 원산농업대학, 사리원농업대학(일명 계응상농업대학), 강계농업대학이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농업과학연구원 잠학연구소와 평북 동림, 재령에 잠업시험장이 있으며, 함흥 잠업원종장 등 5개소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의주 잠업농장 등 13개소에서 교잡종을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2,860개소의 협동농장이 있다. 그리고 검사기관으로 중앙잠업검역소가 평북 동림에 있으며 청진시동등 8개소에 도잠업검역소가 있다. 이와 함께 고치 가공시설로 평양 등에 7개소가 있으나 고치생산량 감소로 전체가 모두 가동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

**3) 남북 잠업 개발사업 추진과정**

1998년 4월 우리 측 경남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일행 5명과 북측 조선광명성경제연합회 리의덕 서기장 등 7명이 북경에서 대한잡사회 최연홍 회장과 회동하여 북측의 생사 수입 가능성 타진 및 남한의 누에씨 공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999년 9월 19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용선 사무총장과 북측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김영철 참사와 북한농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강도 등 2개군에 잠종 등 20만불 상당의 양잠지원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 남한



에서 전문가로 전 잠업시험장장 이상풍 박사, 박광준 전 잠업시험장 재상과장, 김계명 전 육잠과장 3명을 현지에 파견키로 협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잡사회에서는 2000년 4월 총회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5,0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원사업비는 “우리만족서로돕기운동”과 문화일보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모금하여 총당기로 결의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의에 따른 지원에 앞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파견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우리만족서로돕기운동”의 10개 지원단체 대표들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강문규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사리원시, 봉산군, 상원군, 중화군, 덕포지역 등 6개 지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측 조사단이 요청했던 지원대상 지역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잠업지원대상지인 자강도 2개 군의 현지 확인은 무산되었다. 다만, 사리원의 계용상 농업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잠업관련 기술수준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황해북도 봉산군 청계리의 2개 잠업작업반의 현지 출장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양잠생산 과정과 농가현장의 생산성 및 생산기술보급 현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양잠산물들이 가공되어 백화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견직물과 명주를 이용한 가공수예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그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현지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통하여 잠업관계 기관의 대표들과 회동하였다.

북측대표로는 농업과학원 농산과학지도처 책임부원 한현재와 잠업과학지도처장 김미화로서 북한에 지원했던 잠구류 등에 대한 이용실적과 잠종을 이용한 사육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향후 진행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지역을 가급적 양잠사육환경이 비슷한 황해도로 하되 1~2개소 시범지역에 국한하고 북측 농업과 학교의 잠업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조사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당시 아태위원회 강덕순 실장, 양정모 참사 등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남한의 잠사업이 60~70년대 농촌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농업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받게 되었다.



국제동충하초 심포지엄 개최(1999. 11.9)

#### 다. 주요 진행사항

- “잠사”지 연재만화 “메투리” 300회 기념(1월호 이정문 화백, 공로패수여)
- 4월 2일 : 잠실7동 탄천변 「양잠길」 뽕나무 식재

- 7월 5~10일 : ISA 제22차 리용총회 창립 50주년 기념 실크전시회 참석
- 11월 9일 : 한국잡사학회 제1회 국제동충하초심포지엄 개최(서울 롯데호텔)
- 12월 7일 : 대한잡사회 제22대 회장에 임수호 박사 선임

## 제7절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 활동 (2000년대)

### 1. 양잠산물 품질인증제 도입(2000)

#### 가. 건조누에 품질인증제도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건조누에 품질인증제에 따라 대한잡사회는 2000년 4월 22일자(농림부 품질 51160-283)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보다 양질의 누에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나. 누에가루의 신제품개발과 수출추진

1998년 이후 IMF등 경제여건 악화로 누에가루의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2000년에 대한잡사회는 누에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위생적인 생산과 캡슐화로 복용하기 편리하게 하였으며, 용기 및 포장디자인 고급화 및 소형화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층 창출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누에분말 또는 동결건조누에 원료상태로 수출하던 방식에서 가공완제품 수출로 해외시장을 넓히기 위해 2000년 동성제약(주)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수출용으로 「Dia Max 53」, 국내시판용으로 「Seri Max 53」를 개발하였다.

#### 다. 동충하초 품질인증제 실시 (6. 24)

농림부장관의 지시(1999.11.10.)에 의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방안 추진에 따라 대한잡사회는 누에동충하초 품질인증 규격 안을 제출하였고(2000.2.7) 농림축산물품질인증대상 품목고시(농림부 고시 제 1999-8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북도 청주청원 출장소에서 누에동충하초 무농약재배 품질인증서(승인번호 : 12-04-28, 2000.6.24.)를 교부받아

대한잡사회 판매 동충하초 원초에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게 되었다.

#### 라. 대한잡사회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잠사홍보위원회를 개최하여 창립기념행사로 왕비친잠례 재현행사 개최를 결정하였다. 10월 12일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창립 80주년 행사계획에 따라 잠사문화와 양잠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조선왕조 왕비친잠례 재현행사를 남산한옥마을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대한잡사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잠사업 변천을 기록한 ‘잠사회 80년사’를 12월 30일에 발행하였다.



창립80주년행사(2000.10.15)

#### 마. 대북농업지원사업 추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대북지원사업의 일환에 따라 대한잡사회 임수호 회장을 포함한 일행은 북한의 잠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조사를 위해 2000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 10여개 군지역의 농업 및 잠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북농업지원을 위한 북한 방문(2000.10.23)

#### 바. 주요 진행사항

- 5월 14~19 : 중국 국제실크협의회 참석(수조우, 회장 임수호 참석)
- 5월 26일 : 제1회 양잠산물 기능성식품 품평회(대한잡사회 주최, 잠사곤충부 주관)
- 10월 12일 : 잠사회 창립 80주년기념 및 문화축제행사 개최  
(친잠례 재현 10월 14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
- 10월 19일 : 잠사과학연구 100주년 기념비 건립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10월 23~31일 : 임수호 회장 대북농업지원사업현장 북한방문
- 12월 14~15일 : 잠사곤충부 “누에에서 혈당강하물질 양산” 길 열려 보도
- 12월 30일 : 창립80년 ‘잠사회 80년사’ 발간

## 2. 사보 제호 ‘실크로드’로 변경 (2001)

#### 가. 잠업진흥사업소 식당 및 동충하초 보관창고 화재발행

2월 24일 잠업진흥사업소 부속건물인 식당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식당 내부와 연결된 동충하초 보관창고가 전소되어 7천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기존에 가입된 대한화재해상보험을 통해 3천9백만원의 보험으로 보상 처리 완료되어 시설이 복구되었다.

#### 나. 대한잡사회 사보제호 ‘잠사’에서 ‘실크로드’로 변경

1924년 ‘蠶業之朝鮮’ 창간을 시작으로 1949년 ‘蠶絲新報’, 1954년 ‘蠶絲報’, 1965년 제호를 ‘蠶絲’로 변경하여 2001년 2월까지 발행하였다. 당시 임수호 회장은, 잠사지가 잠사인들 위주의 잡지에서 한정되지 말고 우리 잠사문화를 이끌어가고 환경과 건강의 길잡이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홍보 매체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남북한을 이어주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로 뻗어간다는 의미로 잠사지 제호를 기존의 ‘蠶絲’에서 ‘실크로드 Silk Road’로 변경하여 새로운 잠사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잡지로 개편하여 편집·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실크로드’의 제호는 공모를 통하여 독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본회 제236차 이사회(4.25)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발



잠사 → 실크로드로 잠사지 제호 변경

행하게 될 잠사지 ‘실크로드’는 1년에 4회, 계간(봄, 여름, 가을, 겨울)으로 발행하며 4×6배판에서 신국판으로 크기가 축소되었고 총 52쪽으로 결정하였다.

1회 발행 부수는 6,000부로 년 간 4회 총 24,000부를 발행하고 무료배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잠사업과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개편된 잠사지 실크로드는 기존의 잠업 기술 중심 내용편집에서 집필자를 사회 저명인사로 영역을 확장하여 잠업 관계자 이외에도 일반 독자를 상대로 양잠산물 홍보의 폭을 넓혀가며 다양한 잠사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잠사지 ‘실크로드’는 2002년 4월 국제표준연속 간행물(ISSN 1227-5522)로 등록되었다. 2020년 현재는 발행 부수가 축소되어 년 간 10,000부를 발행, 정기구독자 1,9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20년 잠사지 실크로드는 제67권 겨울호 통권 564호(통

합 817호)가 발행되었으며 이정문화백의 「메투리」는 197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최장수 만화로 연재되고 있다. 양잠 농가에는 최근의 양잠 동향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잠업 전문지로서 발행 기간에 있어서 국내 최장수를 기록하며 잡지역사를 새로 쓰는 '잠사지(紙) 실크로드'로 자리하고 있다.

**다. 주요 진행사항**

- 4월 20일 : 격월간 '잠사'지 제호변경 '잠사 실크로드. 2001년 봄호' 창간
- 5월 25일 : 제2회 기능성양잠산물품평회, 한.일국제심포지엄(농업과학기술원)
- 7월 9일 : 대북잠업협력사업 방북(임수호회장)
- 10월 13일 : 제3회 조선왕조 친잠례행사(경복궁. 한국의생활문화원)
- 12월 3일 : 제23차 ISA국제견업협회 총회(인도벵갈. 임수호회장)

**3. 월드컵 축구팀 누에동충하초 기증 (2002)**

**가. 누에동충하초 2002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 기증 (4. 24)**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4월 24일 대한잠사회와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하여 정무남 농촌진흥청장이 대한축구협회 김상진 부회장에게 '누에동충하초'를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전달하는 기증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는 동충하초가 선수들의 체력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어 월드컵 한국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특별히 제작한 '누에동충하초' 캡슐제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이 기증행사 내용은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누에동충하초에 대한 효능과 성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잠사업 대북협력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심재익 대한잠사회장 직무대행과, 장영규 한국양잠연합회장, 손경식 한국잠종협회장 등이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대북잠업협력사업 논의하였



잠사업 대북협력사업 논의 (2002. 10.28~11.1)

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3천만원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다. 주요 진행사항**

- 4월 24일 : 누에동충하초, 월드컵축구국가대표팀 기증(대한축구협회)
- 5월 24일 : 제3회 기능성 양잠식품 품평회(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 6월 28일 : 제4회 조선왕조 친잠례재현행사(경복궁, 한국의생활문화원)
- 8월 27일 :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 잠사문화박물관 기공식(잠업진흥원)
- 9월 21일 : 국제잠사위원회(ISC)총회참석(태국, 심재익 회장직무대행)

**4. 한국잠사박물관 준공 (2003)**

**가. 한국잠사박물관 준공식 (5. 7)**

한국잠사박물관은 2001년 3월 19일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 건립' 추진사업 중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 일환으로 7억의 국고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충북 청원군에서 도비 5억, 군비 2억, 대한잠사회 자부담 3억을 합하여 총 17억 규모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외관은 '누에를 모티브로 한 흰색의 원형을 기본 디자인으로 정하고, 건물 외벽에 있는 여러 개의 조명은 누에 몸에 있는 점을 형상화하여 대지 9,950㎡, 연면적 1,309.6㎡,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2년 8월 27일 기공식, 같은 해 11월 상량식을 거쳐 2003년 5월 7일 준공하게 되었다.



한국잠사박물관 준공식(2003)

본회 창립 84주년 기념일(2004.10.15.)에 맞추어 심재익 대한잠사회장, 허상만 농림부장관, 손정수 농촌진흥청장, 한범덕 충청북도 부지사, 변장섭 청원군의회의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5000년 잠업역사의 요람 한국잠사박물관이 착공 2년 2개월 만에 개관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 잠사업역사 유물을 총망라하는 한국잠사박물관이 탄생하였다.

**<한국잡사박물관 건립 추진경과>**

- 1995. 10. 27 잡사문화박물관 개관(잡업진흥원 새마을권잡실)
- 1996. 8. 14 문화관광부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 2002. 3. 13 설계 및 건축공사계약(농림부지역특화공모사업 14억)
- 2002. 8. 27 잡사문화박물관 건물 기공식
- 2002. 11. 28 잡사문화박물관 건물 상량
- 2003. 9. 30 2003년도 특별교부세(충청북도 10억원/내부시설자금)
- 2003. 5. 7 잡사문화박물관 신축준공(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188번지외 7필지)
- 2004. 10. 15 한국잡사박물관으로 명칭변경 개관식(내부시설완료)
  - 1층 : 역사박물관.잡상미래관.농경문화관.잡상산물관
  - 2층 : 전시실.세미나실.준비실, 부대시설(체험학습관. 실크하우스)

**나. 주요 진행사항**

- 3월 7일 : 한중잡사교류협력 - 중국사주진출구총공사 사개평 방한
- 5월 7일 : 잡사문화박물관 건물준공
- 5월 23일 : 제4회 국제 기능성 양잠산물 심포지움 및 품평회(농업과학기술원)
- 7월 1일 : 제24차 ISA국제견업협회 총회(이태리 꼬모. 심재익회장)

**5. 기능성 양잠산물 품평회 개최 (2004)**

**가. 누에동충하초 상표등록**

1998년 누에동충하초 사업이 시작되면서 양잠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해 누에동충하초 원초를 수매하여 건조시킨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제품의 고유브랜드인 「진품 누에동충하초」를 2002년 1월 상표권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하였고 2004년 4월 13일 누에동충하초에 대한 상표등록(제0099704호)이 완료되었다.

**나. 대북 잠사업관계 협력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추진(7~8월)**

북한과 지속적으로 잠업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4년 8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동강무역 측과 잠업협력을 논의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간 잠사업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북한 Kostar와 접촉 '북한의 제사공장을 활용하

여 견연사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위탁가공 공장으로 운영하여 가공된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며, 대북한 양잠. 잠종. 상묘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3차(7.16~17, 8.27~28, 9.17~18)에 걸쳐 중국 심양에서 접촉하였으나, 북한의 사업 파트너십 결여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다. 기능성 양잠산물 품평회 개최 (10. 8)**

대한잡사회가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주관한 제5회 기능성 양잠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가 10월 8일,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양잠제품 100점(개인 54점, 업체 46점)이 출품되어 16작품(개인 대상 이해창, 뽕잎막국수, 업체대상: (주)동성제약, 오마사리프60,화장품)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뽕, 누에, 동충하초, 실크의 맛으로 건강으로 주제로 열린 행사는 하나로마트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양잠 제품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라. 주요 진행사항**

- 4월 13일 : '진품누에동충하초' 상표등록
- 대북한 잠사관계 협력관련 추진내용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추진
  - 북한 Kostar와 잠업협력(7월 16일, 8월 27일, 9월 17일/중국 심양)
  - 북한 대동강무역과 잠업협력(8월 10일. 중국 북경)
- 10월 8일 : 제5회 기능성양잠산물품평회 및 전시회개최(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 10월 15일 : 한국잡사박물관 개관
- 11월 20일 : 실크로드 500호(2004년 겨울호)

**6. 뽕나무묘목 5만주 튀니지 수출 (2005)**

**가. 뽕나무묘목 5만주 튀니지 수출(3.18)**

농촌진흥청의 국제협력사업(KOICA) 일환으로 아프리카 튀니지에 뽕밭 조성부터 제사



에 이르기까지 양잠기술과 물자를 지원하는 잠업 협력사업이었다. 첫째인 2005년부터 1차 튀니지 양잠 개발사업의 초석인 상전 조성용 뽕나무 5만주를 수출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도 현지생육 가능성 높은 품질이 우수한 청일뽕 상묘 3만주를 수출하였고 이어서 2007년 3월 18일 전북 익산시 봉동에서 선별된 우수품종 청일뽕 상묘 3만주를 추가로 주문받아 한국상묘협회를 통해 아프리카 튀니지로 수출하였다.

#### 나. 양잠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재 추진

양잠산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제품생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추진 및 생산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설명회가 7월 11일 잠업진흥원 한국잠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잠사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강석우 잠사양봉소재과장의 연구배경에 대한 설명과 제품개발과정 소개, 그리고 등록 전문기관(GHC)의 연구 과정 및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24일 : 임원 규정에 관한 정관 개정
- 3월 27일 : 상묘 아프리카 튀니지수출(한국상묘협회, 5만주)
- 7월 11일 : 마사회 지원 양잠산물 홍보관설치(잠업진흥원)
- 12월 27일 : 누에가루의 기능성식품 등재를 위한 용역연구사업 추진(농업과학기술원)

### 7. 세계 누에산물전 개최 (2006)

#### 가. 2006 세계누에산물전 개최

많은 농업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기능성 양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기능성 양잠연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누에산물전을 개최하였다. 양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2006세계누에산물전' 행사는 2006년 10월 14일(토)부터 10월 18일(수)까지 잠업진흥원 주변 및 광장 무대에서 영부

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국내외 귀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전시행사는 5일 동안 진행되었다. 14일 개막식 행사에는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격려사를,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이 개회사를,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가 환영사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축사를, 심재익 대한잡사회장의 환영사로 개막되었다. 이어서 성원누에농장 윤성원 대표가 전문양잠경영인 성공사례를 발표가 있었다. 식후행사로 권영숙 여사와 장관 및 도지사 부인 등 7명은 한국잠사박물관 앞에 오디 뽕나무를 기념 식수하고, 잠실에서 뽕나무 가지치기, 누에에게 뽕잎주기 등의 왕비가 몸소 뽕을 따고 누에에게 뽕을 주며 양잠을 장려하는 '친잠례' 전통문화행사도 함께 거행하였다. 이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실크제품 전시와 '입는 잠업'에서 '기능성 신소재 잠업'으로 급부상하며 주목받는 잠사업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세계누에산물전시장은 전체 40여개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잠사단체 전시관, 농촌진흥청, 강내면의 협찬 전시관, 국내 양잠산물 생산업체 등 25개 업체, 참여 양잠농업협동조합 9개 전시관, 잠사관련 업체 15개 전시관, 중국, 태국, 일본, 이태리, 미얀마, 튀니지, 멕시코, 인도 등 8개국 해외참여국가 전시관, 시식코너, 종합안내실, 휴게실을 갖추어 총 5일간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2006세계누에산물전' 행사에는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2대를 청주역과 월곡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종합안내소에서는 뽕잎 차 등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5일 동안 1,8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본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잠업의 역사와 세계 잠업기술을 선도하는 양잠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전국에 한국잠사박물관을 홍보하게 된 성대한 행사였다.

#### 나. '대북잠사협력 추진방안 연구' 용역(6. 1)

대북 잠업개발 협력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따라 '대북잠사협력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대한잡사회에서 지원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전 북한농업연구팀장)의



주관으로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농림부, 통일원, (사)통일농수산물사업단 등 대북사업 관계기관 및 단체에 제공되어 북한 잠업개발의 설명자료로 활용되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17일 : 정기총회 제24대 심재익회장 선임
- 3월 16일 : 남북 잠사업협력회의(개성공업지구.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6월 1일 : 「대북잠사업협력 추진방안 연구」 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월 14일 ~ 18일 : 2006세계누에산물전 개최(잠업진흥원내)
  -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여사 격려사 및 친잠행사(기념식수)
  - 세계누에산물전 개최(40부스, 국제관 8개국)

### 8. '신이 내린 나무 뽕' TV 방영 (2007)

#### 가. 추석특집 「신이 내린 나무 뽕」 방영(9.26)

사양산업으로 취급받던 양잠산업이 최근 고부가가치 기능성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발전하는 잠사업을 소개하여 양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추석특집으로 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KBS 한국방송공사(KBS플러스)



가 7천만원으로 제작하였고, KBS 1TV를 통해 9월 26일, 추석특집다큐 1편(방송시간 45분) '신이 내린 나무 뽕' 이 방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잡사회가 CD로 제작하여 전국 양잠농업협동조합 및 잠사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하여 양잠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3월 18일 : 뽕나무 묘목 3만주 아프리카 튀니지 수출(한국상묘협회)
- 7월 18일 : 기능성식품 등재 임상시험용역계약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
- 8월 27일 : 박홍수 농림부장관 잠사회 방문

○ 9월 26일 : 추석특집 '신이 내린 나무 뽕' 방영(KBS 45분)

### 9.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 (2008)

#### 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농어민대표 간담회(1. 2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대한잡사회 심재익 회장 등 국내 농어민단체 대표 34명이 1월 21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어민단체 잠사분야 대표로 참석한 대한잡사회 심재익 회장은 잠업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남북 양잠 협력 시범사업과 북한의 잠사업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내 양잠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기능유지와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농가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의 회장은 잠업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남북 양잠 협력 시범사업과 북한의 잠사업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내 양잠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기능유지와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농가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21일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농어민대표 간담회 참석(심재익회장)
- 6월 27일 : 대북협력사업(개성방문. 통일농수산물사업단주관)
- 11월 28일 : 2008 전국양잠기술연찬회 (유성유스호스텔)

### 10. 기능성양잠산업육성 지원법률 제정 및 누에분말 건강기능성식품 등재(2009)

#### 가. 동결건조누에분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식약청)

정부의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주요 산업으로 환경친화적이면서 농가 고소득의 기능성 양잠산업이 부각 되면서 대표 산물인 동결건조 누에가루를 2006년 12월부터 「건강기능성식품 원료등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첫발은 건강기능식품 등재 허가대행업체인 (주)글로벌헬스케어와 동결건조 누에분말을 등재 목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신청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107192)하였고, 식약청의 임상시험자료 보완요청에 따라 7월, 전북대학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

원센터와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56명의 인체시험 대상자를 통한 임상시험 결과를 2009년 7월 식약청에 접수하고, 7월 21일 식약청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성식품(기타 II 등)'으로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1일, 드디어 '동결건조누에분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제2009-67호/기능성내용: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승인받게 된 것이다.



9월에는 박동철 회장과 제약회사인 동성제약(주) 이양구 대표는 '동결건조누에분말 건강기능성식품 원료공급 및 제품생산협약'을 체결하여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각 제품을 생산한 바 있다. 그러나 5령 3일 동결건조누에분말 건강기능성식품 원료공급에 있어 제조공

정 방법이 생산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되어있어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중단되었다. 당시 식약청에서 승인된 '동결건조누에분말' 원료사용 인정내용을 보면 제조방법은,

“5령 3일 생누에를 액화질소가스 또는 급속동결건조(-55℃, 48시간)한 동결건조누에를 분쇄 및 멸균(121℃, 5분)후 제조한 동결건조누에분말이다. 주요기능성성분(또는 지표성분)은 1-deoxyojirimycin(1-데옥시노지리마이신)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2017년부터 제조공정을 변경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꾸준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 2년 만인 2019년 1차 변경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기능연구팀-525/2월7일), 2차 변경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기능연구팀-4919/11월 5일)으로 새로운 제조공정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

“제조공정을 ‘5령 3일 냉동누에(-20℃이하) → 동결건조(-30℃이하 30시간 이상) → 분쇄(80mesh 이상) → 멸균(121℃, 15분이상) → 동결건조누에분말, 로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두색~녹갈색의 분말’ 로”

그러나 아직도 원료공급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많은 난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 (주)삼성생활건강과 동결건조누에 원료공급계약에 따라 기능성원료 가공과정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에 따른 누에분말 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 나. 기능성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1999년 잠업법 폐기로 양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한잡사회를 비롯하여 양잠농가, 관련 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이 안정적으로 발

전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법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 ① 기능성 양잠산업과 기능성 양잠농가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양잠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 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함.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기능성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용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2009.1.8.)하고, 제282회 국회 본회에서 만장일치 통과(4.29. 수정가결)되었으며, 정부 이송 과정을 거쳐 비로소 법률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에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21822호. 11.16) 및 시행(11.28)되었다.

#### 다. 잠업진흥원 누에밸리클러스터 준공

잠사업 부흥과 미래지향의 신개념 누에생태 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대통령 특별교부금 12억원으로 시작한 누에밸리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어 2009년 5월 22일 품잠지원제와 함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청원군 부군수, 군의장, 잠사업계, 관련 잠업단체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누에밸리클러스터는 잠업진흥원 일원에 다목적 잠실 M동 192평 건축, N동 96평, 다목적 온실 254.5평(뽕나무재배 및 자연생태학습), 시설 및 연계시설(7,090평)을 조성하여 누에 기르기에 비단 실 켜기 등과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연중 견학, 체험학습 관람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조성된 것이다. 특히 세계누에 축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상징 브랜드로 육성시키고 이를 전시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누에밸리 중심학습형 체험 관광으로 연계하는 신 잠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누에밸리클러스터 준공식(2009)

#### 라. 주요 진행사항

- 1월 8일 :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29일. 제282회), 시행령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1822호)
- 3월 2일 : 제25대 박동철 회장취임
- 5월 22일 : 청원누에밸리클러스터 준공 (잠업진흥원)

- 8월 21일 : 동결건조누에분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제2009-67호)  
기능성식품 기타 II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청
- 10월 18일 : 2009 중국 국제실크 포럼 및 박람회 참석 (박동철회장)

## 제8절 대한잠사회 재도약기반 마련 (2010년대)

### 1. 한국잠사박물관 오디축제

#### 가. 새콤~ 달콤~ 오디축제(5. 1~6. 20)

잠업진흥원 한국잠사박물관은 뽕나무와 누에 그리고 푸른 대자연과 함께 오디가 풍성하게 열리는 계절에 오디축제 행사를 2010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장장 50여 일간 연인원 약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개최하였다. 2010년 오디축제 행사는 누에를 비롯한 오디 등 기능성 양잠산물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기능성 양잠산물 효능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 지역의 명품축제로 대한잠사회와 한국잠사박물관에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열린 취재결과 TV를 통해 전국에 잠업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보였다.

#### 당시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 ▲ CJB청주 뉴스 (2010\_6\_11\_ 오후 8시 25분 방영) -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누에와 자연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오디축제가 한국 잠사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 ▲ MBC 전국시대 (2010\_6\_11\_오전 8시 30분 방영) - 뽕밭에 오디가 주렁주렁 열린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 한국잠사박물관 가족단위 방문객으로 넘쳐나.
- ▲ MBC 뉴스데스크 (2010\_6\_11\_ 오후 9시 25분 방영) - 다양한 기능과 건강에 좋은 뽕나무 열매 오디가 주렁주렁 열린 한국잠사박물관에서 누에와 오디를 주제로 체험학습
- ▲ MBC 투데이 (2010\_6\_12\_ 오전 7시 30분 방영) - 오디 먹으러 오세요! 누에에 뽕도 주

고, 누에고치에서 명주실도 뽑아보고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한국잠사박물관.

#### 나. 주요 진행사항

- 5월 1일 : 한국잠사박물관 오디축제(잠업진흥원)
- 7월 12일 : 잠업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해외 현지조사(일본)
- 12월 22일 : 2010 중국국제실크박람회 참관(중국 항주/상해. 박동철회장)

### 2. 바이오실크페스티벌 개최 (2011)

#### 가. '21세기 뉴 실크로드와 함께~' 바이오실크페스티벌 개최(9. 30~10. 9)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10일간 잠업진흥원 한국잠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은 '21세기 뉴 실크로드와 함께~'라는 주제로 대한잠사회가 주관하고, 청원군이 주최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충청북도가 후원하며 개최되었다. 페스티벌을 통한 누에 산업의 활성화, 역사적 전통자원 복원 및 잠사박물관 홍보, 사양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9월 30일 개막식을 필두로 박동철 회장, 서규용 장관, 이종운 군수 등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문화행사로는 선잠제, 왕비친잠례 재현과 누에생태체험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기능성 양잠산물 관련 19개 단체 및 업체에서 전시행사와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었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4월 11일 : 중앙아시아 실크협회 국제포럼참석(루마니아)
- 9월 22일 : 2011 중국국제실크박람회 참관(중국 항주. 박동철회장)
- 9월 30일 ~ 10월 9일 : 2011바이오실크페스티벌 개최(한국잠사박물관 일원)

### 3. 양잠산업도약 워크숍(2012)

#### 가. 제1회 양잠산업도약 워크숍 개최(11. 28~29)



2012년 11월 28일~ 29일(1박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 2일간 전국 잠사관계인과 양잠 농업인을 중심으로 24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우며 양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특별강의(정책분야.양잠분야.상묘분야.유통분야), 양잠농가 성공사례발표, 양잠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능성양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성과에 대해 열린 토론이 이어졌으며, 양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잠기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중대 효과를 거두었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2월 15일 : 제87회 정기총회(제26대 윤장근회장 선출)
- 3월 1일 : 충북대학교 누에산업지역연고 육성사업 MOU체결
- 11월 28일~29일 : 양잠산업도약 워크숍 개최 (유성관광호텔 양잠인 234명)

#### 4. 잠업 문화 홍보행사(2013)

##### 가. 누에체험장 운영과 잠원나루 축제(10. 24)

누에와 관련된 지역인 서울 잠원동 서울메트로 잠원역 지하철 역사 내부에 양잠산업 관련 홍보물을 설치하여, 지역의 역사와 양잠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한국잠사박물관



관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행사를 일반 시민, 학생,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누에생태학습(누에고치 명주실 뽑기, 갈라누에 전시), 양잠산물 시식 및 홍보, 뽕 잎차 만들기 등을 통해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6월 28일 : 양잠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시행 및 적용
- 10월 24일 : 제1회 잠원나루축제 (잠원체육공원. 친잠례재현)
- 12월 18일~19일 : '2013양잠산업도약 워크숍' (대전 유성호텔. 전국 양잠인 257명 참석)

#### 5. 잠사회관 재건축사업 추진(2014)

##### 가. 재건축 사업 승인 및 본관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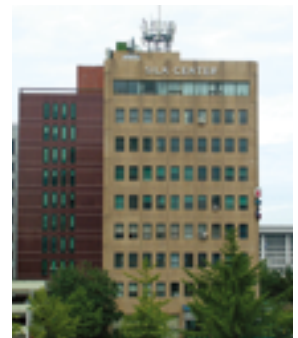
1930년대 경성 태평동 시대를 거쳐, 1950년대 서울 남대문로 회관, 1960년대~1979년까지 관철동에 이어서 1980년 10월 31일 여의도에 832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새로운 잠사의 전당을 마련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 제고와 대한잡사회 1층 실크 전시장 운영을 통한 실크소비 촉진과 운영에 기여했다.

'잠사회관(Silk Center)'은 1980년 12월 30일 준공하였으며, 대한잡사회가 2층을, 1981년 설립된 '축협중앙회'가 1층에 은행을, 3층~8층(9층 대회의실)을 축협중앙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회관관리는 원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89년 축협중앙회가 사옥을 마련해 이전함에 따라, 신생법인인 한국증권전산(주)가 4개 층을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실을 분할해 임대가 시작되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관 건물 뒤에 철골조립식 3층(4단)의 주차타워 신축 등 회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2000년대에 잠사회관 주변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된 잠사회관은 임대 부진으로 부실채권 발생이 잦아졌고, 잠사회는 부득이 운영경비 차입에 따라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갔다. 당시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난방용 경유를 사용하고 있던 잠사회관이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비용이 예상되었고, 외벽 타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농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영진단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이 대두되었다.

2010년 제84회 정기총회(2010.2.24.)에서 재건축 사업계획안이 통과(분양 50%, 자가운영 50%)되면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6명 : 회장.단체장4,이사1), 285차 이사회(2010.7.22.)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 컨설팅 의뢰' 결과 보고가 있었고, 1차 재건축협의회(2010.11.5.)에서 타당성 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까지 이루어졌다.

2011년 5차에 걸친 재건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구청으로부터 '분양에 의한 상가 및 오피스텔로 신축' 승인됨에 따라 제 85회 정기총회(2011.2.25.)에서 '재건축설명회(2011.6.15.)'를 계획하였으나,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결국 건축설명회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건물 수령이 31년이 되는 잠사회관은 수선비용이 점점 더 증가 되고, 임대 상황은 부진했으며 또한 부실채권 발생으로 막대한 운영손실에 따라 수년



간 운영비를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잠사회관 재건축사업은 2012년 제87회 정기총회(2012.2.15.), 2013년 제88회 정기총회(2013.2.22.)를 거쳐, 2014년 제89회 정기총회(2014.2.21.)가 되어서야 비로소 승인되었다.

이후 제303차 이사회(2014.3.19.)에서 재건축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회관의 '낡은시설(보일러,냉동기) 교체' 안건의 상정으로 다시 한번 '재건축사업' 추진이 절실함으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5월 28일 제7차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대항 제안업체 3개사 중 최고금액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 PT후 토광디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5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업무협약체결, 7월 15일 잠사회관에 사무실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어 (5명: 회장, 단체장4) 3차례 회의와 이사회 8차(303차~310차), 제89회 정기총회, 제90회, 91회 임시총회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본회는 2014년 10월 13일 잠업진흥원으로 이전하였고, 잠사회관 25개 입주업체는 10월 15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차장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본관 건물철거는 한국생사수출입조합의 사무실 점유로 2015년 4월 법원명도 절차에 의한 강제 이전까지 6개월 동안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6월 23일 : (주)농협한삼인과 업무협약체결 '홍삼눈꽃동충하초'
- 10월 16일 : 양잠산물활성화체험 홍보(잠원역) 및 제2회 잠원나무 축제
- 2월 21일 : 제89회 정기총회 잠사회관 재건축사업 승인
- 10월 2일 : 제9회 조선왕조친잠례행사 재현(경복궁 함화당,집경당)
- 10월 13일 : 본회 사무실 이전(잠업진흥원으로 이전)
- 12월 19일~10일 : 기능성양잠산업 워크숍(대전 유성호텔, 244명 참석)

### 6. 잠사회관 신축 기공식(2015)

#### 가. 잠사회관 신축사업 착수(8. 25)

잠사회관 건물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 1년만인 2015년 8월 25일(화) 대한잡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의도 잠사회관. 더하우스소호' 신축기공식이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윤장근 회장 기념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 정책관 축사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본회 임직원 및 재건축관련 설계업체 (주)한길종합건축엔지니어링, 신세계건설, 신화이피엠 관계자와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여의도 랜드마크로 첨단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건축물로 모범적인 사업장 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로 무사히 건물의 완공을 기원하였다.

#### 나. 양잠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12. 7~20)

2015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생활용품과 식음료, 가전제품 등 전시회인 인터내셔널 브랜딩 쇼케이스(IFS) 2015 행사에 대한잡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누에산업RIS사업단, 청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의 양잠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인터내셔널 브랜딩 쇼케이스 전시행사의 특징은 아



말레이시아 할랄협의

시아지역 가장 선도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전문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양잠산물의 수출시장을 둘러보고 수출여건 조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시행사였다. 특히 세계인구의 28%인 무슬림에 대한 건강관련 식품인 양잠산물의 시장진출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12월 18일에는 말레이시아 유일의 인증기관으로 급속히 떠오르는 이슬람지역 할랄시장을 관장하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 이슬람 개발부 JAKIM( The Development of Islamic Development)과 글로벌 할랄 지원센터 GDHC(Global Halal Support Center)를 방문하여 양잠산물의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폭넓은 협의가 진행되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2월 12일 : 제27대 윤장근 회장 재선임(임기 4년 적용)
- 1월~8월 : 잠사회관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
- 1월 9일 : 잠사회관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영등포구청)

- 5월 14일 : 착공신고완료(영등포구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한잡사회 → 하나자산신탁)
- 5월 26일 : 건축물분양신고완료(영등포구청)
- 8월 25일 : 잠사회관 기공식
- 11월 24일 : 2015 기능성양잠산업 워크숍 개최(대전 리베라호텔, 양잠인 130명)
- 12월 21일 : 기능성양잠 홍보영상제작 방영. KBS2 아침.  
대한민국 그린 르네상스를 열다(첨단기술 농업에 빠지다)

### 7. 왕비친잠행사 재현-잠원나루축제행사(2016)

#### 가. 제5회 잠원나루축제 - 왕비친잠례 진행(9. 24)

서울시 지정기념물 1호인 '잠실리 뽕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에 누에씨를 공급하는 국립양잠소(신잠실)가 위치하던 역사적인 장소에 소재한 잠원동 체육공원에서 2016년 9월 24일 제5회 잠원나루축제에 참가하여 전통적인 양잠 행사인 '왕비친잠례' 행사로 시작을 알렸고 행사장에 설치된 전시행사에서는 뽕나무와 누에를 주제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잠산물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다.



잠원나루 왕비친잠 재현

축제행사는 대한잡사회가 2010년부터 잠원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 양잠산물 홍보와 체험행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2년 지역의 양잠과 관련한 역사성을 되살리고, 주민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고자 제안하여 개최된 행사로 1980년대 서울의 강남지역 개발로 무성했던 뽕나무 숲에서 아파트 숲으로 바뀐 잠원동의 의미를 양잠으로 되새기는 행사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9월 22~24일 : 잠원역 양잠산물 홍보행사. 잠원나루축제
- 11월 24~25일 : 2016년 양잠농업인워크숍(레이크힐스 속리산, 잠업인 160명)

### 8. 누에인공사료센터 현대화(2017)

#### 가. 잠업진흥원 누에인공사료센터 현대화사업 준공식(1. 10)

1985년 농림수산부에서 인공사료를 보급하던 것을 1991년 대한잡사회 잠업진흥원에서 잠실을 개조한 건물에서 누에인공사료를 생산하여 양잠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공사료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었다. 대한잡사회는 누에인공사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2016년 2년간, 총사업비 14억(국고 80%, 자부담 20%), 건물 3동(647㎡)으로 가루 사료, 찌른 사료 제조시설, 저온창고를 신축했다. 2017년 1월 10일 윤장근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최근진 종자생명산업과장 등 잠업관계인이 참석하여 새롭게 건립된 시설의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2017년도에 가루사료 4,531kg, 찌른사료 13,000kg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인공사료현대화 준공식

#### 나. '더하우스 소호'준공 및 본회 이전(11. 1)

2015년 5월 6일 건물철거부터 시작한 재건축사업은 하나자산신탁을 통한 관리형 토지신탁형으로 신세계건설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어 마침내 2017년 9월 15일 준공 및 사용이 승인되었다. 신축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대지면적 2,750㎡(831평), 연면적 29,935.56㎡(9,055.50평), 주차장 B2층 ~ B5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2층, 업무시설 지상3층, 오피스텔 지상 4층~지상 13층 더하우스소호 브랜드로 새로 탄생하였다. 오피스텔 326실중 49%인 160실을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하였고, 대한잡사회 소유분은 전체 건물 자산의 65%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166실 및 근린생활 47실. 오피스 13실만 보유하게 되어, '잠사회관'이라는 명칭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신축건물 사용승인과 함께 본회 사무실은 11월 1일에 청주 잠업진흥원에서 여의도 본사로 이전하였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1월 10일 : 신년교례회 및 누에인공사료센터 준공식 개최(잠업진흥원)
- 9월 15일 : 재건축(더하우스소호) 준공 사용승인
- 11월 1일 : 본회 이전(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301호)
- 12월 2일 : 제97회 임시총회 강용수 회장 선임(전임회장 잔여임기 1년)

○ 12월 19일 ~20일 : 민·관 합동 양잠산업워크숍(천안 상록리조트)

## 9. 잠사회관(더하우스 소호) 준공식 개최(2018)

### 가. 잠사회관(더하우스 소호) 준공식 개최(1. 9)

1980년 12월 준공된 '잠사회관'은, 2011년 박동철 회장 재임 당시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어 2012년 윤장근 회장 당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되었고, 3년이 지나서야 2015년 5월 6일 착공신고와 더불어 철거되었다.

「잠사산업의 미래 100년, 잠사산업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큰 뜻을 품고 시작된 역사적인 재건축 사업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회원단체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과 법적 잡음이 끊이지 않아 회원에서 제명되고, 다시 회원으로 복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 2017년 9월 건물공사 착공이 승인되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종료를 눈앞에 둔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2017년 10월 당시 회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2017년 12월 5일 제97회 회장보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강용수 회장직무대행이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 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재건축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후 2018년 1월 9일 신축회관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창립 100주년을 향한 잡업 중흥의 꿈을 담은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알리는 강용수 회장의 인사와, 관계기관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양잠산업 발전과 잡사인의 요람으로 새롭게 탄생한 '잠사회관'의 완공을 축하했다.



2018년 12월부터 감사 2명으로 회관인수위원회가 운영되어 2019년 3월 31일 하나자산신탁과 PM사로부터 소유분에 대한 자산관리 인수를 마무리하고 4년여간에 걸친 재건축사업은 325억원의 재산평가 결과로 사업은 종료 되었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1월 9일 : 회관 준공식 및 신년교례회(신축회관. 강용수회장)

○ 3월 31일 : 회관인수위원회 운영종료

○ 5월 29일 : 대한잡사회 양잠산물홍보관 개관(본회 1층)

○ 11월 22~23일 : 양잠산업 워크숍 및 추계학술대회(천안 상록리조트)

○ 12월 12일 : 양잠산업발전토론회(잠업진흥원)

○ 12월 27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제조방법 변경자료 제출(식약처)

## 10. 양잠산물의 해외수출 추진(2019)

### 가. 기능성 양잠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체결(11. 2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잡사회는 한국산 누에제품을 수출유망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1월 21일 aT센터에서 이병호 사장 및 aT관계자, 임석중 회장 및 본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호 협력사항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을 통한 누에제품의 기능성 검증업무, 바이어 상담 및 홍보 등 해외시장 공동개척 활동, 국내 양잠농가 조직화를 위한 업무, 기타 수출상품화를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기능성양잠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나. 주요 진행사항

○ 2월 7일 : '동결건조누에분말' 제조공정 및 성상변경 인정(식약처)

○ 2월 22일 : 제100회 정기총회( 제29대 임석중 회장선출)

○ 4월 3일 : 양잠산업기반유지를 위한 기술 및 정보교육 (8. 12, 11. 25 총 3회 /214명 수료)

○ 5월 30일 : '잠업발전운영위원회' 발족

(회장, 단체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이사 총9인)

○ 7월 25일 : 곤충사육업(누에)이 축산업에 포함(축산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 8월 12일 : 흥잡생산기술교육 및 간담회(잠업진흥원)

○ 11월 21일 : 기능성양잠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1. 대한잡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2020)

### 가. 창립 100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10. 15)

1920년 조선잡사회로 출범한 대한잡사회는 금년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대에 걸 맞는 개혁과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고 잡업의 신기원과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2019년에 ‘잡업발전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였다.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본으로 우선 모든 잡업인의 희망인 ‘양잠산물유통센터 및 연구소’ 설립 타당성을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창립 이래 1969년 단체통합당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실시 이후 두 번째로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업무감사를 실시 하는 등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창립 100년’ 맞이하는 2020년 10월 15일, 기념행사를 위한 ‘편찬위원회 및 TF 팀’ 조직운영으로 ‘대한잡사회 100년사 발행’ 및 100주년 기념행사 기획 등을 추진되었다.

그러나 금년 2월 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모든 잡업행사가 취소 및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에 맞추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방식의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 대한잡사회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나. 동결건조 누에분말의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인정 및 수출 추진

동결건조 누에분말의 수요증대를 통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와 양잠산업의 외형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인정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출용 시제품을 지난 12월에 제작하였다.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인정을 위한 후생성 제출 구비서류가 거의 완성되어 원료 샘플과 함께 해외 수출용 시제품을 제작하여 aT센터의 각국 지사를 통하여 기능성식품 관련 해외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수출용 시제품으로 제조한 “Nue DEOXYIN capsule” 제품은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Nue DEOXYIN powder”는 일본 후생성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다. 주요 진행사항

- 4월 27일 : 창립100주년, 100년사 편찬 및 유통센터설립 TF팀 조직구성
- 5월 29일 : 양잠산물수출협의회출범 및 2020년 협의회(국립농업과학원)
- 7월 16일 : 제2차 양잠산업육성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점검(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기능성양잠실태조사 실시(국립농업과학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월 7일 : 기능성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9월 11일 : 제3차 양잠산업 육성계획수립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TF 팀)
- 10월 15일 : 대한잡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 및 양잠발전 심포지엄(잡업진흥원)
- 12월 21일 : 수출용누에 분말 및 캡슐 시제품 제작
- 12월 31일 : 대한잡사회 100년사 발간

## 제 4장 잠업진흥원 설립 및 활동

### 제1절 잠업 기술교육 및 진흥 행사(1970년대)

1972년 5월 22일 잠업기술연수원 개원 이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전문 양잠 경영자, 독 농가의 생력 양잠기술 습득, 잠업지도 공무원의 자질향상, 잠업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1977년부터는 치잠 사육기술자 양성을 위한 치잠사육 관리기사 교육을 개시하여 각도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잠 공동사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잠사육, 시설관리, 이론, 실무 등 교육을 통하여 자격시험 실시 후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 유자격자로 하여금 치잠공동 사육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잠 보급과 잠작 안정,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1973년 6월 5일에는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하는 제2회 새마을 양잠시범대회가 잠업기술연수원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1975년 제4회, 1976년 제5회, 1979년 제6회 등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가 당시의 농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또한 1974년 10월 4일 새마을권잡실 현판식에는 대통령의 큰딸인 박근혜양이 참석하였다.

이후 5차례나 전국 새마을 양잠시범대회가 잠업기술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 제2절 교육 분야확대 및 인공사료 교육 (1980년대)

1981년부터는 농업계 고등학교 잠업과 학생 및 양잠경영 희망 학생 대상의 농업고등학



잠업기술 연수원 개원 및 입소식



잠업기술 연수원 교육생 적상 및 누에사육 실습

교 학생반, 잠업 담당 행정공무원반, 잠사단체 임직원반, 문교부로부터 교사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업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농고교사반 등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하였고, 잠업 관계 종사자에 대한 양잠전문 기술교육 및 잠업 전반에 대한 교육실시와 양잠후계자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잠업행정 담당자의 전문화와 양잠경영혁신에 주력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국가 산업구조가 상·공업화에 따라서 이농 현상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공해 등으로 양잠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지면서 노동집약적 양잠경영의 필요성으로 잠업 시험장에서 연구 개발된 인공사료를 이용한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의 기술보급과 정착을 위하여 애누에 인공사료육 담당지도 공무원, 농가를 대상으로 애누에 인공사료육 전문반 교과를 편성하여 잠업시험장 연구진들이 교육하였다. 1981년 9월 9일 제8회 새마을 양잠시범 대회에서는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참석하여 전국의 양잠인을 격려했다. 이후 1982년 제9회 대회까지 새마을 양잠시범 대회가 개최되었다.

### 제3절 누에동충하초 생산 및 잠상산물 유통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잠사업계에 도래하였다.

입기만 하던 잠업에서 먹기도 하는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혼란과 우려의 와중에서 교육원의 위상과 진로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경제지표에도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잠사업이 쇠퇴함에 따라 양잠농가 호수의 대폭감소, 중앙 행정부처를 비롯한 각도의 잠업행정 및 기술보급체계의 와해 등으로 기존교육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의 잠업관련 기술교육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교육방향을 양잠산물의 생산, 유통, 새로운 환경에 맞는 양잠경영지도, 정보전달 등을 위주로 한 새로운 양잠소득원 창출, 누에동충하초 재배기술교육 등으로 고소득 양잠, 잠사문화박물관과 연계한 청소년의 학습장화, 일반 대중에 대한 잠사문화 홍보, 환경 친화 산업으로서의 잠사업 기반유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치잠공동사육 및 애누에 사육을 위한 양잠농가의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8월 14일

누에인공사료센터를 준공하였고, 1994년 3월 1일에는 인공사료기술교육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5년 4월 26일에는 인공사료 가루사료 생산시설을 준공하였다. 그리고 1995년 10월 27일에는 새마을권잠실내에 잠사문화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1996년 2월 1일에 잠업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4월 25일에는 충청북도 잠종장에서 잠령탑을 이전하여 건립하였고, 1998년 4월 30일에는 동충하초 종균배양실을 완공하여 운영하였다.

#### 제4절 세계누에산물전 및 바이오실크페스티벌 개최 (2000년대)

2000년 5월 1일에는 잠상산물 유통 사업을 전담하는 의미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잠업기술교육원에서 잠업진흥사업소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3년 7월 1일 부터는 잠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잠



업진흥원은 양잠산물의 신소재개발, 누에동충하초사업, 고소득 양잠으로의 체질개선 유도, 잠사문화와 환경산업으로서의 홍보 등으로 새로운 양잠의 진로를 지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년 10월 15일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잠사회 창립 84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잠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10월 14일 창립 86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2006 세계누에산물전' 행사에는 당시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석하여 개막 연설과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 친잠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9년 5월 22일에는 누에생태 체험 및 잠상산물 종합전시·판매를 목적으로 누에벨리클러스터가 개장되었다.

2011년 9월 30일에는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크바이오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2017년 1월 10일에는 누에인공사료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2018년부터는 익힌숙잠인 홍잠의 생산에 관련된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2020년 3월 9일 대한잠사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8년간 잠사업의 대표적 상징물로 널리 알려진 지상에 설치된 누에조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제작하여 본관 2층 위에 멀리서도 잘 보이고 조명을 부착하여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설치하였다.

현재의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잠업진흥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제 5장 잠사업 관련단체 설립 및 활동

### 제1절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

#### 1. 일제강점기의 양잠조합

양잠단체의 발전과정은 1908년경 조선총독부가 양잠장려를 위하여 잠업증산 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양잠조합의 설치를 목적으로 양잠조합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양잠조합 설립은 처음 4~5년간은 지도 장려에만 노력하였으나 점차 잠견의 생산이 증가되자 1916년부터 생산 잠견의 공



한국 양잠연합회 제1회 임시총회 (1973.3.22)

동판매에 착수하였다. 1918년경 생사가격의 앙등에 의한 잠견공동 판매량의 급증과 판매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양잠조합은 그 재정적 기초가 점차 공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6년 1월에 조선농회령이 발표되어 계통 농회가 조직되고 이 사업을 농회에서 취급하게 되자 양잠조합은 흐지부지 정리되고 말았다.

#### 2. 광복이후 양잠단체의 태동

1964년 10월에 발족한 대한양잠협회는 임의단체로서 구성되었으며, 1965년 5월 농림부에 등록 발족되었다. 양잠진흥조합의 구성을 목표로 양잠진흥조합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69년 초 잠업단체 통합에 따라 해산되고 말았다.

#### 3. 1970년대 양잠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양잠조합 발족

1971년 충청북도 청원양잠협동조합을 필두로 전국 43개 양잠협동조합이 설립되자 조합 간의 업무 연락 및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국양잠협동조합 중앙연락사무소'가 현판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양잠협동조합장

과 대규모 양잠농가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단법인 격인 전국양잠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에 법인인가 신청을 하여 1972년 1월 25일 법인등록이 승인되었다. 1975년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전국양잠연합회를 한국양잠협회로 개칭하고 단체의 기능과 체질을 개선하는 등 업무추진의 활성화와 내실에 주력하였다.

#### 4. 1980년대 초 대한잡사회에 흡수통합

1980년 국보위 당시 사회정화 차원에서 각계 사회 및 경제단체에 대한 정비에 잡사업계도 진통을 겪다가 10월 26일 한국양잠협회와 대한잡사회가 유사단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통폐합 지시가 있어 이에 따라 양잠협회는 대한잡사회에 흡수통합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3년 11월에 전국조합장 회의를 소집하여 양잠협동조합 업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양잠협동조합법 제정과 양잠협동조합중앙회 설치를 위하여 법 문안 작성과 국회의 동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잡업생산의 감소와 불황으로 조합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조합법 제정은 멀어지게 되었다.

#### 5. 법률에 따른 양잠연합회의 부침과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의 발족

1987년 7월 조합장 회의를 소집하여 단체를 다시 만들기로 합의하고, 10월에 한국양잠연합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농수산부에 단체등록을 신청하여 1988년 9월 16일 인가를 받아 등록단체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 5월 27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 신고 하였으나 1997년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 자체가 소멸되고 말았다. 이에 1998년 2월 27일 한국양잠연합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제173호로 농림부에 설립등록을 마치고 1998년 5월 21일 등기번호 제962호로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 6.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의 목적 및 주요사업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는 양잠 농가의 공동이익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요사업의 내용으로

1. 우량 잠견 및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기술의 보급.
2. 양잠산물의 생산 및 구매, 가공, 판매, 유통 등에 관한 지도 및 알선사업
3. 잡업진흥을 위한 연찬회 및 우수 양잠농가 표창
4. 생산비 조사 및 적정 가격 결정에 따른 대책 추진
5. 전업 양잠 농가 육성 및 양잠 조직 활성화
6. 양잠관련 자재의 알선 및 보급사업
7. 잡업 장려를 위한 정부 시책사업의 추진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회원은 양잠 영농을 하는 자이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총회의 구성은 경기도 1인, 강원도 1인, 충청북도 2인, 충청남도 3인, 전라북도 4인, 전라남도 3인, 경상북도 4인, 경상남도 3인 총 2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후 여러 차례의 정관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정관이 제정되었으나 창립 초기에 제정되었던 취지와 기본에서는 변화 없이 한국양잠연합회의 기초대로 유지되고 있다.

#### 7.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의 미래 설계

1998년 창립 당시에 전국 3만9천여 양잠농가 누에사육량 3만4천 상자 누에가루 생산량 151,245kg이었던 양잠산업 규모가 2020년 현재 600여 양잠농가, 누에사육량 1만여 상자로 지난 20년을 지나온 기간에 많은 양잠 농가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수익의 감소로 급격하게 축소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통산업으로 양잠산업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향후 고부가가치 신성장 기능성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선행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원료 생산기반 조성
- 양잠기술교육을 강화로 전문인력 육성 및 귀농, 귀촌 유입, 신규농가육성 지원사업
- 홍잠 등 웰빙 및 생활밀착형 제품개발과 바이오 첨단 신소재개발
- 양잠산물 명품화 사업을 통한 세계시장진출 및 차별화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정책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대한잡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는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매진할 것이다.



## 8.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 임원현황

1대 사공경 (1998 ~ 2001) 부회장 : 박성출, 장성욱, 장영규.

2대 장영규 (2001 ~ 2004)

3대 장성욱 (2004 ~ 2007)

4대 김보한 (2007 ~ 2009)

5대 윤장근 (2009 ~ 2012) 부회장 : 최근호

6대 최정규 (2012 ~ 2015) 부회장 : 강용수

7대 최정규 (2015 ~ 2018) 부회장 : 임병선

8대 송기택 (2018 ~ 현재) 부회장 : 임병선



2020년도 한국 양잠연합회 총회

이 사 : 경기 최재성, 강원 장익택,

충남 이연호, 충북 이준기, 전남 허완, 전북 김원운, 경남 윤종섭, 경북 최필환

대의원 : 경기 임성열, 강원 조영준, 충남 김기웅, 윤성원, 임봉묵, 충북 이성현, 류성선,

전남 김기현, 이경남, 최재호, 전북 정태영, 박황용, 오화석, 유각희, 경남 김준

호, 강종상, 변영태, 경북 김옥식, 오홍섭, 주상천

## 제2절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韓國蠶種協會)

### 1.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창립과 경과

조선시대 까지 우리나라는 일정한 잠종의 제조방법이 없이 거의 모든 농가에서는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산란된 잠종을 보존하고 사육하였다. 1906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우량잠종을 제조하며 배부하다가 각 도에 잠업전습소(蠶業傳習所)가 설치되어 잠종을 제조 배부하였으며, 1919년 조선잠



한국잠종협회 창립총회

업령이 공포되어 자격있는 자에게 보통잠종제조에 대한 면허(免許)를 주어 제조 배부하게 한 것이다. 1906년 이후 처음에는 광제(框製) 한 장 25아부(25娥附)로부터 28아부로

제조하여 농가에 배부하고 1930년, 1931년대부터 평부 35아부(平附三十五娥附)에서 광복 후 산란잠종(産卵蠶種) 10g(약2만 립)을 한상자로 제조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5년 10월 1일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이 발표되었으며, 1916년 5월 31일 통첩으로 조합령 제1조에 의하여 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업종에서 잠종은 제외되었으나 1922년 5월에 개정된 통첩 제27호에 의하여 잠종(蠶種), 상묘(桑苗)가 추가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 10월 18일 각 도 잠종동업조합(蠶種同業組合)이 설치되고 1929년에 조선잠종조합중앙회가 창립되어 운영되었지만 8·15광복과 동시에 해산되고 말았다.

1946년 7월 12일 조선잠사회가 창립되고 이후 대한잠사회로 명칭이 변경에 따라 업종별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61년 9월까지 활동이 이어졌으나 대한잠사회가 생산자금 및 생산품의 알선 등 경제행위를 지양하게 되자 잠종업자 고유의 개별단체로서 각 도의 잠종대의원 8명이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며 업종별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협 특례조합으로 발족할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같은 해 10월 10일 농협 특례조합 발기인회가 구성되었으나 전국의 잠종업자 수(46명)가 농협 특례조합의 법정 인원인 50명에 미달 됨에 따라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의 5개 도(道)에서 각 1명의 신규업자를 증원토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각 도의 신규업자 증원이 여의치 않아 특례조합 법정 인원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득이 사단법인 단체로 발족을 결정하고 발기인회에서 서면으로 찬반의 결의를 통하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의 창립총회가 소집되었다.

1961년 11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잠종협회의 창립을 의결하고 1961년 12월 6일 농림부의 설립허가(농정 4502호)를 받게 되었다. 이어서 12월 14일 등기번호 제967호로 법인의 등기를 마치며 1962년 1월 4일부터 한국잠종협회의 잠종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69년 대한잠사회의 잠사단체 통합방침에 따라 해산이 결의되었으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법인단체의 등기는 존속되는 상황이었고, 형식상으로는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청산위원으로 선출된 잠종 회원은 별도로 ‘잠종수출개발회’를 설치하여 잠종의 수출업무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다. 1973년 5월 16일에는 대한잠사회에서 분리되어 정식으로 재창립의 수순에 따라 정관변경 및 임원을 선출하였고 1975년 12월 31일에 법인설립허가 등기를 갱신(허가번호 제9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00년 2월 26일 재차 법인설립허가 등기 갱신(허가제9호, 농림부장관)이 있었고 4월 20일에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잠업법이 1999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회원자격 가운데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삭제되었다.

## 2.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우량잠종 제조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 및 조사연구, 시찰강화, 강습회의 개최
- 나. 잠종의 생산비 조사 및 적정 가격 건의
- 다. 잠종 및 잠종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공동구입 및 수출판매 알선
- 라. 잠종제조 자금의 공동융자 및 알선
- 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사업
- 바.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3. 2020년도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임원현황

직책	성명	사업자명	대한잠사회	비고
회장	강경모	잠경잠업사	이사	
이사	손경식	효성물산	대의원	
이사	임영수	김제잠업사	전임대의원	
이사	송진영	이원잠업사	대의원	
감사	신병각	동성산업사	대의원	

## 4.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수출현황

아래 표와 같이 1986년 이란에 65,000상자의 잠종수출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북한에 2,200상자,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2,240상자의 잠종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으나, 중국의 영향으로 잠종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국가명	공급수량	비고
1986	이란	65,000	
1992	이란	70,000	
1999	네팔	100	
	2000	5	
	2001	2	
	2005	2,200	
2000	북한	1,000	
	터키	10	
2001	가나	5	
2005	에티오피아	10	

연도별	국가명	공급수량	비고
2006	우즈베키스탄	2,240	
	튀니지	80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는 대한잠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동남아 및 개발도상국의 국가 등에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잠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에 앞장설 예정이다.

## 5.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의 잠종보급 현황

잠종보급현황						
번호	도별	2011년도공급 수량(상자)	2012년 추기		2012년 씨고치 신청량	2018년 씨고치 신청량
			공급수량(상자)	공급수량(상자)		
1	경기도	209	177.5	39	-	-
2	강원도	218	129	19	-	-
3	충청북도	604	231	34	336.3	285
4	충청남도	1,266	736	100	-	-
5	전라북도	2,100	1,074	121	890.9	-
6	전라남도	2,394	1,108	219	-	-
7	경상북도	7,667	4,117	424	3,683.2	2,704
8	경상남도	1,953	966	111	1,419	548
합계		16,411	8,538.5	1,067	6,329.4	3,537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 신청량과 2018년도 신청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잠종협회는 대한잠사회를 주축으로 한국양잠연합회, 한국상묘협회, 한국생사수출조합과 함께 협력하여 양잠생산 지원단체로서 양잠농가의 생산량 증가와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해 사단법인의 역할을 다해 나아갈 예정이다.



2020년도 한국잠종협회 총회

## 제3절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韓國桑苗協會)

1934년 10월에 조선상묘조합연합회가 창립되어 8·15광복 시까지 존속하였으나 해방과

동시에 자연 해산되었다. 이후 상묘산업은 대한잡사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상묘관련 업무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1961년 9월부터 생산자금의 알선과 상묘의 공동판매알선 업무를 지양(止揚)하게 됨에 따라 각 도 상묘업자 대표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1961년 10월 28일 각 도 대표 53명이 참석



한국상묘협회 창립총회 (1961. 10. 28)

한 가운데 상묘협회의 발기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농림부의 법인설립 허가(농정 제4145호)를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8에서 정식 출범하였고 같은 해 12월 1일 등기번호 제479호로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 1.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창립 당시 정관의 내용

- 가.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라 칭하며, 각 도에 지부를 둔다.
- 나. 사업으로는 우량상묘의 생산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시찰, 강화, 강습회의 개최, 상묘의 생산비 조사 및 적정 가격 협정의 건의, 상묘 및 상묘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판매 및 알선, 상묘 생산자금의 융자 및 알선,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행한다.
- 다. 대의원 수는 각 도 3명씩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100명을 초과하는 도는 1명을 증가한다.
- 라.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지부장 8명, 이사 8명(외 상무이사 약간명), 감사 3명을 둔다.
- 마.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무이사는 회원 외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 2.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경과 과정

이후 1969년 2월 1일 잡사 단체 통합방침에 따라 청산위원으로 지정규, 박종만, 김종덕을 선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해 4월 1일 대한잡사회로 통합하였다. 이후 1972년 12월 6일 대한잡사회로 통합된 업종별 잡사 단체에서 상묘부문의 단체로 별도 분리하기 위해 상묘 대의원 8명이 추진대표를 지정규로 하여 새로운 상묘협회 발족총회를 1973년 1월 20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고 1973년 5월 16일 정식으로 출범하

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사업의 주요 내용

한국상묘협회는 안정적 품종보급과 개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완벽한 상묘 생산으로 양잠산업 유지 및 잠업증산을 위한 기반조건 만족을 위해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우량묘목 생산을 통해 양잠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내양잠산업 발전의 허브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며 양잠산물 건강 관련 산업이용 증대와 함께 친환경적인 상묘산업 유지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따른 상묘 산업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 가. 우량상묘 생산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시찰, 강화, 강습회 개최.
- 나. 상묘 생산비 조사 및 적정 가격 협정의 건의
- 다. 상묘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판매 및 알선
- 라. 상묘 생산 자금융자 알선 기타 주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사항.

### 4.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우량상묘 생산을 위한 노력

- 가. 2016. 6 : 우량상묘 국내품종 안정성과 세계화 수출에 대비해 기호성이 높고,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성과 노동력을 절감할수 있는 고품질의 안정 생산이 가능한 방사능 돌연변이육종 시험재배.
- 나. 2017. 5 :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형 품종,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내서성 품종, 내한성 품종, 무농약 재배를 위한 내병성 품종, 연중생산이 가능한 사계성 품종, 재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조생종 품종 시험재배 단지 조성.
- 다. 2018. 5 : 도입육종법과 분리육종법으로 새로운 변이체를 찾는데 성공.
- 라. 2019. 6 : 교잡육종법과 감마선이나 화학 약품을 생장점 등에 처리하여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어 유전변이를 유도하여 새로운 품종육종 육성
- 마. 2020. 6 : 체세포 변이를 통해 캘러스 과정을 거쳐 완전한 식물체가 형성되는 전형 성능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체 획득.



2020년도 한국상묘협회 총회

## 5.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의 향후 기술적 추진계획

형질전환 방법으로 생물 변이 창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분자유전학과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물 공학적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변이체 획득에 성공한 개체의 유용성과 안정성 등이 실제로 우리 양잠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할 계획이다.

## 제4절 사단법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1. 주요 연혁

- 1952. 7. 10 : 전국제사업자가 임의로 생사수출조합을 설립
- 1961. 10. 31 : 수출조합법에 의한 한국생사수출조합 창립총회 개최
- 1961. 12. 6 : 상공부장관의 설립허가(허가번호 상역제157호, 법인등록번호 제164호)
- 1968. 5. 8 : 대한제사협회(1962.7.8. 창립)를 흡수통합  
(제사협회 당시 임원 : 회장 이원영, 부회장 이용기, 이동환)
- 1999. 4. 26 : 사단법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으로 설립허가  
(농림부 과화 51070-34, 대외무역법 중 수출조합의 조항 폐지(1999.1.4.)로 동법 경과조치 근거, 민법 32조 등기번호 제1026호)

### 2. 잡사업 발전을 위한 역할 및 기여

#### 가. 대한잡사회 기본자금 조성

1954년4월16일 대한잡사회 제10차 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8번지 소재 대지 81평 건평 131평1합6작을 매입하여 잡사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잡사회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창립총회 (1968. 5. 8)

잡사회 기본자금 조성액 (1951.9.1.~1955.)

구분	금액(환)	비율(%)
상묘업자	4,941,003.13	7.2
잠종업자	11,751,324.72	17.7
제사업자	40,304,798.27	75.1
계	56,997,126.12	100.0

#### 나. 생사류수출에 의한 잡사업의 부흥발전

1960년대초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생사가 수출랭킹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생사수출은 잠업증산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다. 잠업생산 기반의 조성

- 1963년12월13일자(농생잠 1123.63)로 시행에 따른 제사시설 증설로 1964년부터 1966년까지 3년에 걸쳐 270,062천원 잠업장려금 적립금을 책정하여 잡사회 각 도지회에 납부토록 하고 이 장려금은 각 도에서 상묘대, 비료대, 잠구대 등 잠업장려를 위해 활용토록 하였다. (26개 제사업체 조사기 수 : 3,563대 → 8,982대)
-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 추진에 일조하였으며, 기업양잠농단지는 혼합투자(직접 및 간접투자)단지가 5개 단지, 간접투자단지가 51개 단지로 총 56개 단지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다.

<기업양잠농 육성 운영실적>

구분	뽕밭조성(ha)	사업자금(천원)	잠업지도원채용	고치생산(톤)	제사시설면허(대)
1969	20,880	697,641	405	-	4,478
1970	3,329	972,613	728	2,478	1,518
계	24,209	1,640,254	1,133	2,478	5,996

#### 라. 잠업사업자금의 적립

- 1963년부터 1984년까지는 제사업자의 생사수출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의 1/2 적립
-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생사수출이 전무하여 기금적립이 없었으며
- 1987년부터 1997년 까지는 한국생사수출조합에서 생사 수급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합의하여 외국산 생사를 수입하여 견직업체에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산생사 가격과의 차액을 적립

### 3. 주요 추진 사업 요약

#### 가. 대일 견연사 수출검사 실시

- 검사항목 : 색태 및 오염 검사(전체 육안검사), 총데니어 검사, 수분 검사, 정중량검사, 유지분검사, 포장 및 봉인

대일견연사 수출검사 실적 (1991 ~ 2000년)

연도	표/60kg	건수	연도	표/60kg	건수
1991	8,135	8,135	1996	10,960	1,465
1992	9,767	9,767	1997	7,395	883
1993	12,356	12,356	1998	1,015	124
1994	8,980	8,980	1999	2,075	265
1995	9,443	9,443	2000	1,145	123

#### 나. 누에고치 가격 결정 마지막 합의 (1996.4.29. 제사용 누에고치 가격 마지막 협의회, 참석자 : 5개단체-잠사회, 양잠, 상묘, 잠중, 생사)

- 1996년 누에고치 가격(잠견생산장려금 불포함)은 1995년 가격으로 거치
- 잠업진흥기금의 가용재원을 잠견 생산장려금과 생사 소비촉진자금(25%)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결정되었으나
- 국산누에고치 생산량은 전량 각 도 잠업사업소에서 수매한 바 제사용건의 출하는 전무

#### 다. 생사공장 노사단체 마지막 협의회

1968년 대한제사협회를 흡수통합 이후 한국생사수출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섬유노동조합연합회의 생사지부 간에 매년 노사단체협약회의를 통하여 제사공장의 임금과 단체협약을 상호협약하고 결정해 왔었는데 1997년을 마지막으로 생사공장노사단체협약회의가 끝났으며, 이후는 개별 공장간 노사협의를 하게 되었다.

#### 라. 생사류 수입관세 적용요청 및 추천업무 주관(1997. ~ 현재)

양허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생사수출조합이 실크류 수입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적용을 실크류 시장 상황에 맞게 정부에 매년 요청하였으며, 품목별 관세적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품목	관세	세율(%)		적용기간	비고
		기본/실행(고율)	적용		
누에고치(건견)	양허	2/2(51)	2	~현재	WTO농수산물시장접근물량
생사	양허	8/8(51.7)	2~3	~1997	WTO농수산물시장접근물량
견연사	조정	3/3	20~10	1997~2003	국내산업 보호
견직물	조정	13/13	20~15	1997~2003	"
생사,옥사	할당	3/8(51.7)	3~0	1998~현재	국내산업보호,중소기업 지원책
견연사,견방사	할당	3/3	3~0	2009~2016	"

#### 마. 실크 원재료 생사의 공동구매 수입 공급

1987년 이후 실크공장의 원료인 생사의 국내 수급량이 부족하게 되어 부족분을 수요단체 및 업체가 공급을 요청 할 경우 양허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생사수출조합이 공동구매 수입공급을 하고 있다.



2020년도 한국생사수출조합 총회

#### 4. 조합의 역대 임원 및 조합원 명단

##### 가. 임원

대수	이사장	소속	부이사장	소속	상근이사 등	이사장 재임기간
임 의 조 합						
초대	홍성하					1952.7.10.~1954.7.10.
2	홍재근					1954.7.11.~1957.10.26.
3	이경용					1957.10.27.~1960.5.17.
4	최태섭					1960.5.18.~1961.10.31.
법 인 조 합						
초대	최태섭	충남제사	김경중		상무이사 김진희	1961.11.1.~1968.4.29.
2	김지태	한국생사	이용기 윤우동	경기제사 한국생사	전무이사 윤의주 상무이사 윤창진 상무이사 윤주빈	1968.4.30.~1970.5.1.
3	박인천	전남제사	윤우동 곽태순	한국생사 중앙생사	전무이사 윤주빈 상무이사 윤창진 상무이사 고재청	1970.5.2.~1972.1.31.
4	황재홍	예천제사	윤우동 곽태순	한국생사 중앙생사	전무이사 윤창진 상무이사 고재청	1972.2.1.~1973.2.28.

법인 조합						
5	윤우동	한국생사	이용기 장지환	경기제사 예천제사	전무이사 윤창진	1973.3.1.~1973.8.21.
6	곽태순	중앙생사	이용기	경기제사	부이사장 장영진 상무이사 김희권	1973.8.22.~1974.7.23.
7	김영우	한국생사	곽문순	제일생사	부이사장 장영진 상무이사 김희권	1974.7.24.~1979.3.30.
8	고판남	호남잠사	곽문순 최세균	제일생사 남한흥산	부이사장 장영진 상무이사 이재승	1979.3.31.~1981.2.13.
9	곽문순	제일생사	심재익 김기룡	충북제사 해성견업	전무이사 이재승	1981.2.14.~1981.6.25.
10	정을용	상신공업	심재익 서인석	충북제사 성보산업	전무이사 이재승	1981.6.26.~1984.2.23.
11	곽문순	제일생사	심재익 서인석	충북제사 성보산업	전무이사 이재승	1984.2.24.~1991.2.27.
12	정상용	상신공업	심재익	충북제사	부이사장 이재승 상무이사 한기우	1991.2.28.~1993.2.27.
13	심재익	충북제사	김기룡	해성견업	부이사장 이재승 상무이사 한기우	1993.2.28.~1996.2.27.
14	이용기	경기제사	김기룡	해성견업	부이사장 이영렬	1996.2.28.~1999.2.26.
15	최택영	삼진산업	조정현	제일생사	부이사장 이영렬	1999.2.27.~2001.2.23.
16	심재익	한중실크	권영기	흥진	부장 조동회	2001.2.24.~2003.2.27.
17	권영기	흥진	강병찬 송재웅	BC상사 합도연사	상무 조동회	2003.2.28.~2005.3.6.
18	박동철	동원실크	이응권 이대석	중앙생사 리코	상무 조동회	2005.3.7.~2009.3.6.
19	권영기	흥진	이대석	리코	전무이사 조동회	2009.3.7.~현재

#### 나. 1976년 생사공장 조합원 명단(1976년 한국잠사업 회 최전성기인 당시)

조합원	소재지	조합원	소재지	조합원	소재지
해성견업(주)	안성	천원잠사(주)	천안	제일생사(주)	성주
	의정부	동흥산업(주)	연기	한능생사(주)	김천
	양평	백제잠업(주)	부여	성보산업(주)	선산
경기제사(주)	가평	충남제사(주)	예산	한국생사(주)	청원
	성동		서산		대구
한남공업(주)	용인	선일제사(주)	전주		안동
경동제사(주)	여주	전북제사(주)	무주		영주
동방제사(주)	춘천	삼남제사(주)	임실		상주
원주제사(주)	원주	동양제사(주)	남원		예천제사(주)

조합원	소재지	조합원	소재지	조합원	소재지
강릉제사(주)	강릉	삼풍제사(주)	정읍	중앙생사(주)	봉화
한일제사(주)	홍천	호남잠사(주)	김제		왜관
(주)쌍용	정선	삼양물산(주)	장성	울진제사(주)	울진
남한흥산(주)	청주	광산잠사(주)	광산	진주제사(주)	진주
	제천	삼화잠사(주)	화순	언양잠사(주)	울주
삼성제사(주)	충주	나주잠사(주)	나주	동진산업(주)	하동
은성산업(주)	옥천	삼양제사(주)	장성	산청제사(주)	산청
중화실업(주)	대전	삼흥제사(주)	경주	함양제사(주)	함양
	옥천	상신공업(주)	의성	남양제사(주)	거창
대양제사(주)	영동	태성제사(주)	의성	한성제사(주)	합천
괴산농잠(주)	괴산	달성산업(주)	영천	효성잠사(주)	제주
동성생사(주)	음성		문경	※ 조합원 수: 52개사, 공장 수: 64개	
대전생사(주)	대전	청도잠사(주)	청도		

#### 다. 1976~2019 조합원 가입 후 중도탈퇴 회원명단

조합원	소재지	조합원	소재지	조합원	소재지
삼진산업사	양주	두성산업	강화	경북제사	성주
합도연사	아산	B.C상사	여주	주신연사	김제
정한실업	안산	삼정물산	서울	동원실크	서울
경남실크	산청				

#### 라. 2020. 현재 조합원 명단

조합원	대표자	소재지	조합원	대표자	소재지
해성견업(주)	김주현	경기 안성	(주)신원엔에스	한승희	서울 은평
경기제사공업(주)	이종주	경기 가평	네오실크	최철수	경기 안양
(주)한중SILK유통	심재익	서울 성동	리 코	이대석	경기 화성
중화실업(주)	박배우	경기 성남	경방상사(주)	김만형	대구 남구
대전생사(주)	연철규	충남 연기	(주)나영실크	이종하	경북 경산
중앙생사공업(주)	이응권	대구 달서	자연지색	박은용	대구 서구
하나테크(주)	손봉기	서울 서초	황금직물	김정환	충남 공주
(주)경기SILK	이덕재	경기 여주	금화직물	김동철	충남 공주
(주)흥진	권영기	경기 용인	재영텍스타일	오상선	서울 서초
금농산업사	최비도	경북 구미			